



6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6호

(루게 368)



◆◆◆◆◆◆◆◆◆◆ 차 례 ◆◆◆◆◆◆◆◆◆◆

황철나무 설레이네	2
만수대의 목란 외 1 편	2
지하평양 좋네	3
《지원》의 높은 뜻 가슴에 새기며	4
혁명적인 가사창작에서 서정성과	7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하자	7
전사의 딸	9
불 길	10
교두보에서	18
조국의 궤도를 따라	28
첫생활	32
과원의 꽃속에서	37
생활의 길동무	38
높이 들자 자력갱생의 붉은 기치	41
농장의 여름밤에	42
신천땅에 눈보라 운다 외 1 편	42
이 침묵 더치리	43
선반기는 돌고, 세월은 흐르고...	44
그날의 바다기슭에서	45
전사의 심장은 노래한다	46
한마음	50
다함없는 사랑의 서사시	58
특색있는 언어표현	60
생활의 생동한 화폭	63

황철나무 설레이네

전병구

황철나무 설레이네

황철나무 설레이네

가림천기슭 숨엄한 땅우에

노래를 부르는듯, 속삭이는듯

무성한 푸른아지 설레이네

그날에 받아안은

백두의 별빛을 희망으로 피워올리고

동트는 새벽마다

백두의 노을빛을 키높이 우러르며...

백두의 먼 산발을 헤치고 넘어오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모시던 그날을 못잊어

오늘도 키높이 자라 설레이네

설레이네 설레이네

해마다 잃은 지고 다시 피건만

봄마다 움트는 새잎마다엔

변함없는 백두의 그 노래를 안고

봄마다 푸른빛 잎새마다엔

변함없는 백두의 정기를 담고

설레이는 황철나무

가림천의 황철나무

오, 이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처럼

푸른잎 갈피마다 감격의 이슬을 털며

수난당한 조선의 그 모든것을

장군님께 밤깊도록 아뢰이던 황철나무!

그날 그밤의 불길처럼

노을빛어린 푸른 나무아지를

해빛찬란한 락원의 하늘가에 한껏 펼치고

끝없이 설레이네 설레이네

이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마음속에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불러주며 불러주며...

그날부터 그날부터

보천보전투의 그 총성을

아지마다 굳세게 간직하고

장군님을 처음 모신 그 영광을

흘러온 세월과 함께 속삭이누나

흘러갈 세월과 함께 전해주누나

만수대의 목란 외 1 편

윤석범

해썬는 만수대 높은 언덕에

떨기떨기 피어난 아름다운 목란

일만뿌리 내리어 천만 송이송이

청신한 새벽이슬 머금고

향기도 그윽히 꽃바다로 설레이네

찬이슬 밝히는 새벽길에

그이를 맞던 어느 먼 북변도시에서

비바람 헤치며 찾으신 다락밭

그이를 뵈웁던 어느 산간마을에서

달리고달려온 소박한 그 마음들을 담아

아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온 나라 목란꽃이 물결치는 여기

삼가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인민의 소원 담아 피고피었네

령너머 천리방선을 찾으시여

총가목 다잡은 어깨를 쓸어주실 때

그이 품에 목메였던 초병의 심정

꽃속에 향기속에
수령님 모시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오르고오르는 발걸음
여기에 닿는 높은 계단우에
온 나라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와
한껏 정성의 꽃을 피웠구나

아름다와라!
저 하늘끝까지 뿌리시는 주체의 빛발
온 누리에 휘황한 미래를 부르시는 수령님 품에
찬란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거연히 손길 드신 위대한 수령님 동상앞에
한송이라도 더 곱게 피워드리고픈 심정들!

행복이 맹세로 다져지는 이 언덕에 서면

가슴가슴 주체의 피가 끓어
살아 행복할
영원히 충성할
아,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이어!
맑고 깨끗한 조선의 꽃이어!

한송이 또 한송이
백송이 다시 천만송이
바치고 바치여도 다함없는 우리의 충성 담아
피고피어나는 목란꽃이어!

기쁨의 송이송이
흙모의 송이송이
온 누리가 우러르는 성스러운 언덕에 피고피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인민의 념원으로 만발하여라!

지하평양 좋네

모란봉에 높이 올라 바라보는 평양 좋고
지하철도 렬차간에 앉아보는 평양 좋네
하늘우의 무지개가 땅속에도 비졌구나
지하천길 주름잡아 날개 달고 내려가네

백번 와서 다시 서도 고마움에 젖어들고
행복속에 잠겨있는 차창가의 밝은 얼굴
은혜로운 해빛이 대하처럼 흘러도는
지하전당 넓은 땅에 가슴마다 안은 사랑

불빛속에 웃는 눈길 거울처럼 비껴보며
이 행복을 노래하는 내마음 후더워라
기쁨만이 비쳐드는 영원할 궤도우에
주시고 또 주신 사랑 지심보다 뜨거워라

아, 인민 위해 펼치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이
지하층층 비쳐내려 락원으로 꽃이 폈네

기쁨렬차 사랑렬차 고동치는 그 길우에
수령님의 주체사상 걸음걸음 빛발치네

그이 품에 번영하는 지하평양 네거리여!
승리역은 어디메고 혁신역은 어디메냐!
그 어디나 락원으로 꽃피는 내 나라
땅밑까지 가득 핀 사회주의락원이여!

전동차는 흘러가네, 아름다운 지하거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실고
지심깊이 흘러가는 은혜의 차창가에
순간마다 느껴보는 우리 행복 끝없어라

하늘에서 굽어보라 산우에서 바라보라
지하렬차 특등칸에 안겨보는 평양 좋네

《지원》의 높은 뜻 가슴에 새기며

위동훈

자식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대답을 주기란 사실 험치 않은 일이다.

나는 인민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가지고있는 지식으로서 별로 머리쓰지 않고 대답을 해주곤한다. 그렇지만 부모의 지식도 한계가 있는만큼 변변찮게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설명으로써 굼뎌버리는것이 일쑤이기도 하다. 얼마후 부모의 이와 같은 정신적자세가 아이들에게 곧바로 비쳐지는것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은근히 놀라며 자기를 위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들의 질문이라고 그저 소홀히 대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집 책상우에는 《지원》이란 글을 새긴 부각판이 정히 놓여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필체가 그대로 옮겨진 부각판을 마주 대하고 책상앞에 앉을 때면 나라를 위하여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지원》이란 두 글자가 송엄하게 안겨오며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자극속에 마음도 승화되어 학습하는 책의 글줄들에 더욱 정력을 쏟아붓게된다.

《지원》- 그 높은 뜻을 내가 어찌 다 안다고 할수 있겠는가. 《지원》의 사상이 가르치는 높은 언덕은 나는 일생을 통하여 오르고 또 올라야 할것이다 어느날이었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숙제를 하던 딸애가 부각판을 가리키며 자랑하듯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지, 나 이거 무슨 글인지 안다.》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보렴.》

《지-원- 김형직선생님께서 쓰신 글이지 뭐.》

《무슨 뜻인지 알겠니?》

《공부 잘하라는거.》

《허허 ...》

영똥한 말갈아 웃어버리려니 딸애의 대답도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며 《지원》이란 부각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순간 나의 눈앞에는 《지원》이란 글을 벽에 써 붙이시고 진리탐구로 밤을 새우시던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모습이 우뚝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나는 딸애에게 《지원》이란 말이 가지는 웅심깊은 뜻을 인차 설명해줄수 없었다. 물론 그것을 설명한다 해도 딸애가 다 알수는 없는것이다. 딸애가 좀더 자라 많은것을 이해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야

기해주리라...

하지만 정작 이 두 글자속에 들어있는 웅심깊은 뜻, 위대한 사상을 어떻게 무엇부터 설명해줄가생각해보니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았다. 무엇이나 알고싶어하는 딸애에게 우선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그 뜻을 설명해주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책꽂이에서 두툼한 책 한권을 꺼내들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이란 책이였다.

선생님의 어린시절과 혁명활동이 상세하게 생활적으로 서술된 책은 첫페이지부터 인상깊은 자료들로 하여 나의 마음을 틀어쥐는것이였다.

어리실적부터 남달리 향학열이 높으셨고 총명하시여 재동이라 불리우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생활이 구차하고 매일같이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시면서도 어느 하루 학습을 놓으시지 않으시였다. 꿈많은 시절이였다. 하지만 일제놈들의 압제밑에 빛없는 암담한 현실은 선생님께서 하여금 배움의 나래를 펼수 없게 하였다. 돈있는 집 자식들처럼 학교에 갈수 없으셨던 선생님께서서는 대동, 룡강, 남포의 그 먼 길을 다니시며 글 아는 사람들을 찾아 한자두자 배우시였다. 생활이 아무리 궁핍하고 배우는것이 고달팠어도 선생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식힐수는 없었다. 온 마을이 잠든 깊은 밤에도 《지원》이란 두 글자가 붙은 선생님의 방에는 등잔불이 꺼질줄 몰랐다.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밤새워 공부하다가 탈이나겠다고 할머님께서 녀려해주실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할머님! 근심 마십시오. 의지가 굳센 사람에게 는 병도 호락호락 접어들지 못한답니다.》

남한테 수모를 받지 않고 땀땀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실 때에도 교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써 붙이시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하시였다.

《너희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그것은 왜놈들앞에서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또 왜놈들의 개가 되려고 하는것도 아니다.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이다.

지금 왜놈들은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금은보화를

마음대로 빼앗아가고있다.

왜놈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렇듯 선생님께서 지니신 《지원》의 애국사상에는 혁명에 유익한 지식과 선진사상을 깊이 배워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시려는 뜨거운 열망, 후대들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아가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가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기에 언제나 깊은 심려를 돌려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태어나시자 어리신 아드님을 위대한 애국자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각별한 지성을 쏟아부으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어리신 아드님에게 일찌기 우리글을 가르치시였고 차츰 애국적인 시가도 가르쳐주시였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다 말릴거다
사나이 스물에 나라 평정 못하면
늪라서 뒤세상에 대장부라 하리오

어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시가를 즐겨 읊으시곤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중실학교를 중퇴하신후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시는 과정을 읽으면서 나는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선생님의 위대한 뜻, 《지원》의 사상이 어떻게 현실투쟁속에서 빛을 뽐게 되였는가를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되였다.

혁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시기 위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1916 년봄 강동군 봉화리로 자리를 옮기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이 시기 선생님께서서는 오래전부터 무르익혀오시던 반일혁명조직을 못기 위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길에 들어서시였다.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기까지 선생님께서서는 어느 하루, 한순간도 편히 쉬시지 못하시였다.

평양회의에서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듯하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케케묵은 《외세의존》사상과 《청원》의 억두리를 불사르시는 그 말씀, 철저히 반제적이고 자주

적인 립장, 이 선언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였다.

몸과 마음, 불타는 정열을 깡그리 혁명위업에 바쳐가시는 선생님의 굳센 지조를 원썬들의 철창과 고문도 굽힐수 없었다.

감옥에서 나오신지 불과 보름남짓 지난 어느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쇠약해지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2천만겨레앞에 지니신 무거운 의무의 걸음으로 또다시 어려운 투쟁의 길을 떠나시였다.

만경대를 떠나시면서 남기신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든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가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절절한 말씀이신가! 위대한 뜻을 품으신 선생님의 발걸음이 닿는곳마다에 혁명의 주추돌이 마련되어갔다.

벽동과 초산, 강계일대에서 조직을 복구확대하기 위한 활동, 다시 평양으로, 중강진과 관전, 립강과 의주로, 위원, 월탄, 포평, 고읍 등지에서 무송으로 ...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혁명가들이 신심도 드높이 각처로 떠나갔고 선생님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 위력한 혁명조직들이 생겨났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는 한편 이런 준비에 기초하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활동을 적극 벌리시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1926 년,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위중한 병환에 계시면서도 밤을 지새우시며 사색하시고 무르익혀오시던 새로운 투쟁방향을 동지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열렬히 피력하시였다.

장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밝혀주시는 선생님의 말씀 구절구절이 그대로 불길같은 호소로 안겨온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길림에서 활동하던 오동진과 장철호를 만나신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남기시였다.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투쟁해온지도 벌써 10 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는 독립되지 못하였으며 민중은 압제의 철쇄에 얹매여 몸부림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손에 무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무장한 원쑤는 오직 무장으로 쳐부셔야 합니다. 이 길만이 조선독립달성의 유일한 진로입니다.»

이것은 곧 선생님께서 장기간의 투쟁과정에 얻으신 귀중한 교훈이었으며 우여곡절 많은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피의 진리이기도 했다.

《자주적으로 조선을 독립시키자! 천대받고 굶주리는 민중을 구원하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어느 한순간도 이 철석같은 신념을 잊으신적이 없으시었다.

나는 가슴뚫듯한 흥분을 느끼며 마지막 책장을 넘기었다.

나의 눈앞에 《지원》이란 부각판이 더욱 크고 선명하게 나타나는것이다.

《지원》-너무나 많은 뜻을 이야기해주는 글이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며 나라의 독립과 번영, 새 사회 건설의 웅대한 사상이며 자기나라 인민의 힘을 굳게 믿는 민족자주정신의 호소이다.

위대한 사상의 정수가 담겨져있는 말, 《지원》이란 두 글자속에 얼마나 웅심깊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 《지원》의 높은 뜻을 딸애에게 말로써만 쉽게 설명할수 없다는것을 나는 똑똑히 느끼었다.

산과 들에 록음이 짙어가는 6월 어느날 나는 봉화리전학을 가게 되어 인민학교에 다니는 딸애와 함께 뺨스에 올랐다. 마침 딸애에게도 많은것을 설명해주고 직접 눈으로 보게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것이다.

딸애는 가는 도중에도 이제 봉화리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고 앞질러 묻곤했다.

《저것 보려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니. 거기 가면 다 알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며 시원한 바람이 밀려드는 차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물결,

김형직선생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봉화리로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온다. 맥전나루 맑은 물결이 정답게 굽이쳐오고 견학자들의 노래소리가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혁명의 뜻이 어린 봉화산기슭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 없어라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숨결인가
맥전나루 물결이 가슴에 흘러드네
.....

멀리로 봉화산의 푸른 소나무가 시원히 안겨왔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김형직선생님의 높이신 뜻이 저렇듯 싱싱하게 퍼난것이 아닌가! 얼굴마다에 행복의 미소가 붉게 어린 소년단원들과 대학생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혁명의 배움터 봉화사적지로 들어선다.

대학생들의 가슴에 달린 휘장을 바라보던 딸애가 《아버지, 저저 <지원>》 하고 짹짹한 소리로 웨치였다.

우리 뒤퍼스를 타고온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이였다.

《아버지, 나두 저런저 달구실네.》

《이제 너두 달게 될게다.》

《야- 저건 공부를 잘해야 달지 않나?》

《공부를 잘해야지. 넌 이제 많은걸 배우게 될게다. <지원>이란 글에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것 말구두 또 다른 큰 뜻을 배우게 될게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나서 딸애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흐름속에 들어섰다.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꽃다발들이 푸른 하늘을 높이 떠이고 서계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쪽으로 흐르고 또 흐른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옷깃을 여민다.

길이 빛나라,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이어! 길이 빛나라, 《지원》의 높은 뜻이어!

혁명적인 가사창작에서 서정성과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하자

리시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영화나 음악은 다 예술인것만큼 서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중가요는 또한 전편일률식으로 짓지 말고 여러가지로 지어야 합니다.》

서정성과 독창성, 다양성을 잘 보장하는것은 가사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사는 풍부한 서정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독창성을 띠고 나타날 때라야 선률형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요도 풍부한 서정성과 독창성을 잘 보장할수 있다. 가사에 풍부한 서정성과 독창성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작곡가에게 좋은 곡상을 줄수 없으며 그러한 가사는 곡이 붙여진다 하더라도 사상에술성이 높은 명곡이 될수 없다.

가사의 서정성과 독창성을 옹계 보장하자면 생활세부를 파고들어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노래를 짓는데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짓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노래를 짓기 위해서는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한 가사라야 실감이 있으며 교양적가치도 있다. 서정의 독창성과 다양성은 많은 경우에 구체적인 생활세부와 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생활세부를 다양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지 못한 가사는 흥미가 없고 인상에 남는것도 얼마 없으며 한번 보고나면 다시 보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으며 인차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머리속에 오래 남아있는 가사들은 그 가사에 담긴 구체적인 생활세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기사에서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파고든다는것은 결코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련상시킬수 있게 시적으로 형상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련상시켜주지 않는 가사는 추상성과 허황성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가사에서 생활적인 이야기거리가 암시되어있는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하는것은 서정성과 독창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가사에서 생활세부를 형상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뜨겁게 체험하고 깊이있게 탐구해야 한다.

우리 인민의 들끓는 생활에 대한 절절한 체험과 강렬한 내부적충동, 느낌을 떠나서는 가사의 서정성과 독창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주체적문제이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작가들은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다는 그러한 불타는 정열과 충동에서 붓을 들어야 한다.

혁명적인 가사는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시인의 뜨거운 열정 즉 당정책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뜨거운 감동의 산물이다.

생활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체험과 강렬한 내부적충동이 있어야 대상의 본질에 깊이 침투할수있다.

구체적인 생활체험과 내부적느낌이 없이 론리적 사고에만 의거하여 추상적인 구호나 일반적인 개념을 해설하고 글자를 맞추는것으로 가사창작을 대신한다면 가사는 생경하고 설명적인것으로 되어 시의 경지에 오를수 없다.

가사가 서정이 빈곤하고 류사하게 되는것은 생활에 대한 시인의 깊은 정서적체험과 독창적인 탐구가 부족하기때문이다.

개성을 가진 대 시인에 의하여 체험된 풍부한 서정은 그자체가 벌써 비반복적이고 독창적인것을 낳게 하며 평범하거나 류사한것으로 될수없다.

혁명적인 서정성은 생활이 환기시켜준 구체적인 시적대상과 사상주제에 따라서 무한히 다양하게 발현된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체험세계를 직접 개방하는데서도,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시인의 평가와 열정을 결합시키는데서도 표현된다.

그러므로 생활에 대한 시적체험, 강렬한 사상정신적충동과 이에 기초한 사상감정의 토로, 이것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시가의 서정성은 사람들의 투쟁의욕과 혁명정신을 복돋아주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서정으로서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시인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성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며 의의 있고 보람찬 생활을 체험한 시인의 심장에서 뜨겁게 맥박치는 감정이다.

혁명적인 서정은 시인의 높은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시인의 미학적리상이 높고 시대와 혁명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 작품의 서정성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가사를 쓰는데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선에 튼튼히 서서 쓰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선에 튼튼히 서서 쓴 가사라야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가사를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일관시키면서

도 그 형상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게 탐구이용해야 한다.

형상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야 노래의 양상도 다양하고 성격도 살아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노래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

그러므로 가사의 서정성과 독창성을 보장하려면 형상의 정서적색깔인 양상을 다양하게 살려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서정은 그 내용과 성격에 의하여 우아하고 부드럽고 유순한것, 맑고 명랑한것, 흥겹고 락천적인것, 장중하고 격동적인것, 비장한것 등 다양한 양상과 정서적색채를 띠고 나타난다. 이것은 시적대상의 특성과 그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체험과 사색의 독특성과 구체성에서 흘러나오는것이다.

풍부한 서정성은 우선 뚜렷한 개성화와 생활적구체성에 토대하여 시대정신을 전형화한 심도에 의해 규정된다.

서정성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발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개방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전투적인 행진곡가사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추구하지 못하고 감정을 추상적론리로 대치한다면 진실한 서정이 나래칠수 없다.

전투적인 노래의 가사에서 들뜬 웨침과 추상적인 구호라별로 전투적인 서정을 대치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혁명적서정이라는것은 어디까지나 시인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에서 우러나온 서정이어야 하며 시대의 거세찬 호흡이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세계를 거쳐서 흘러나온 서정이어야 한다.

서정성을 높이자면 현실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있고 다양하게 탐구체험하여 독창적인 시적발견과 생신하고 철학적인 목소리로 생활을 노래해야한다.

가사의 사상감정, 시적구성을 독창적으로 잘 짜는것은 서정성을 높이는데서 아주 필요하다.

가사에서는 짙은 서정이 짙은 구조와 평이한 형식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절가형식의 가사에서 매개 절의 서정은 상대적 독자성을 띠면서도 가사의 기본서정에 통일되어야 한다. 매 절의 서정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색다른것으로 되어서는 결국 가사에서 서정의 일관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가사와 곡이 밀착될수없다.

가사의 자연스러운 정서적흐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절과 절사이에 밀접한 논리적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첫절과 대응하는 다음 절의 행과 행, 시구들의 조응관계에 의하여 실현된다.

가사의 서정성과 독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산문화의 경향을 없애고 시적운율을 살리는것이다.

가사는 규칙적인 음악박자와의 통일을 예상하기 때문에 음악성을 살릴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가사가 시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문학적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음악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의 운율은 가사의 음악성의 표현이며 그것은 자체의 음조로써 시에 담긴 사상을 정서적으로 심

화시켜주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가사에서 운율을 살리는것은 단순히 정서적색채를 돋구거나 음향적효과를 노리는 문제일뿐만아니라 시의 감정과 정서의 운동을 추동하여 시적형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이며 따라서 운율은 가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사의 운율을 보장하는 기본고리는 시적인 문장 조직에도 달려있다.

운율은 시문장전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과 결합될것을 전제로 한 가사의 운율은 기본적으로 정형율을 살려야 한다.

각양한 형태의 물조가 낼수 있는 음조적특성을 옹계 포착하고 구체적서정에 따라 그에 맞는 물조를 창조하여야 한다.

내용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독창적인 물조를 창조하는 문제는 가사의 서정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주 필요하다.

가사에 함축과 여운이 있어야 설명하고 해설하는 경향을 극복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가사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은것을 깊이 생각할수 있게끔 모든 형상수단과 방법들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시화하고 형상화하여야 한다.

가사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것을 단순하게 함축하여 표현할수 있는 비유나 상징, 생략과 비약 등 형상수단들과 수법들을 다양하게 리용함으로써 바로 몇줄 안되는 시형상속에 큰 사상을 담고 사람들에게서 커다란 충격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길수 있게 되여야 한다.

가사는 풍부하고 세련된 비유, 상징... 등의 형상수법들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다면 짧아질수도 없고 산문화의 경향을 막을수도 없으며 따라서 가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것을 생각하게 만들수 없다.

가사창작에서 류사성과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서정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것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그의 사상교양적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술지상주의적인 감상적인 서정이 아니라 오직 혁명적내용과 결합된 전투적서정만이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풍부한 서정성과 독창성은 창작가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창조적사색, 생활에 대한 서정적파악과 체험의 깊이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가사의 서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사창작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시켜야 한다.

몇몇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만으로써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가사문학을 다양하게, 급속하게 개화발전시킬수 없다.

근로대중이 가사창작에 널리 참가하고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여야 인민들의 보람차고 혁명적인 생활을 노래한 다양한 양상의 특색있는 좋은 가사가 많이 나올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가사창작을 군중적운동으로 널리 진행함으로써 우리 가사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피워야 할것이다.

전사의 딸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오르며-

김영근

이 딸을 뵈니까, 그립던 아버지
비 뿌리는 고유수의 들길을 떠돌며
돌에 채여 홀로 울던 이 딸이
상봉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작봉 화강석층계를 오릅니다

이 딸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채
이국땅에 제홀로 남겨두고
너무도 일찌기 떠나간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며 목메여 흐느끼며
이 딸이 오릅니다, 사랑의 층계를

한층계 디디며 눈물에 젖고
한층계 오르며 감격에 목메여
해빛 밝은 언덕을 우리러보니
아 웃으며 맞아주는
아버지 모습-

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전사로 천년을 살리라던
그날의 불타던 그 열망
수령님 사랑속에 다시 살아
영생의 언덕우에 서있는 아버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버이수령님
결을 떠난 전사를 잊지 못하시여
피어린 항일의 옛전장을 더듬어가실제
향기로운 꽃바람이 두볼을 쓸어주는
배움의 길우에서 이 딸은 자라

세월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
전사의 끊어진 피줄을 두시고
그렇게도 아프신 추억을 더듬어가실제

사랑의 봄빛이 흘러드는 행복한 창가에서
친부모의 그리움을 모르고 이 딸은 자라...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오느냐고
이 딸을 찾아주신 그 기쁨에
아버지를 만나신듯
뜨겁게 맞아주시던 그 손길이
상봉의 이 층계길을 피여주시고...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를 몰랐고
세상을 떠나며 딸자식을 모르고 간
전사의 끊어졌던 붉은 피줄을
천대 만대로 이어주시는 위대한 그 사랑이
영생의 이 언덕우에 해빛으로 내리어

아 비바람 사납던 이역땅에서
세상도 보기전에
아버지와 헤어졌던 이 딸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보며
그립던 아버지를 눈물속에 뵈니다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살아생전에 전사로 끝없이 아껴주시고
결을 떠난후에도
아버지의 삶을 그토록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한품에서
전사의 딸로 다시 태어난 이 몸-

이 딸이 오릅니다, 상봉의 층계를
수령님 계시여
만년이 가도 식지 않을
아버지의 뜨거운 충성의 붉은 피를
이 딸의 가슴속에 이어안으며!

불길

정동일

한여름이었다.

머리우에서는 짙은 초록빛 잎사귀들이 설핏한 그늘을 던져주고있었다.

병기창에서 풀무질에 이름난 유격대원 손태섭은 해묵은 락엽 썩는 시큼한 냄새를 마시며 땅우에 엎드려있었다.

《태섭동무, 배를 약간 들라구.》

저쪽 웅덩이에 엎드린 박철수가 손바닥을 퍼서 자기 배를 떠받드는 시늉을 해보였다.

《젠-장...》

손태섭은 중얼거리며 팔굽과 무릎에 힘을 주고 엉겨주춤 엎드렸다. 그는 앞에다 파엿어놓은 폐장너머로 가독나무가 들쭉들쭉 서있는 그늘진 웅덩이쪽을 커다란 눈으로 지켜보고있었다. 이제 잠시후면 그 웅덩이에서 작탄이 터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지금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에서는 소수인원으로 은밀히 2호탄의 제작중에 있었다.

여기 썬터바위병기창에서도 그동안 새로 만들어진 2호탄의 폭발시험을 하고있는것이다.

(소리는 얼마나 요란하겠는지. 파편은 어디까지 날아오겠는지?)

손태섭은 다시 앞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지켜보아야 시간만 흘러가고 소식이 없다. 기다리기에 지친 손태섭은 심드렁해졌다.

(심지가 고장인가? ... 하긴 불발두 있을법한 일이지.)하고 생각한 손태섭은 움쭉 일어섰다.

순간 《꽝!》하는 폭음과 함께 태섭은 뒤로 벌렁 넘어졌다. 뜨거운 열풍이 획- 몰아치며 그의 머리에서 무명수건을 벗겨갔다. 날이 선 파편조각들이 웅- 날아와 구름나무허리에 탁, 탁 박혔다. 그 다음 몽몽히 떠도는 화약연기에 코구멍이 알싸해났다. 조용해졌다.

(이크, 이걸 대단한데?!...)

손태섭은 히죽 웃으며 궁둥이를 툭툭 털고 일어섰다. 사방을 휘돌러본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대강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헐, 여직껏 이런 창피는 당해본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이때 작탄이 터진 웅덩이쪽에서 《만세!-》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작탄시험구경을 나왔던 유격대원들, 자위대원들이 박철수를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이 나무 저나무로 달려가 파편을 뿔아들고 보았다. 그리

고 파편개수를 세어본다, 반경을 재어본다 법석 끊고있었다.

그제야 손태섭은 소나무옹이에 걸린 머리수건을 찾아 동여매고 작탄이 터진 웅덩이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갔다.

《태섭동무, 성공이요! 이젠 됐소! 됐단말이요! ...》

어느새 마주 달려나와 손태섭의 두팔을 부여잡은 박철수가 열기띤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두를 웅성거리며 헤어져갔다.

병기창으로 돌아온 손태섭은 널려있는 집게며 망치들을 주섬주섬 거두었다. 그리고 물통 있는 구석으로 걸어가서 팔소매를 걷었다.

《아니, 벌써 그만둘 차인가?》

《오늘이야 철수동무가 떠나는 날이 아이오다? 게다가 폭발시험두 성공했는데...》하고 손태섭이 어물어물 대답했다.

《오늘처럼 신바람이 났을 때에 일을 더 해야지, 아직 해가 서말이나 있는데 자, 이리 오라구. 옛날에두 버림질은 풀무질에 달렸다고들 했었는데 태섭동무 없이 최선을 어떻게 달구겠소?》

박철수는 이내 서글서글해지면서 태섭이가 거두었던 망치며 집게들을 다시 모루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화독안에다 숯을 한삽 떠놓고 풀무자루를 부지런히 밀고 당기고 했다.

여느때 같았으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준절히 타일렀을수도 있을 박철수였다. 그러나 떠나는 날이어서 말없이 제손으로 일손을 놀리고있는 그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본 손태섭은 천천히 궤물 무앞으로 다가갔다.

《인주오다...》

손태섭은 풀무자루를 잡았다. 유격대에 입대하여 한시도 놓은적이 없는 풀무자루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풀무자루가 《주인》의 손에 잡히우자 풀무통안에서는 곧 북장단을 치듯 툭툭툭툭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슬쩍슬쩍 팔을 놀리는데 벌써 새파란 불길이 뱀의 혀바닥처럼 날름거렸다. 그러자 금시 화독안의 숯불이 빨강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야하, 보배손은 보배손이다. 벌써 달았군!》

박철수는 시뻘건 철군을 서둘러 집게로 끄집어내어 두드리기 시작했다. 작탄허리에다 두를 떠가 되려면 납작하게 눌러야 될텐데 그는 채 달지 않은 쇠불이를 힘들게 두드려댔다.

떠나는 시간까지 작탄 한개라도 더 만들려는 박철수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도 태섭은 자기 생각에 잠겨 묵묵히 풀무질만 했다.

(...하긴 내라두 지금 당장 《야장간》을 떠나라면 저렇게 신바람이 날수 있지...)

날이 어두워졌다.

병기창문밖을 나선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태섭동무,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거요. 이젠 태섭동무가 주인이 돼서 맡겨지는 일을 해내리라구 믿구 떠나겠소.》

박철수의 말이였다.

화룡근거리에서 전투성원으로 있던 박철수는 입대전에 아버지의 야장일을 익혀둔데다 광산로동의 경험이 있었던것으로 병기창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원래 작탄 만드는 방법은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창안하시여 보급하신것이였는데 이번 2호작탄제조방법도 역시 그이께서 새로 창안하신것이였다.

그런데 오늘 2호작탄시험이 성과적으로 끝나자 그는 대항구를 떠나게 되었다.

묵묵히 박철수의 뒤를 따르던 손태섭이 불쑥 물었다.

《철수동무는 이제 올라가면 분대장쯤은 되겠지 오다? ... 좌우간 총이야 잡겠지요?》

《허허... 글썄 나두 총을 쏘라면 남만 못지않지...》 하고 말하는 박철수의 얼굴에는 은근한 기쁨이 어려있었다.

《좌우간 올라가긴 가두 이 손태섭이를 잊지 마소. 나두 입대하기전에 쌍대배기렵총 같은것을 서너번 쏘본 일이 있소다.》

철수는 미소어린 얼굴로 마주보며 내가 태섭동무를 왜 잊겠느냐고 대답했다.

《철수동무, 왜놈을 한놈이라두 더 쏘아놓히우! 내 뭇까지말이오다.》

《넌려 말라구!》

이날밤 손태섭은 썬터바위를 지나 병기창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박철수의 릉름한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쫓으며 그 자리에 서있었다.

손태섭은 그길로 병기창에 돌아왔다. 그는 그처럼 하니 모루앞에 서있었다. 기동처럼 의지하고 일하던 박철수가 떠나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다.

(너하구 나하구만 남았구나, 여기까지 쫓아온 이놈의 풀무야...)

...손태섭은 아홉살때부터 경원읍 지주 백진팔네 야장간에서 풀무질을 했다.

가을마다 아버지 혼자서 지고오는 한가마니의 쭉그렁강냉이를 가지고는 앓는 어머니와 네 동생을 먹여 살릴수가 없었다. 하여 어린 태섭이도 천대와 구박의 멍에밑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태섭은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온 몸뚱이가 등

잔심지처럼 새까맣게 된채 자기 키만한 풀무통앞에서 떠날수 없었다. 텅석부리아바이의 한숨쉬인 풀무노래를 들으며, 여윈 팔로 풀무대를 들어밀고 잡아당기며 힘겨운 로동에 지치였다. 태섭의 어린시절에 차례진 생활의 고통은 참기 어려웠다.

태섭이가 스무살이 되던 작년 초봄이였다. 항일 유격대와 반일혁명력량을 요람기에 《압살》한다고 악에 받친 왜놈들은 두만강을 넘어가는 유격대원호몰자 단속에 눈이 뒤집혀 날뛰였다. 그놈들은 태섭이네 마을에도 새벽같이 달려들었다. 그전날밤 소금가마니를 지고 두만강을 건너갔다온 아버지는 백가놈의 밀고에 몸을 미처 피하지 못한채 놈들에게 잡히우고말았다.

이날 태섭은 느티나무아래에서 무참하게 숨진 아버지의 시체를 그려안고 땅을 치며 부르짖었다.

《총이 없어서, 총이 없어서 네놈들을 살려보냈구나, 쪽발이놈들아! ...》

그날밤 태섭은 두만강을 건넜다. 그리고 유격대를 찾아 걷고 또 헤매였다. 사흘만에야 태섭은 대항구유격근거지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그는 그처럼 마음속에 그려오던 김일성장군님께서 평도하시는 항일유격대를 만났다.

길쭉한 얼굴에 진한 눈썹때문인지 엄해보이는 중대장앞에 손태섭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너무도 단순한 자기의 《경력》을 선뜻 말하기가 무엇해서였다. 두번이나 재촉을 받고나서야 태섭은 무릎우에 올려놓은 커다란 두손을 내려다보다가 야장간에서 풀무질을 한것이 전부이라고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중대장은 벌떡 일어나서 태섭의 손을 와락 그러잡으며 웨쳤다.

《우리 중대에 보배덩어리가 굴러들어왔소! 밀영에 인재가 나타났단말이요. 사령부 군수관동무가 얼마나 반가워하겠소?! 응? ...》

손태섭은 그저 어안이 병병해진채 중대장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리하여 손태섭에게는 총이 아니라 궤풀무가 다시 차례졌던것이다...

풀무자루가 당겨진채 덩실하게 놓여있는 풀무통을 내려다보는 순간 태섭은 모루우에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

(사실 총을 메러 가야 할 사람은 아버지 원쑤를 갇자고 홀어머니를 남겨둔채 떠났온 내가 아닌가? ...)

그 이튿날 손태섭은 여전히 화구에 불을 지피고 풀무질을 시작했다. 다만 집게로 단쇠를 끄집어내다가 그것을 땅우에 떨어뜨렸을뿐이였다.

이때 키가 작고 어깨가 딱 바라진 양도삼이가 들어섰다. 올해 열아홉살인 그는 박철수가 떠나기 하루전에 병기창에 와닿았다. 그제야 태섭은 박철수 대신으로 보내온 신입대원을 데리고 야장간에 불박여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글퍼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양도삼은 손태섭이가 화독에 불을 지피고 슬쩍슬쩍 풀무대를 눌러 잠깐동안에 쇠를 달구어내는 습씨를 놀라웁게 지켜보군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풀무질을 시작했기에 그렇게 귀신같이 하느냐고 물었다.

《그런전 알아서 뭘하오? 큰 자랑거리도 못되는건데.》

《나두 이젠 풀무질을 해야 하겠으니까 그러지요.》

《…코흘릴 때부터 풀무질을 했소. 그게 다요.》

두사람은 더 말이 없다.

풀떡풀떡, 풀떡풀떡 …

풀무대가 개가죽구멍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화독안의 숯불이 활짝활짝 피어났다.

(철수동무는 아마 지금쯤 번쩍번쩍하는 총을 꼬나들구 왜놈들을 땅, 땅, 쏘아갈걸테지!… 그때 난 중대장동무앞에서 너무 고지식하게 대답했어, 에 - 참…)

《가만, 가만-태섭동무, 이거 지내 단것 같습니대.》

양도삼이가 화독앞을 공연히 왔다갔다했다.

《여기 와서 풀무질이나 하오.》

태섭은 양도삼에게 풀무대를 넘겨주고 모루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벌써 단쇠를 집어준 집계를 모루우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철근끄트머리를 맴시있게 당겨쳤다. 새빨간 불딱지가 탁탁 튀어났다. 단쇠와 모루를 번갈아 넘겨칠 때마다 쟁강쟁강… 하는 야장마치소리가 가락맞게 울려 퍼졌다.

《그거 나한테두 하나하나 배워주오다.》

풀무질을 하며 태섭의 버림질습씨를 쳐다보던 양도삼이 하는 말이다.

그래도 태섭은 대답이 없었다.

《태섭동문 늘 보아야 말이 없는게 탈 같아요.》

《동무두 이제 나만큼 풀무질만 해보라구. 그런 <탈>에 걸리지 않나… 동무두 총을 잡구 왜놈을 치자구 입대했겠지?》

《그야 뭐 혁명이 필요하다면 풀무질만이라두 해야지요.》

《? …》 손태섭은 이게 양동무의 진심인가 가늠해보듯 눈을 습벅거렸다.

《그래두 철수동무는 그렇지 않던데…》

《철수동무야 어떻게 나같은 풀무군한테 대하겠소? … 그 사람은 이런데서 쇠불이나 달굴 인물이 아이랑이.》

그래도 양도삼이와 함께 일하며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느라니 박철수가 훌쩍 떠나서 섭섭하고 울적했던 기운이 가시여지는상싶었다.

더우기 무장획득을 위해 근거지를 떠나가는 소조들에서 달려온 유격대원들이 작탄을 가지러 와서 풀무앞에 지켜앉으며 사령관동지의 신출귀몰한 전

략전술로 일제놈들이 녹아나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유쾌하기가 그지 없었으나 한편 총을 쥐고 싸우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만 하였다.

말없이 일손만 놀리는것이 타고난 성미로 굳어진 태섭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안타깝고 조급해지는 마음은 어쩔수 없었다. 제일 큰 일은 화약과 쇠불이가 엄청나게 모자라는것이였다. 한달전까지만 해도 이런 때에는 박철수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태섭이 자신이 방도를 찾아야 했다. 그는 풀무질을 하면서도 양도삼에게 잔소리를 했다. 그를 대신하여 자주 망치질도 해야 했다.

마지막 철사매듭을 끊기가 바쁘게 작탄을 배낭에다 넣고 떠나가는 동무들의 짹짹막막한 말들을 들으면서 태섭은 지금 적의 무장을 빼앗는 무장소조가 사방에서 활동하고 새로운 대원들이 입대하고 유격대가 가는곳마다 왜놈들을 몰살시키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사령부에서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것도 알아냈다.

풀무를 불고, 두드리고, 담가내고… 일손을 멈출 사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작탄안에 넣을 쇠불이를 두드려 깨고있던 손태섭이가 갑자기 허리를 펴고 양도삼을 돌아보았다.

《양동무, 쇠가 왜 이렇게 딱쇠요?》

《딱쇠라니요? …》

《담금질물통에 손가락을 넣어보랑이.》

《? …》

《미지근하쟁이오?》

《… … …》

말없이 서있는 양도삼을 바라보는 손태섭의 눈앞에는 철수동무와 함께 1호작탄을 만들 때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작탄안에 넣을 파편으로는 달구지바퀴레를 넣게 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강쇠가 아니여서 다시 한번 달구어 소금물에 세게 담가낸 다음에 두드려야 날카로운 강철파편조각으로 되는것이다.

눈코뜰새 없이 일이 딸리는데도 근거지에서는 유격대원들과 자위대원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와 기다리고있었다.

손태섭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풀무를 불고 또 불었다. 그리고 미처 물통에 물을 갈아낼 사이도 없이 땀을 철철 흘리며 단쇠를 담그어냈다. 한쪽에서는 박철수가 손태섭이 넘겨준 쇠불이를 두드려 깨고있었다. 그런데 달구지바퀴레는 휘여들기만하고 잘 깨여지지 않았다.

별안간 별떡 일어선 박철수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태섭동무, 오늘아침에 새 물을 갈아부었소?》

《?…》

《소금은 넣었소?》

《… … …》

박철수의 얼굴은 마치 자기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게 어떻게 보내온 쇠불인줄 아오?… 어떤 쇠불이길래 헛되이 날려보낸단말이요? 그렇게 되는 대로 달구어 건어넣은 떡쇠가 왜놈을 잡을것 같소?…》

머리를 떨구고 서있던 손태섭은 말없이 물통을 들었다. 그러나 박철수가 물통을 빼앗아들고 샘물터로 달려나갔다…

지금 그날의 박철수가 앞에 서있는것만 같았다.

벌써 눈치를 챈 양도삼이 얼른 물통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손태섭은 말없이 그의 손에서 물통을 빼앗아들고 샘터로 갔다.

담금질물통에서 미지근한 물을 퍼서 내버린 태섭은 차고 맑은 물을 거기에 부었다. 소금을 넣는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도삼이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이 순간 손태섭에게는 박철수와 함께 2 호작탄시험을 하던 날 심드렁해진 자기가 떠나가는 그에게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양도삼에게 하던 하소연도 뇌여보았다… 바로 그때문에 양도삼이가 자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수 있는것이 아닌가?…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면 수림속은 벌써 선선했다. 동만땅의 가을은 그리도 일렀다.

석양녘이었다. 갑자기 중대에서 전령병이 달려왔다. 그는 지금 중대장동무가 손태섭동무를 급히 부른다는 전달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갑자기 무슨 일일가? 혹시 나두 철수동무처럼?…)

손태섭은 희망과 기대가 어린 추측을 앞세워보면서 중대부로 달려갔다.

중대장은 손태섭의 얼굴을 말없이 주시해보다가 심중한 어조로 말을 뱉다.

《태섭동무가 두만강을 건너갔다 와야 할 일이 생겼소…》

《?! …》

《사흘안으로 2 호작탄 백개를 만들어야겠소. 바로 두달전에 시험한 그 작탄말이요. 오늘 밤중으로 화약과 쇠불이를 무조건 가져와야 임무를 수행할수 있소.》

중대장은 방금 군수부통신원이 가져온 연락쪽지를 꺼내어 깨알같은 글씨를 재빨리 더듬어보며 여기서 곧장 뒤산을 질러 넘어서 술골까지 가되 두만강을 건너서 도중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쪽지를 불태워버렸다.

《날이 밝기전까지 돌아와야겠소. 책임이 무겁소.》

《… … …》

손태섭은 중대장이 말을 마친 다음에도 멍하니 그의 엄한 얼굴만 건너다보고있었다. 어리둥절해졌다.

중대부 문밖을 나선 태섭은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짚었다.

그가 병기창에 들어서자 양도삼이가 두눈을 깜박거리며 물었다.

《어떻게 되였습니까? 태섭동무두 총을 메려 올라가지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내야 그저 늘 풀무지…》

손태섭은 양도삼에게 자기가 갔다올동안 작탄목을 철사를 잘라놓으라고 이른 다음 곧 길을 떠났다.

해는 졌으나 수림속은 아직 맑다. 진한 수풀냄새가 폐부속에 스며든다. 이제는 나무의 정수리들도 빛을 잃었다. 한시간전까지만 해도 분홍색노을이 비겼던 하늘은 벌써 검푸렇다. 산새들도 잠들기 시작했는지 태섭의 발길에 가랑잎 부서지는 소리만 와삭거렸다.

어두워졌다. 밤이슬에 바지가랭이가 축축히 젖어 오기 시작했다. 시원했다. 임무를 받고 이렇게 수림속을 걸어가는 맛에 답답하던 가슴이 트이는상싶었다.

앞에 걸어가고있는 유격대원이 맨 보총의 격발기가 가끔 별빛에 번쩍하고 태섭의 눈길을 찔렀다. 그때마다 그는 기껏해야 깨진 쇠불이를 지고 이길로 다시 돌아와 풀무앞에 또 마주앉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어쩔수 없었다.

오솔길은 불안스레 우물거불 꺾여나가다가 킁킁한 골짜기를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진 산비탈로 손태섭을 이끌어갔다.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술골마을까지 온것이다.

또다시 고요가 깃든 술골마을앞을 지나자 태섭은 벌써 어둠에 익숙된 밤눈을 밝히며 앞을 쏘아보았다. 검푸른 밤하늘아래 첩탐처럼 빠죽한 물황철나무우듬지가 나타났다. 바로 태섭이가 찾고있는 구새먹은 고목이다. 그리로 급히 달려갔다.

고된 야장일을 마치고 뛰어들면 지치고 달았던 몸을 식혀주던 잊지 못할 고향의 강이었다. 유격대원호물자를 짊어진 아버지가 물결을 헤가르며 금시 마주오는듯싶었다.

태섭은 물황철나무밑으로 곧추 떨어져 강물에 들어섰다. 물결소리와 함께 차디찬 밤물결의 감각이 전류처럼 가슴에 와닿는다. 별빛아래 번쩍이는 물결속에 낮은 고향땅의 산봉우리들이 어렴풋이 비껴있었다.

(총을 메고 이 강을 건넌다면… 아버지의 원썬을

값고 마을사람들앞에 나타났으면 얼마나 의젓하랴!...)

강을 건는 손태섭은 밤이슬에 젖은 나무가지들을 휘어잡으며 타박골 샘터로 올라가는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이때 갑자기 수풀속에서 머리에 흰 수건을 동이고 망태기를 둘러멘 웬 사나이가 불쑥 나타나더니 마주 걸어내려왔다. 태섭은 멈춰섰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러나 이내 중대장의 말을 외워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만- 말씀 좀 묻지요.》

《예, 무슨 말이요?》

《풍인금광 찾아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가 이 고생이오다. 좀 가리켜줄수 없겠소?》

《나두 거길 찾다가 이 지경이 되었수다. 어디 같이 찾아봅시다.》

사나이의 대답은 떠날 때 중대장이 하던 말과 꼭 맞아떨어졌다.

그제야 손태섭은 모두였던 숨을 내쉬며 그 사나이의 뒤를 쫓아올라갔다.

그들은 참나무와 무성한 다래넝쿨이 서로 엉키어 겹겹이 우거진 컴컴한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태섭은 사나이를 따라 허리를 구부리고 곱팡내 나는 썩은 락엽에 발목까지 빠지면서 한참 기여올라갔다. 그러자 앞에 시커먼 동굴아가리가 입을 썉 벌리고 나타났다.

손태섭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동굴속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사나이의 발자국소리를 따라 헤엄치듯 두팔을 벌려 더듬으면서 이마와 옆구리를 짓쫓으며 들어갔다.

거꾸로 엎어놓은 나무상자우에 올려놓은 석유등잔불이 삐죽삐죽한 돌부리를 비쳐주고있었다.

사나이는 망태를 벗어놓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줍소.》

손태섭은 엽초 한대를 말아물고 등잔불에 불을 붙이였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얼마 걸지 않았는데도 이마전에 흥건히 내뿜은 땀방울을 씻어내느라고 팔소매를 연방 얼굴에 가져갔다.

이때 쿵, 쿵, 동굴안을 웅글게 울리는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가까와져왔다. 태섭은 담배불을 비벼끄며 일어났다.

채양모서리가 부러진 모자를 쓰고 줄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무거운 마대를 진 허리를 구부정하고 땀내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어둑시그레한 구석에 짐을 내려놓았다.

태섭을 안내한 사나이가 그에게 다가가 근거리에서 쇠불이를 가지러 사람이 왔다고 이르고 곧 사라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다.

《먼길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뭐 별루...》

손태섭이 우물우물 대답하는데 찬찬히 마주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부르짖었다.

《태섭이!!》

《?? ...》

《나야, 나! 철수야!》

《어? ... 아니 이게 정말 철수동무가?!...》

손태섭은 박철수가 자기의 어깨를 그러잡고 흔드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지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두눈을 껌벅거리며 철수의 아래우를 두세번 훑어보던 태섭이 물었다.

《아니, 총은 어찌구 여기 와 있소다?》

박철수는 말없이 손태섭의 손목을 이끌어 자기옆에 앉히였다.

《그래 <야장간>일 이 잘되겠지?》

《뭘, 그저 이력저력...》

《양도삼동무도 잘 있소?》

《예...》

《태섭동무가 다 잘 가르쳐줄테지.》

《내가 무슨... 그건 그렇구 나야 글썄 풀무신세를 면하지 못할놈이지만 아 철수동무야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구있소다?》

박철수는 광산로동자들처럼 고무비옷쌈지를 꺼내놓고 재빨리 한대 말아붙였다.

《태섭동무, 그때 나는 올라가자 먼저 군수부에 들려 우리 병기창형편을 보고했소. 군수부에서는 우리가 만든 2 호작탄이 사령부에서도 평가가 있었다고 칭찬이 대단합데.》

《사령부에까지요?!》

《파편이 날카로와 왜놈들을 더 많이 잡는다는거요. 위력이 세다는거지. 동무들은 2 호작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전투도 문제없다구 하면서 태섭동무네 병기창에 쇠불이를 더 많이 보내주라구 부탁까지 하더군.》

손태섭은 어색한 표정으로 공연히 뒤더수기를 꺾적거렸다.

《그날 군수관동무랑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런데 작탄사정이 정말 긴장하더군. 무장소조가 새루 편성될 때마다 작탄 작탄 하는데 어디 화약과 쇠불이가 그렇게 있소? 그야 태섭동무가 더 잘 알지 않소?...》

《... ...》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2 호작탄시험만 훌 해치고 병기창을 떠난게 마음에 걸리더란말이요...》

그날밤 나는 화약과 쇠불이를 구하러 떠나는 공작조에 자진해나설것을 결심했소.》

손태섭이 별안간 부시럭거리자 박철수가 얼른 자기 쌈지를 꺼내놓았다.

《글썄 우리 중대장동무는 내 똬까지 싸워줄테니 자기 있던 중대를 특별히 생각해야 한다면서 등을 떠밀어보내질 않겠소, 하하하...》

그래 결국 내가 잘 아는 이 왕재산근방으로 나오게 됐소. 광산로동의 경험이 있는 내가 이런 때 한몫 해야지!»

《… … …》

박철수는 즐겁게 웃고있다. 총을 쏘라면 남만 못지않다고 기뻐하면서 떠나가던 그 모습이다. 그러나 손태섭은 그 얼굴을 마주쳐다보기가 거북했다.

태섭은 제일 어려운 일을 자진해 맡아나서는 박철수의 웅심깊은 생각을 헤아려보았다. 사실 그가 넘겨준 병기창을 주인답게 지켰다구 말할수 있는가? …

손태섭은 무거운 임무를 받아안고도 마음속에서 늘 지우지 못하던, 심드렁해져있던 자기의 마음때문에 박철수가 여기로 와야만 했다고 생각되었다.

동굴입구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 짐들을 내려놓는 소리가 울려왔다.

박철수는 일어섰다. 그는 등잔불빛이 그대로 담긴 듯한 눈동자로 손태섭을 대견스럽게 지켜보며 말했다.

《태섭동무,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근거지에 기여드는 왜놈들을 무리로 족치실데 대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계시오.》

《사령관동지께서요?!》

《그렇소! 사령관동지께서는 태섭동무네 조가 만들어내는 2호작탄이 아주 위력있다 하시면서 그런 작탄이 백개만 있으면 이번 작전에 유용하게 쓰겠다시면서 그 영예로운 과업을 바로 태섭동무네 조에 주시었다오!

태섭동무는 총이 부럽다구 늘 말했지. 나는 총에 못지않게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태섭동무가 부럽소! 사령관동지께 것처럼 기쁨을 드리는 동무가 부럽단말이요!》

손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기가 지금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경향이 못되었다. 다만 그는 북받치는 감정속에서 오직 사흘동안에 2호탄을 기어이 만들고야말리라는 그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윽고 손태섭은 박철수가 지고온 쇠불이를 지고 일어났다. 목직한 힘이 어깨를 눌렀다.

《철수동무, 내 꼭 해내지오다!》

철수는 태섭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고맙소, 태섭동무!…》

그들은 급히 동굴입구로 걸어나갔다.

떠나자는 박철수의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잠진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한사람씩 날래게 동굴속을 빠져나갔다. 모두 여덟사람이었다.

두만강기슭에 이르자 박철수는 손태섭의 굵은 두손목을 다시한번 꼭 그러잡았다,

《언제는 태섭동무가 나를 바래줬지만 오늘은 내가 태섭동무를 바래주게 됐소!》

《… … …》

손태섭은 갈린듯한 그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태섭동무, 쇠불이는 넘려 말구 그저 위력있는 작탄만 많이 만들어주우! 내 몫까지말이요. 부탁이요!》

《걱정 마우다. 철수동무!》

두사람의 눈길은 공중에서 부딪쳤다. 다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그 눈길에서 오갔다.

손태섭은 강을 건넜다.

버들숲을 헤치고 몇걸음 걸어가던 태섭은 돌아서서 건너편 강기슭을 지켜보며 움직일줄 모르고 서있었다.

(철수동무는 지금 내가 두달전에 그를 바래우던 것처럼 부러운 눈길로가 아니라 믿음에 찬 눈길로 이 손태섭이를 지켜보고있을것이다.)

태섭은 돌아서서 힘차게 발걸음을 떼었다. 커다란 힘이 등을 떠밀어주는듯싶었다.

손태섭은 앞에서 걸어가고있었다. 맨뒤에는 그와 함께 갔던 유격대원이 후위를 감시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대오는 숲골 뒤산을 넘어서자 밋밋한 산릉선을 타고나갔다.

《가만… 이제 병기창엘 가면 손태섭이란 사람을 만날수 있소?…》

흠칫 멈추며 돌아보았다. 눈이 우뚝하고 광대뼈가 쭉 나온, 오십나이가 넘었을 아버이의 목소리였다.

아버이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던 태섭은 모르는 체하고 되물었다.

《그 사람은 어째 그러오다?》

《아니 그저… 우리 공작원동무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우리 집에 며칠 묵은적이 있었소. 그때 늘 손태섭이란 사람 얘기를 했길래 그러오.》

《다리에 부상을? … 어찌다 다쳤소다?》

태섭은 그것부터 물게 되었다.

《보름전에 공작원동무랑 같이 바루 내가 지구가는 이 남포화약을 폐갱으로 빼낼 때였소. 내가 각성없이 뱉아굴러내린 버럭덩이때문에 순찰나왔던 경찰 두놈이 달려왔수다. 놈들은 우리를 생포하겠다고 점점 다가들었소… 공작원동무가 날쌔게 한놈은 해제졌는데 내가 그만 동작이 굼퍼서 다른 놈이 총박죽으로 공작원동무의 무르팍을 먼저 쳤수다. 하긴 내가 그 찰나에 광석덩어리루 그놈의 뒤대가리를 죄겨 즉살시켰지만…》

《거 잘했소다! 그래 다리는 일없었소다?》

《그야 인차 나왔지요. 애초부터 진드기 누워서 침두 맞구 찔릴이랑 했으면 더 빨리 나올수두 있었수다. 그런데 잠시두 누워있질 못합디다…》

《그건 어째서요?》

《…작탄을 만들 때 화약이나 쇠불이가 없으면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거요. 자기가 일하던 병기창에 풀무질을

귀신같이 해서 눈감짝할 사이에 쇠불이를 달구어대는 손태섭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화약과 쇠불이를 안타깝게 기다릴 생각을 하면 잠시두 누워있지 못하겠다는거요. 글썄 자기는 목숨을 내걸구 화약서전 쇠불이서전 구해서 풀무질 하는 사람들 뒤바라지를 하면서두 그저 손태섭이란 사람밖에 모른단말이우다.》

깊은 생각에 잠겨 걸어가던 손태섭이 갑자기 진대나무에 걸려 비칠거렸다.

(아바이, 내... 내 다 알구있수다!...)

《사실 나두 야장일을 좀 했는데 공작원동무가 내 숨씨를 보구 그건 아니라는게요. 내 참... 그래 사실 그 손태섭이란 사람이 어디 얼마나 희한하게 풀무질을 하나 내 눈으로 보면 알지비...》

(헹, 이 아바이가... 풀무질숨씨만은 이 손태섭이 한테 못당할거우다.)

《아바이, 앞으로는 그 사람, 그 사람 하지 말구 항일유격대원 아무개동무라구 하오다.》하고 혼시조로 말한 손태섭은 별을 쳐다보며 히죽 웃었다.

한동안 말없이 걸어가던 태섭은 불현듯 걸음을 멈추었다. 그바람에 뒤에 사람들도 다 우뚝우뚝 멈춰섰다.

《자, 모두들 여기서 집들을 한번 다시 살펴봅소. 그리구 신발끈이랑 든든히 죄여맵소. 이제부터 길이 험하우!》

손태섭은 자기도 허리춤을 추어서 든든히 졸라매었다. 그리고 아바이가 졌던 짐을 말없이 들어서 자기 짐우에 올려놓고 동여매었다.

《아니? 이거 어째 이러오?...》

《글썄 이걸 놓소다.》

아바이의 손을 뿌리친 손태섭은 벌써 짐을 지고 움쭉 일어섰다.

《책임자》의 《명령》에 모두들 정말 신발끈을 조인다, 짐바를 고친다 하던 사람들은 눈이 둥그래져서 손태섭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태섭은 벌써 발걸음을 옮겨짚으면서 짹짹하게 말했다.

《자, 바투 따릅소!》

원래 다리가 긴 손태섭인지라 보통걸음으로는 따라가는 재간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섭의 심정을 알아맞추었는지 거의 반달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여기저기서 숨소리들이 높아갔고 땀방울이 내뿜은 얼굴이 별빛에 번들거렸다.

밤이슬에 젖은 바지가랭이가 휘감긴 태섭의 건장한 두다리는 가시덩굴을 헤치고 새초숲을 걸어 차며 가파로운 산벼랑으로 쉼쉼 치달아올랐다.

손태섭의 귀전에는 또다시 박철수의 부탁이 들려온다.

《쇠불이는 녀려 말구 그저 위력있는 작탄만 많이 만들어주우, 내 뭇까지말이요!》

총을 잡았더라면 백발백중 명사수였을 철수동무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화약과 쇠불이를 넘겨주면

서 한 부탁이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철수동무가 병기창을 떠나던 날 그에게 하던 자기의 부탁에는 비할바 없이 가슴을 치며 울려오고있다.

(철수동무, 병기창은 걱정 마오다. 이 손태섭이를 꼭 믿소다!)

태섭은 자기가 지금 단순히 박철수가 넘겨준 화약과 쇠불이를 지고간다고만 생각지 않았다. 마치 박철수가 자기의 어깨우에 손을 얹고 함께 걸어가면서 혁명의 주인이 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있는듯싶었다.

손태섭은 자기가 작탄 만들 재료를 짚어지고 병기창으로만 간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바로 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총을 메고 조선인민혁명군 무장대오의 앞장에 서서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듯싶었다.

태섭이네가 샘터바위까지 다달았을 때 병기창쪽에서 두사람이 마주오고있었다.

그들은 양도삼이와 중대장이었다.

《태섭동무, 수고했소!》

그들은 달려와 손태섭이네 짐을 받아내리우느라고 한동안 바빠 돌아갔다.

《자, 오라지 않아 동이 트겠는데 빨리 눈을 붙이고 래일 일찍부터 서둘러야겠소.》

《철사두 다 갈라놓았습니다.》

중대장과 양도삼이 겨끔내기로 말했다.

《수고했소, 양동무!》하고 대답한 손태섭은 바빠 발걸음을 옮겨짚었다.

병기창 문앞에 다달은 태섭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벌써 화구에다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아니? ... 태섭동무?!...》

중대장은 의아한 눈길로 태섭을 바라보았다.

《...중대장동무! 작탄 한개라두 더 만들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겠습니다. 제 걱정은 말구 함께 온 동무들을 꼭 쉬게 해주십시오...》

손태섭은 말을 시작하던 때처럼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다시 풀무질을 시작했다.

중대장을 따라 밀영쪽으로 멀어져가는 동무들의 모습을 일별한 태섭은 아직도 자기를 놀란 눈길로 지켜보며 서있는 양도삼에게 말했다.

《양동무, 우선 물을 갈아야겠소. 물이 차고 맑아야 강쇠를 당구어낸당이!...》

《예!》하고 대답한 양도삼은 물통을 들고 냉큼 일어났다.

《가만-》

손태섭은 문앞까지 다가간 양도삼을 멈춰세워놓고 잠시 눈을 슴벅이더니

《내 풀무질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희한해할것 같소?...》

《예?... 그게 어떤 풀무질이라구요?...》

양도삼은 이렇게 대답해놓고도 어안이 빙빙해진 채 작은 눈만 깜박거리고있었다.

《됐소, 됐소! 어서 가보우...》

양도삼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문턱을 넘어섰다. 불빛을 등지고 멀어져가는 양도삼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손태섭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손태섭은 슬쩍슬쩍 풀무질을 시작했다. 귀에 익은 풀무질소리가 열어놓은 피창문너머로 잠들었던 새벽공기를 헤치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풀떡풀떡, 풀떡풀떡 ...

풀무대는 가락맞게 드나들고 불길은 펄떡펄떡 춤을 춘다.

어느덧 손태섭의 입에서는 코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풀무통앞에 앉아서 들어오던, 늙은 야장쟁이들의 수염밑에서 흘러나오던 풀무타령이다. 자장가처럼 귀에 익었지만 언제 한번 제 입으로 불러본적이 없는 풀무타령이다.

그는 즉흥적으로 불렀다.

슬근살짝 불어라 불 불어주렴
슬근살짝 불어라 유격대가 나간다
온갖 떡쇠 버리어 만들어낸 폭탄으로
왜놈군대 쳐부시고 조국해방 해보세
슬근살짝 불어라 불 불어주렴
슬근살짝 불어라 유격대가 나간다
.....

양도삼이가 물통을 든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멈춰서있었다.

(?...말두 안하던 태섭동무가 이 밤중에 노래를 하다니?!...)

손태섭은 여전히 풀무노래를 흥얼거리며 더 성수가 나서 풀무질을 했다.

기다란 풀무대가 바람을 몰아들어갈 때마다 화독 안에서는 웅, 웅 소리가 나고 시퍼런 불길이 사방으

로 치솟아올랐다. 마치도 폭발의 섬광인듯 적황색 화광이 번득번득 방안을 밝혔다. 그 불빛에 땀에 번들거리는 태섭의 얼굴이 청동주물상처럼 번쩍번쩍 빛났다.

손태섭은 그 불길속에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또 나타나는 박철수의 얼굴을 보고있다. 거기서 작탄이 터지는 화광을 본다. 붉은 기발이 펄펄 날린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만세소리가 터진다. 《토벌대》놈들의 군기가 불탄다. 커다란 쇠사슬이 그 불길에 녹아내린다.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나와 만세를 부르고있다.

풀무질소리, 풀무질소리... 번득이는 섬광, 섬광 ...

이글거리는 불길, 활활 타오르는 저 불길이 피창문밖 멀리, 저리도 장엄하게 동터오는 붉은 노을을 안아오는것이 아닌가!...

손태섭은 갑자기 풀무질을 툇 멈추었다. 조용해졌다. 탁, 탁, 숯불이 튀는 소리, 피창밖 숲속에서 새들이 우짖는 소리...

태섭은 새삼스럽게 병기창안의 통나무벽이며 불길에 끄슬린 천정을 휘둘러본다. 모루, 메, 망치 그리고 크고작은 집게들과 방금 담가낸 강쇠조박들이며 썸물이 담긴 나무통을 눈여겨본다.

이 순간 손태섭은 자기의 풀무가 화독에 불길을 일구어 작탄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만 필요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술한 떡쇠를 강쇠로 담가대는 이 《야장간》에서 떡쇠와 다름바 없었던 손태섭, 자기가 바로 강쇠로 담가진줄은 몰랐던것이다.

(저 불길이 바로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간직하게 해주었구나!)

손태섭은 심장벽을 두드리는 이런 웨침을 곱씹으며 더 세관게 풀무질을 했다.

교두보에서

정기종

1

《교두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올라있었다. 참모부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강변의 비탈진 구석에 도람통을 세워 그우에 전화기를 놓은 중대부에서도 《교두보》, 《교두보》하고 떠들어댔다.

전화기가 태질을 하며 쉴새없이 도람통을 울리었다.

《강행도하로 대안을 차지하고 시간을 끌면서 교두보를 공격할것!》

난생처음 듣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술어들은 아직도 숨털이 보시시킨 전사 리수범이를 은근히 위嚇하기도 하고 또 초조하게 쭈새대기도 했다.

전화를 받던 중대장이 한켠에서 쭈그려진 미국제 철갑모를 이리저리 굴리고있는 수범이를 보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생각이 났는지 그를 향해 손짓을 했다. 수범은 도람통에 부딪칠듯 달려갔다.

《불렸습니까?》

《가오, 가서 분대장에게 보고하오…예?!…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중대장은 손으로 송수화기를 막고 다시 수범이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왜 아직 그러구있소, 응?! … 오- 중기에 배치해 달라구? 허 참, 엉터리라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일 인줄 아오? 군말 말고 빨리 가오!》

거수경례를 하고 뛰어가는데 탁한 목소리가 뒤쫓았다.

《동무, 어델 가! … 2 소대 1 분대란말이요!…》

자부심이 강한 수범이었다. 전선이 락동강계선에 이르른 오늘에 와서야 군복을 입고 따라섰지만 그는 저 강을 건너 남해에로 달려갈 위훈의 길은 아직도 자기를 위해 남아있다는 객적은 위안이어나마 잃지 않고있었다.

수범은 분대장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분대장동무, 전사 리수범 제 1 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분대장은 뚱뚱한 편이었다. 그는 미심쩍게 수범이를 훑어보았다.

《신대원이구만.》

《옛, 신대원입니다!》

수범이의 목소리는 그 무슨 자랑처럼 청높이 울렸다. 신대원이란 어린 대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위훈을 위하여 대오에 들어서는 전사라고 그는 믿고있었다.

분대장은 구김살 없는 그의 태도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음… 좋소!》

결괏있는 대답이 좋다는것인지 호리호리하여 민첩하게 움직일상싶은 몸가짐이 좋다는것인지 수범이로서는 전혀 알수 없었다.

《따라오우!》

시퍼런 탐조등불줄기들이 어두운 하늘을 칼질하고있었다. 달빛은 희미하게, 지어 창백하게 수면에 내리고 강물은 불안스럽게 뒤척이고있었다.

도하계선에서 장구류 부딪치는 소리, 두런거리는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분대장은 도하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원들을 하나 하나 간간히 검열하기 시작했다. 수범은 말없이 분대장의 뒤를 따라다녔다.

웬일인가? 분대장은 수범의 일은 까맣게 잊은듯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돌렸다.

《육십쟁이, 탄알을 250 발 가지고있다는걸 다 알고있어!》

중기사수에게는

《총기름이 적지 않소? 아! … 확실히 싸움군이 다르구만, <중기아바이>!》

하는 등 자존심이 강한 전사들을 던지시 취주기도 하고 룡담을 걸기도 했다.

수범이를 제외한다면 그의 눈에 걸리지 않는것이란 없는듯하였다.

수범은 이 다급하고 신중하며 활기에 찬 호흡에 빨리 젖어들고싶었다. 그런데 분대장은 왜 대원들에게 나를 소개해주지 않는가? 수범은 불이 부어났다.

분대장은 모래불에 엎드려있는 대원들을 주욱 돌아보고나서야 수범을 한 상등병에게 소개했다.

《우리 분대에 배치됐소. 같이 행동하시오.》

이렇게 짤막히 말하고는 자기 위치에도 바빠 달려갔다.

정황은 긴장했다. 어느새 아군의 포병준비사격이 터졌는지 련포군의 전체 포문들이 일시에 우뢰를 불러오기 시작했다.

얼굴에 주근깨가 듬성듬성 널린 상등병이 옆에 바짝 붙어서 엮여있는 수범을 찬찬히 여겨보다가 큰소리로 물었다.

《고향이 어디요?》

《저, 운포라구 바다가마을입니다.》

《어디라구?》

《운포라는 바다가마을입니다.》

《오, 그렇지, 바다가라... 좋은데구만, 바다란게 가만히 앉아 보느라면 숨가진것처럼 느껴지거던.》

《바다가에서 살았는가요?》

《아니, 몇번 봤지...》

아군의 포병준비사격에 놀란 적들은 무력대고 사방에 총포탄을 퍼부어댔다.

격렬한 포화의 교차속에서 예광탄의 길다란 불꼬리들이 어두운 밤하늘을 촘촘히 누비고 포성은 파당파당! 간단없이 몸부림치며 고막을 때렸다.

《그러니 운포에서 오는길인가?》

《그래요!》

《난말이야, 그저 <참모>라고 불러.》

상등병은 말이 많은 축이었다. 그 요란한 복새판에서도 상등병은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다 터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포탄이 곁에서 터진다해도 자기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끌며 잘수 있다고 한다.

제일 많이 자고 잠시간이 제일 남아 돌아가는것도 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희떠운 친구들이 《취침참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는 애당초 그런것쯤 탓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면 포탄이 벼락치는 속에서도 코를 끌수 있다는것 그자체가 용감성과 결부된 자신의 긍지이기때문에!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다들 간략해서 《참모》라고만 부르는데 군복 입은 전사치고 그런 부름을 마다할 리유란 전혀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그의 말은 자주 동강동강 날려가버리곤했다. 끊임없이 울부짖는 포성과 대안의 적진지에 타래치는 불길... 전투에 처음 참가하는 수범은 어리둥절해졌다.

《중대- 앞으로- 오!》

이윽고 총탄의 회파람소리와 룡트림하는 불길속에서 목구멍이 터져라고 웨치는 중대장의 도하구령이 그의 귀전을 때렸다.

중대는 증강된 무력으로 락동강을 도하하여 시간을 끌면서 미제침략군놈들의 방어진지- 교두보를 공격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받고있었다. 락동강대안의 넓지 않은 진펄너머 나지막한 고지가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놈들의 교두보였다.중대는 아군의 기

본집단이 락동강상류의 다른 방향에서 도하를 진행할 때까지 미제침략군놈들의 이목을 교두보에 집중시켜야 했다. 한개 중대의 역량으로 무력이 집중되어있는 놈들의 교두보를 공격한다는것은 어려운 전투였다.

도하전투가 개시되었다. 아군포병들이 대안의 적중기화점들에 명중화력을 퍼붓고있었다. 수범은 조명탄의 불빛속에서 적화점들이 공중으로 산산이 흩어져버리는 광경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있었다.

《어이, 운포친구!》

《참모》의 목소리였다.

《이제부터 전투야. 정신차리라구. 내 뒤를 바짝 따르게.》

수범은 그를 따라 강물에 뛰어들며 중기관총이 실린 때목을 붙잡았다.

강북편 여기저기에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둔중한 폭음이 울리었다. 강물은 부글부글 끓는것만 같았다.

《노를 저으라구, 운포친구.》하고 《참모》가 소리쳤다.

(노가 어디 있다구 노를 저으라는건가?) 수범은 노를 찾느라고 두릿거렸다. 그러는데 시퍼런 불빛이 번쩍하며 온몸에 세찬 물벼락이 들썩워졌다. 숨이 꺾 막히는듯했다.

《침착히 앞을 살피!》

가까운데서 《참모》의 웨침소리가 또 울려왔다. 그의 웨침소리는 수범이의 의기를 다잡아주고 어느정도 분기도 일으켰다.

(아무려면 바다에서 자란 내가 이런 강쯤 두려워할라구? 운포, 운포 하면서...)

수범은 문득 자기가 중기를 실은 때목에 매달려 끌려가고있음을 깨달았다.

모두 때목을 밀며 손바닥노를 젓고있었다. 그는 부리나게 손바닥으로 물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렇지, 잘해, 은포친구!》

수범은 땀과 강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로 손바닥노를 젓다가 때목우에서 불을 뿜어대는 중기를 바라보곤했다. 중기압철을 누르고있는 중기사수의 넓다란 잔등이 더없이 미더워보였다.

(나한테두 저런걸 맡겨주면...)

수범은 부러움을 가지고 중기사수의 떡판같은 잔등을 바라보았다.

대안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불현듯 거대한 폭발의 진동이 일어났다. 때목이 뒤집힐듯 요동쳤다.

수범은 중기사수가 강물의 분수속에 휘뿌려지고 탄띠를 받쳐들고있던 부사수가 총가에 머리를 박으며 쓰러지는것을 보았다. 뒤미처 덮쳐드는 물결이

폐목우에서 중기를 뿌려던지려 했다.

수범은 몸을 날려 기울어지는 중기를 덥석 그려 안은채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다. 자기도모르게 몇모금 물을 삼키었다. 하지만 중기를 놓을수는 없었다. 수범은 자기 의식이 몽롱해짐을 느끼며 물억으로 중기를 끌어내려고 허우적거렸다.

수범은 누군가의 손이 자기 몸에 닿는것을 감촉하며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수범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하전투가 끝났었다.

강을 도하한 중대는 급히 전호굴설작업을 진행했다. 전호를 지령점으로 미제침략군놈들과 교전하러는 것이었다.

진펄너머 나지막한 고지에도 물러간 미제침략군놈들은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 아직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중대는 이 지점에서 허위적인 《정면공격》으로 시간을 끌면서 적들의 력량을 붙잡아두고 있어야 했다.

정신을 차린 수범은 금시 과제건 전호에서 녹녹한 땅냄새를 맡으며 코를 벌름거렸다.

《살았구만 살아났어! 난 또 후송을 해야 하지 않는가 했더랬지.》

《참모》가 누구보다 기뻐하며 수범의 어깨를 부둥켜안았다. 옆에 있던 분대원들도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숨은 있는데 눈을 딱 감구있어 잠을 자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알수 없어 속이 탔다는등, 기관총을 어찌나 세관게 끌어안았든지 《중기아바이》까지 달라붙어 겨우 떼냈다는등...

수범은 분대원들과의 첫인사가 멋스럽게 생각되어 아무 말도 못한채 얼굴을 붉힐뿐이었다. 그 바쁜 전투환경에서도 분대원들 누구나가 자기를 살피었다는것을 느끼자 코등이 시큰해왔다.

《여기까지 바빠 오느라구 잠을 못 잤어요.》

수범이 변명삼아 이런 말을 하자 모두 웃어댔다. 《참모》가 특히 더 요란스레 웃어댔다.

수범은 애써 심드렁한 표정을 하고 전호벽에 비뚜름히 세워둔 총을 집어들었다.

《괜찮아, 동문 첫전투에서 잘 싸웠거든... 이제 훌륭한 싸움꾼이 될거야!》

《참모》가 제자랑이거나 하듯이 분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수범은 그 말을 듣기가 몹시 거북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있었다.

《구대원동무들, 고맙습니다. 나도 앞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역세계 자라겠습니다. 꼭 용감한 전투원이 되겠습니다.》

수범은 지금 자기가 구대원들과 함께 수많은 전

투를 치른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다음번 전투에서 자기 존재를 보여주리라는 결심이 그에게 굳어져가고있었다.

어느덧 날이 밝고있었다.

2

해가 뜨자 미제침략군놈들은 중대가 차지한 진지들에 미친듯이 포격을 해댔다.

포탄은 중대가 차지한 계선에서 한키로도 되나마 나한 맞은편 룡선에서 날아왔다. 불룩이 솟은 그 룡선을 중대장은 《주먹룡선》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도에 큼직이 표기하였다. 미제침략군놈들은 그 룡선너머에 현대과학의 온갖 발명품들과 골동품들을 죄다 끌어다놓은듯 끊임없이 포탄을 쏘아댔다.

초연과 열풍에 목구멍이 그슬었다. 적들의 포사격이 몇자 수범은 전호벽에 기대어 탄갑을 고르고 있는 《참모》에게 물었다.

《우린 왜 공격을 하지 않는가요?》

《교두보를 견제하고있지. 교두보란게 뭇지 아나? ...알아두라구. 그건 길목을 지키는 요새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만 디디게 되면 멀리 달려나갈수 있는 ... 거 뭐라고 할가...》

《그것만 디디면 멀리 달려나갈수 있다니까 발판이나 디딤돌같은거겠지요뭐.》

《옳아!... 그 비유가 마음에 드누만. 고종다닌 사람이 달라.》

《그러니 중대가 차지해야 한다면 교두보는 여기겠군요?》

수범이가 또 묻는데 문득 등뒤에서 굵은 목청이 대답했다.

《아니, <주먹룡선>까지요.》

중대장이었다. 수범이가 벌떡 일어서는것을 보자 중대장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자기도 퍼더버리고있었다.

《여기선 앓은키가 더 좋아. 곧은 목을 해가지구 다니다간 순식간에 벌등지가 되기 쉽거든.》

적들의 집중사격목표로 된다는 의미였다.

중대장은 군사지휘관답게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는 《자, 이것으로 정식 인사를 나눈셈인데...》 하고 두손을 마주 비비며 수범이를 향해웃어보였다. 그의 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야릇한 향기가 났다. 눈여겨보니 들쭉이 흠에 버물려 손에서 비비우고있었다.

《엇저녁엔 어떻게나 들볶였든지 미처 동무의 이름도 기억할새가 없더구만...》

수범은 류달리 마음끌리는 쑥냄새를 열심히 들이키며 중대장의 검실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미안해하는 사람앞에서 더구나 상관이 그럴 경우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수범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뭘, 그거야... 좋습니다!》

수범이는 어정쩡하게 대답해버렸다.

《그저 좋다? ...》

중대장이 소리내어 웃자 전사들도 덩달아 하하... 웃어댔다.

《또 한가지 사죄할게 있소. 이번엔 수범이가 아니라...》

중대장은 전투가방속에서 보풀이 일기 시작한 편지 한통을 꺼내어 《참모》에게 내밀었다.

《자!... 내. 가방이 아니라면 락동강 물에 죽을 쏘지 오랬을거요. 받소!》

전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분대장이 소리쳤다.

《지영희?! ... 아! 벌써 다섯번째구만.》

전사들은 웃고 떠들며 잔등을 두들겨대며 야단법석을 쳤다.

수범이는 잔뜩 호기심을 품고 《참모》를 바라보았다. 누굴까? ...

그러나 당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편지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해별에 비쳐보기도 하면서 궁금증이란 전사들의 속을 태웠다.

《공개하기가 겁나오?》

중대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뭘 그렇게 쪼물쪼박하게 노우. 시시하게! ...》

그런 말에 당황해할 그가 아니었다.

《호기심이란 비밀에 있지요.》

그는 천천히 그리고 정중히 편지봉투를 뜯었다. 그러자 호기심은 절정에 이르렀다. 편지속에서는 약 60センチ가량 되는 실오리가 나왔던것이다.

《아하!》

중대장이 남먼저 탄성을 질렀다.

《여기에도 비밀이 있구만.》

먼저 편지를 대충 훑어본 《참모》는 입귀가 벌쭉해져서 무작정 수수께끼를 풀라는것이였다.

그러자 실 한오리를 놓고 떠들썩하기 시작했다. 갖은 억측이 다 나왔다.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보았으나 감시병의 걱정을 알리는 웨침소리가 울릴 때까지도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중대장은 급히 혀피를 조이며 일어서더니 래일까지의 《숙제》라고 엄숙한 어조로 《선포》했다.

수범은 전호속 자기 위치로 재빨리 달려가는 전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전투를 앞두고도 웃을줄 안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던...)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멍하니 서있는 수범이를 향해 분대장이 소리쳤다.

《<재채기>요!》

놈들이 룽공포를 쏘아대는것이였다. 《재채기》가 수범의 머리에서 모자를 날려보냈다. 수범은 전호를 따라가며 모자를 찾았다. 그러는데 또 포탄이 옆에서 터지며 전호벽을 무너뜨렸다. 무수한 흙덩이의 파도가 수범을 덮쳐왔다. 불달린 종이뭉치같은것이 코구멍을 콕 메우는것이였다.

《수범이, 여- 운포친구, 어디 있어.》

《참모》의 목소리가 꿈결에서처럼 들려왔다.

흙무지속에서 빠져나온 수범이는 모자를 찾아쓰고 《참모》가 있는쪽으로 달려갔다. 문득 중기관총을 틀어쥐고있는 《참모》를 보고 수범은 놀래었다.

《<중기 아바이>가? ...》

《수범이, <중기아바이> 방금 중상을 입고 후송됐어. 이 중기는 우리가 말아야지.》

《그럼 제가 탄약을...》

《좋아!... 저길 보라우, 미국놈들의 철갑모가 움직이지?》

《예.》

수범은 중기관총 탄띠를 잡으며 불이 이는 눈으로 전방을 쏘아보았다. 놈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뒤편 귀뿌리를 스치였다.

《참모》는 중기손잡이를 콕 틀어쥐고 인내성있게 사격구령을 기다렸다.

수범은 마로 눈앞에서 흉물스러운 미제원썹놈들의 낮썩을 바라볼수 있었다. 그놈들이 총을 쏘나들고 한걸음한걸음 접근해오고있었다. 벌써 공포감에 이지러진 얼굴들을 가려볼수 있을만큼 거리가 가까와졌다.

이때 갑자기 검붉은 불구름이 전호를 넘어 확 밀려왔다. 뜨거운 화염이 금시 머리를 구워낼것같았다.

《거리 120- 화염방사기!》

감시병의 웨침소리였다.

사격준비를 알리는 분대장의 구령, 쇠소리, 폭음...

《쫓!》

미치 목표를 겨누기도전에 일제사격이 터졌다. 누가 싸늘했는지 미제침략군 화염방사수는 벌써 시뻘건 불뭉치가 되어 대굴대굴 굴더니 이어 검붉은 불길만이 해초잎처럼 너울거렸다.

중기관총이 위력한 불길을 내뿜었다. 수범은 적들이 무리로 쓰러지는것을 바라보면서 통쾌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수범이도 서둘러 총을 쏘았다. 눈앞에서는 끊임

없이 섬광이 번쩍거리고 몽롱한 재빛연기는 눈이 쓰리게 날렸다.

《정확히 겨누고 쏘라구!》

분대장의 목소리가 귀가에 울렸다.

《에이, 수범이, 수범이!...》

분대장은 무슨 말을 더 할듯하더니 팔을 내젓고 가버렸다.

수범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고나서 키가 장대같은 미제침략군 하사관놈을 겨누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놈이 허공을 두손으로 그려쥐며 보기 좋게 나뒹굴었다.

적들은 물러갔다. 전호는 반나마 무너졌다. 무너진 전호에 앉아 아직도 흐물흐물 가스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들여다보고있는데 분대장이 다가왔다. 그는 잠시 수범이와 전호를 번갈아보았다.

《전쟁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게 뭘지 아오?》

《.....》

《답이 커지는거요.》

분대장은 자기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한쪽귀 통이가 뭉쳐 찢어진 견장을 소중히 쓸어만지더니 아직도 멍하니 서있는 수범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어처구니없는듯 팔을 내저었다.

《답이 커져서 이제 전호우에 올라앉을 잡도리구만, 응?》

전호를 파지 않는다는 소리였다.

수범은 말없이 전호를 파올리기 시작했다. 다만 분대장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어주기만 바랐다. 무엇때문인지는 그도 모른다.

마침 분대장은 바지주머니를 뒤지며 무엇인가를 찾고있었다. 왼쪽, 오른쪽...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수범이, 언제나 마음을 늦춰선 안돼. 전투에서 비겁해지는 때면 그것으로 끝장이 나듯이 역시 자만하는것도 위험한거란말이요.》

분대장은 다시 옷주머니까지 벌컥 뒤집으며 무엇인가 찾더니 참을수 없는듯 소리쳤다.

《<참모>, 담배 건사한거 있소?》

《참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분대장을 건너다 보더니 아쉬운듯 한숨을 내시고서 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그 갈피에서 납죽해진 담배를 한대 꺼내었다. 그리고는 요새 공급소대 일이 영 말이 아니라는등 담배가 없어 이발이 쏘아날 지경이라는등 너스레를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럼 그 잘 쏘아나는 이발을 아예 뽑아버리구말라구.》

분대장은 담배를 받아 귀틈에 끼우고는 오던 때처럼 훌쩍 가버렸다.

어떤 유쾌한 기분이 수범이의 엉클어졌던 머리속

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분대장이 주고 간 인상일것이다.

그는 말했다. 전쟁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게 답이 커지는것이라고! ... 이것은 수범이가 결코 겁쟁이가 아니며 얼마든지 용감한 병사가 되리라는 평가가 아니겠는가!

수범이는 위훈에 대한 갈망이 컸던만큼 한시바빠 담대한 기질을 키우고싶었으며 자만이 아니라 근면성과 성실성을 배우려 애써왔었던것이다.

《뭘이 좋아서 그렇게 빙글거리나?》

《참모》가 소리쳤다.

수범은 실눈을 하고 그를 마주보았다.

《저... 어느 책에선가 읽은적이 있는데 비겁쟁이는 자기의 일생에서 여러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단 한번 죽는다고 했더군요.》

《흥! 용감한 사람은 죽지 않아!》

《참모》는 방금 닦아낸 중기관총을 바로세우더니 무엇이 또 미덥지 않은지 폐쇄기를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한차례 한차례 전투를 끝낼 때마다 중대가 차지한 대안에는 빈 좌지들이 늘어갔다.

불과 하루전만 하여도 순진하고 리지적으로 빛나던 수범의 두눈이 벌써 고달픔과 피로에 충혈져있고 가끔 사나운 적의가 번쩍이군하였다.

지진과 같은 폭발에 땅이 진동하고 흩날리는 재개비의 장막속에서 태양이 불덩어리로 타던 전장의 한낮이 기울어졌다.

흥분과 억제할수 없는 욕망과 초조한 불안에 싸여 물기에 젖은 입술을 연신 감빰며 분대에 나타났던 수범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그는 마르고 터갈려 두툼해진 입술새로 돌모래알들을 마구 뱉어버리곤 했다.

《왜 그럴가요, 교두보란 말이 참 좋거든요.》

이렇게 그는 누구보다 많이 《교두보》, 《교두보》하고 말을 꺼내곤했다.

무엇이라고 딱히 짚어말하긴 어려워도 그 말속에는 희생을 무릅쓴 필사의 각오와 영웅성과 값높은 위훈의 요구가 들어있는것임에 틀림없었다.

수범은 《참모》를 도와 탄띠를 물리고있었다.

재빠른 숨씨로나 축기빠른것으로나 또 서로 판이 하면서도 신통히 어울리는 성격으로나 《참모》의 오른팔격인 부사수로는 수범이가 아닌 다른 전사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을것이다.

수범은 벌써 락동강에 이르는 먼길의 호송을 담당했던 한 하사관 중기사수에게서 상당한 지식을 얻었었다.

《그러니까 부대는 교두보를 디딤돌로 총공세에

넘어가겠지요?)

《참모》는 자기 생각에 묻혀 골몰하고있던중이었다. 그는 인차 말귀를 깨닫지 못했다.

《아니 뭘하구있어요?》

《이거말이야? ... 아까 그 실이야...》

그의 손엔 파란색 흰색으로 꼭게 꼬은 실오리가 쥐여있었다.

《참. 그 실오리는 무얼 의미하는가요. 편지엔 써 있겠지요?》

《참모》는 별로 시답지 않은 일이기라도 한듯 뜨직뜨직 중얼거렸다.

《뭐 별게 아니야, 그새 아들녀석이 생겼는데 키를 재어보낸다나... 허, 참...》

말은 스스럼없이 했으나 그의 얼굴에 그려진 기쁨과 행복의 빛은 감출수 없었다.

《아니, 그럼?!...》

《허...참! ...》

수범은 《참모》가 이처럼 이상스럽게- 면피한듯, 어리둥절한듯, 취한듯 소리없이 웃고있는 모양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았다.

훌륭한 사람들, 싸움판에서는 몹시 거칠고 맹정해보이지만 전투의 휴식간에 서로 마주앉기만 하면 얼마나 다정하고 가까운 사람들인가! 이들과 함께라면 오직 승리의 길, 위훈의 길을 걸게 되리라는 신념이 더욱 굳어지는것이였다.

수범은 《참모》에게서 실오리를 빼앗아 신기한 것이나 보듯이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3

해가 졌다. 총소리도 포소리도 똑 그쳤다.

수범이는 전호벽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청했다. 화선에 나와서 처음 차례진 잠시간이었다. 몇분도 안지나 빌어먹을 《재채기》가 또 두들겨깨울지도 모르니 빨리 잠들어야 했다.

살쾅이 눈섭이 내려덮이는데 두런두런하는 말소리와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왔다.

《중대의 공격과 동시에 분대는 <주먹릉선>후면의 적 포진지를 부셔야 하오. 그런데 거긴 사방 진렬이요.》

《자신있습니다!》

웅근 목소리의 입자는 중대장이고 상대는 분대장이였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 발자국소리도 없다. 중대장이 다시 말을 떴었다.

《<참모>가 이제 살구난것 같구만.》

가벼운 웃음소리 .

《중기를 맡으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참, 수수께끼는 풀었소?》

《예?!...》

《<숙제>말이요. 아, 그 실오리 60 센치가량 되는...》

《예- 아직 ... 언제 그런걸 다...》

《흠. 그래도 그런 문제야 풀어야지.》

잠시후 중대장이 다시 말했다.

《내가 대줄가? ...》

가벼운 속삭임에 이어 탄성이 터졌다.

《아니?!...》

《<참모>가 입대한 후에 태어난것으로 치면 지금쯤 60 센치 될거 아니요.》

《정말! ... 참 그거...》

분대장이 혀를 차는것이였다.

발자국소리가 지척에까지 왔다.

《수범이군... 결과가 있다지?》

《여간내기가 아닙니다.》

《잘 도와야겠소. 고향에서 늙으신 아버지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공훈을 세우고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실텐데... 우리가 잘 도와야겠소.》 발자국소리는 멀어져갔다.

수범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잠든척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 아니 중대장동진 그걸 언제 알았던말인가?...)

수범은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중기좌지에서 무언가 손질하고있는 《참모》의 거뒀한 자세가 보였다.

키가 60 센치가량 되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그는 지금 남해 가까운 전선의 전호속에서 보고싶은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있다.

그리고 지금 락동강전선에서 싸우는 아들을 둔 늙으신 수범이의 아버지는 전선원호를 위해 이 밤도 사나운 배길을 가고있을것이다...

기이한 대조이다. 마치도 전선과 후방의 피줄같은 뉴대를 증명해주듯이.

수범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어데선가 파도소리가 들려오는듯하였다. 해빛으로 하여 눈부신 흰거품을 일으키며 앞으로 내달려다가는 다시 기슭을 향해 눈빛 거품을 뿜어대며 모래를 씻는 고향바다가 떠올랐다.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할가?)

무수한 물방울들이 눈보라처럼 날려치고 흰거품 파도들이 쉽없이 모래불을 씻어내는 그 쌍바위도래 굽이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 날씨가 어두워지고 산더미같은 파도가 돌격할 때면 사방 그 어데서나 물과 물안개와 지동치는 요란한 소리뿐이였다.

아버지를 따라 열세살난 수범이가 처음으로 일하러 나가기로 결심한 날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아침

이었다...

수범은 다 찢진 고무신을 신고 할복장에 가려면 발가락이 얼어빠질것 같아 뒤주를 뒤쳐 뒤축을 기운 양말을 꺼내들었다.

그때 두눈이 말뚱말뚱해서 쳐다보던 누이동생 수옥이가 한마디 했다.

《그건 안되는거야. 엄마가 말했어. 아버지 나들이 갈 때 신는거라구...》

수범이는 흠칫 놀랐다. 달반전에 죽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것이다.

《엄마가 정말 그랬니?》

멍청하니 서있다가 문을 차고 달려나갔다. 멀리 바다에서는 돛대를 꺾어버린다는 하늬바람이 세찬 파도를 몰아오고있었다.

그날밤 아버지는 푸르덴탕 얼어빠진 수범이의 발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녹여주며 뜨직뜨직 말하였다.

《못난 자식같으니... 다시 바다가에서 내 눈에 띄여봐라!...》

그것은 해방되기 전해의 일이었다.

수범이가 전선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어슬턱에 정거장으로 바빠 나왔다. 리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 마련인듯 금시 기차가 떠날 차비로 세차게 중기를 내뿜으며 요란스레 기적을 울렸다.

《넘려마세요. 아버지, 잘 싸우겠어요.》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조심히 그러쥐었다. 고중을 다니던 아들, 이제는 총을 메고 총포탄속에서 원쑤와 싸울 대장부런만 아버지는 아직도 다정히 수범이를 떠밀었는데 어제날 파도세찬 도래굽이에서 잠들어버린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던 때나 다름없었다.

《그래라...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라는걸 잊지 말아라.》

...눈앞에서는 끊임없이 파도가 혼맹이었다. 파도는 그에게 물보라를 날려주고 물새들의 처량한 노래를 울리며 도처에서 령롱한 은방울들을 뿌려쳤다.

그러다가 잠들어버렸다.

...어데선가 귀에 익은 발동소리가 울려왔다.

그 소리는 급작스레 커졌다가는 다시 작아지고 그리고는 또 커지며 가까와졌다.

땅크소리였다.

《부대가 건너온다!-》

누군가 목메는듯 탁한 소리를 내질렀다. 강을 메우며 부대가 건너오고있는것이였다.

선두에는 근위부대의 군기가 불길처럼 날리고 그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땅크들이 물살을 가르고있었다.

《부대가 건너온다!-》

땅크들의 거센 동음소리를 이렇듯 가슴이 뻐근하

도록 들어본적이 없었다.

선두땅크는 벌써 사뭇치는 물결을 가르며 드넓은 강북판에 들어섰다.

《아니?! ...》

수범은 입을 딱 벌렸다. 땅크들이 그만 깊은곳도 모르고 사정없이 뛰어들고있는것이였다.

두팔을 내저으며 달려갔다 달려가며 목청껏 소리쳤다. 죽을 힘을 다 냈어도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나딩굴었다. 뿌리채 뿔혀있던 나무등걸이 넓적다리를 아프게 후려쳤다...

한순간 수범은 영문을 알수 없어 눈을 비볐다. 꿈이다! 그의 곁에서는 《참모》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다.

《귀한 잠을 깨워서 안됐구만.》

그는 전호너머로 팔을 뻗쳐 수류탄뭉음을 끌어내렸다.

《놈들이 잔뜩 버리고 갔더라니까... 아까와 견딜수 있어야지.》

그러니 《참모》는 그의 말을 빌면 포탄이 쏟아지는속에서도 코를 골며 잘수 있는 덕분에 《남아돌아가는》 잠시간을 타서 수류탄예비정량을 마련하였던것이다.

《참모》는 자기가 둘러메고온것을 내려다보며 만족한듯 얼굴을 문지르더니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즉시 좁은 미간을 찌프리며 주저앉아버렸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좀 보지요.》

《아니라는데두! ...》

수범은 《참모》의 팔을 붙들었다.

《숨기구있었군요. 그렇지요?》

《응?...》

《부상당하구두...》

《뭐라구?》

《난... 아니, 이걸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참모》는 놀란듯 수범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조심히 뿌리치고 허리를 폈다.

《빌어먹을! ... 끝내 ...》

《참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중기좌지로 걸어갔다.

수범은 그의 잔등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무슨 까닭에선지 으시시 몸이 떨려났다.

《야- 참!》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구 그래요?!...》

《참모》는 돌아보지 않았다. 듣지 못한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잔등이 휘어진듯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히고 걸어갔다.

《무엇때문에 그러고있소?》

등뒤에 분대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었소?》

《아닙니다.》

수범은 《참모》의 부상을 숨겼다. 저도모르는 사이에 그 대답이 불쑥 나왔던지 애당초 보고할 생각이 없었던지 그자신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후 분대는 중기좌지에 모였다.

중대장이 왔다. 그는 이제 있게 될 《주먹통선》 공격시 분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임무를 설명하고 이어 분대배속중기의 부사수로 수범이를 임명했다.

강을 건널 때 벌써 부사수의 자리는 비어있었는데 이제 그자리에 수범이가 들어선다고 해서 아무도 놀라게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둘러보니 모두 험악한 표정들이었다. 푸르게한 어둠속에서 돌모래파면에 굵힌 얼굴들, 마르고 터진 입술의 룬파이 드러나보였다.

분대장의 쏘는듯한 두눈과 마주쳤다. 다음 《참모》의 눈과...

어두웠으나 수범은 피로에 충혈진 그 눈길들의 의미를 똑똑히 가려볼수 있었다. 그 눈길은 이렇게 묻는듯하였다.

《겁이 나나?》

아니다. 수범이는 겁내지 않았다. 그저 너무도 경험 없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놀라웠을뿐이었다.

《해내겠습니다!》

.....

수범이는 부지런히 중기관총탄피에 탄알을 채우고있었다. 《참모》는 탄통들을 모아놓고 중기손잡이를 험겁게 풀었다.

《그게 <주먹통선>까지라구 했던가요?》

《뭘가말이야.》

《교두보말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어째 <주먹통선>까지겠나. 계속 나가면서 점령해야지.》

《셋, 누군들 그걸 모를라구요...》

《아는것만으로는 부족해. 잊지 말아야 해!...》

4

부대의 총공격시간을 앞두고 중대는 《주먹통선》에 대한 반돌격으로 넘어갔다. 깊은 밤중이었다.

《중대- 앞으로!-》

구령소리는 낮았으나 먼 우뢰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수범이 탄통!》

수범은 《참모》의 팔을 뿌리치며 중기관총바퀴를 둘러메고 어둠속을 내달렸다. 무거운 발자국소

리뿐... 총포성도 함성도 아직은 없다. 수범이에게 이 순간이 마치도 장중한 관현악이 급작스레 멈출 때의 격동처럼 느껴졌다.

《휴지부도 역시 음악이야.》

음악소조에서 호른을 불던 춘택이란 친구가 하던 말이 이 시각에 떠오른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었다.

한박자, 아니 두박자의 휴지부... 다음 련달아 터진 음악은 보다 강렬하고 장엄할것이다!

분대는 《주먹통선》 후면으로 돌입하고있었다. 무슨 기미를 쫓는지 우중충한 숲가에서 미군포차들이 요동을 쓰고있었다.

반땅크수류탄 터지는 평음과 동시에 《참모》는 중기압철을 눌러 맵짠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갈대들이 중동무이로 잘라져나가고 그뒤에서 거뭇한 몸뚱아리들이 몸서리치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수범은 그 찰나의 휴지부가 언제 어데서 끝나버렸는지 더는 알수 없었다.

벌써 중대가 치달아오르는 《주먹통선》에서는 화광이 솟구쳐오르고 맹렬한 급사격과 알지 못할 온갖 비명들과 욕지거리들이 한데 어울려 가마속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관현악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수범이는 무엇을 해야 할는지 알수 없었다. 《참모》를 제외하고는 곁에 아무도 없다. 성급한 중기관총소리, 불뭉치를 게우며 땅바닥을 물어뜯는 아츠러운 쇠소리들... 이제는 아무도 《어이, 운포친구, 여기야!》 하고 소리쳐주지 않았다. 수범은 최폭을 짓뭇개며 적 장갑차 한대가 습격조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기여나오는것을 보았다.

《참모》는 그쪽을 향해 짧은 점발로 내쏘더니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수범은 자기에게 차려진 몫을, 다름아닌 수범이 자기에게 부여되고있는 무거운 임무를 깨달았다.

서둘러 허리에서 반땅크수류탄을 뽑아드는데 《참모》의 손이 움켜잡았다.

《인쥬!》

그는 태연히 서둘지 않고 기여나갔다.

폭음은 웅글게 조용히 울린것 같았다. 귀청을 찢던 쇠소리가 멎었다. 숨막힐듯 불구름뭉치가 증류라는 냄새에 뒤섞여 얼굴을 덮쳐왔다.

수범은 중기를 끌고 《참모》에게로 갔다.

《쏘라! 수범이, 빨리!》

연기속에서 《참모》가 웅쳤다.

《우쥬이다. 갈숲을 겨누고... 그렇지, 총가를 숙여!》

《참모》가 아득바득 땅을 허비며 기여오는것을 수범은 보지 못했다.

중기사격의 진동이 세차게 가슴을 두드렸다.

《죽음을 받아라, 이 버리지들아!》

전투의 열광에 사로잡힌 수범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것만 같았다.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것이 심장의 고동소리인지 중기사격의 진동때문인지... 아무튼 마찬가지이다.

갑자기 《참모》가 그의 어깨를 와락 쥐어당겼다. 《에익, 한심한 친구!》

그러나 즉시 《참모》는 주저앉고말았다. 으드득 이발 가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그는 가까스로 머리를 쳐들었다.

《저기... 수범이 앞으로!》

수범은 물탕을 텅기며 내달았다. 뛰다가는 엎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중기관총을 둘러메고 뛰어갔다.

갑자기 어깨박죽을 호되게 내려치는듯한 충동에 몸을 떨며 비틀거리다가 풀썩 주저앉았다. 중기관총 총차바퀴가 그의 목을 짓눌러 수렁속에 쓸어들었다. 미적지근하고 끈적끈적한 감탕물이 목구멍으로 쓸어들었다.

중기관총을 끌며 수렁을 기었다. 그러나 이번엔 허벅다리가 썩 빠져들어갔다. 난관흙을 몸으로 이기며 다리를 뺏으려 하였으나 허사였다.

한초가 새로왔다.

중기사격이 몇자 우줄우줄 달려드는 검은 몸뚱아리들이 푸릿한 하늘을 배경으로 툭툭히 드러나보였다. 사방에서 쭈렁쭈렁 물방울을 텅기며 적탄이 쏟아졌다.

《뚜루룩!...》

어방대고 갈기고는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이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였다. 적들의 무리속에서 수류탄이 련달아터졌다.

《수범이!》

《참모》였다. 감탕을 헤집으며 기어오고있었다.

수범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웬일인지 목구멍이 꼭 메였다.

《참모》가 허리까지 빠져 허우적이며 가까이 왔을 때 수범은 그에게 중기를 내밀었다.

《썩요!》

《... ...》

《빨리 썩요! 난...》

수범은 총차바퀴를 어깨에 올려놓고 겁적 엎드렸다. 몸이 그대로 중기관총의 반치개가 되어 위급한정황을 풀자는것이였다.

《빨리 썩요!》

《참모》는 말없이 손잡이를 틀어쥐더니 압철을 눌렀다.

세찬 불줄기! ... 갈대를 거머쥐고 퍼들쩍거리는 미제침략군들...

중기사격의 진동은 수범이를 점점 더 감탕속으로 밀어넣었다. 총차바퀴를 틀어잡은 손등과 뒤통수를 중기에서 튀어난 탄피들이 마구 때렸다.

눈을 뜰수 없었다.

팔굽까지 빠지니 무거운 중기를 지탱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수범이!》

《참모》의 목소리는 어텐가 판세계에서 울려오는듯하였다.

대답할수 없었다. 목덜미를 짓누르는 총차바퀴에 숨쉬기조차 가뻤다.

《수범이!...》

왜 자꾸 부르는가, 어린애처럼!

《그냥 썩요!》

다시 중기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문득 수범이는 자기가 그 어떤 위훈을 세우고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렇게 믿고싶었다. 위훈을!...

중기가 요동칠때마다 자꾸만 밀창없는 수렁속에 빠져들어가있으나 한초한초를 지탱할수록 전선 신문들에서 것처럼 소리높이 찬양되던 영웅들 못지않는 위훈을 세우고있는것이라고 믿어졌다.

군복을 입던 그날부터 아니 총을 메겠다고 마음다진 그 시각부터 바라온것이였다.

그러나 그때 수범이의 생각은 얼마나 단순하고 객적은것이었던가!...

군복을 입고보니 전선은 멀리 있었다.

전선에 가당기전에 피복창고의 누기찬 곰팡이냄새를 다 털어버리지 못한채 되돌아설것 같았다.

기왕이면 해병이 되어 바다에서 싸우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남보다 먼저 남해에 이를것이고 장한 위훈과 함께 언제든지 자랑스럽고 떳떳할것이 다.

《해병이 되겠다구?》

《예, 전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동무 말대로 하면 비행사들은 뭐 다 하늘에서 자랐겠구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군복을 타입던 그날 번호를 불러 대렬을 갈라세우던 대위였다.

《이래봐도 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각오가 되어있다?...》

대위는 수첩의 다음장을 번졌다.

《그건 어디서나 필요하오.》

《그렇지만 전...》

대위는 한손에 든 연필을 곤두세우더니 수첩뚜껑에 대고 신경질적으로 방아를 찧었다. 그 연필로 말하면 그것이 한번 그어지는 날엔 해병은 고사하고 마사원의 채찍이나 후방부서기의 가느다란 편대쥼 능히 쥐어줄수 있는것이였다.

《전 사실 기왕이면...》

《뒤로 돌아! ... 이게 뭐 소년단야영소인줄 아오? 바다에 가겠다, 산에 가겠다...》

돌이켜보면 수범이 자기는 위훈에 대한 갈망은 컸으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전투후에 《참모》는 떠들어댔것이다. 수범이가 어떻게 감탕속에 구겨박혀있었으며

어깨까지 묻혀버린 그속에서 어떻게 중기관총의 반치개가 되어 견뎌배겼는가를...

《영웅감이거든, 이렇게 바로 위훈이란거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 몸 그대로 디딤돌이 된다. ...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 그러니 이게 적땅크를 여라문대 까부신거나 뭐이 다른가말이야! ...》

그러면 자기는 참다못해 소리칠것이다.

《그만해요! 별치 않은걸 가지구...》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만큼 고통은 모질게 파고들었다.

갑자기 수범은 주위의 모든것이 숨죽이고있는데 유독 중기만이 울부짖고있는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먹릉선》 꼭대기일상실은곳에서 합성이 울려오는것 같았다.

귀를 강구었다. 분명 그것은 목갈린 만세의 웨침소리들이었다.

수범은 바싹 턱을 쳐들고 소리쳤다.

《끝나지 않았어요? ...》

대답이 없다.

《아- 이런! 뭘 자꾸 싸요?! ...》

대답이 없다.

불시로 가슴을 찌르는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수범은 안간힘을 쓰며 총차바퀴에서 어깨를 빼내었다.

《뚜루룩! ...》

마지막 탄미가 절컹 물렸다.

중기사격은 멎었다. 조용해졌다.

갑자기 사격이 그치자 무거운 적막이 덮쳐들었다.

수범은 몸으로 감탕을 이기며 허리를 폈다. 그러자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중기압철을 누르고 어깨에 머리를 펴군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는 《참모》가 눈에 띄었던것이다.

불시로 심장의 박동이 멎는듯하였다.

수범은 금시 잠든 사람을 깨울가 저어하듯 조심스레 《참모》의 기울어진 머리를 돌려놓았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듯 멍하니 들여다보기만 했다.

《참모》의 두눈은 빛을 잃지 않고있었다. 희미한 별들이며 어두운 공간에 가물가물 녹아드는 구름이며 희뿌연 안개에 가리운 밤하늘 전체를 황홀한듯 고요히 명상에 잠겨 바라보고있는것 같았다.

《어찌자구... 이렇게?! ...》

감히 일으킬 엄두도 나지 않았다.

믿고싶지 않았다. 그리고... 죄다 믿어지지 않았다.

... 분대장이 달려왔을 때 수범은 《참모》를 들

취업고있었다.

《수범이, 무슨 일이요?》

《.....》

《아니?! ...》

분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감탕이 너덕너덕 게발리운 수범이의 얼굴을 멍하니 보고있었다. 그러더니 별안간 나직이 말하였다.

《빨리 걸소, 앞으로!》

수범은 걸음을 떼었다.

아무도 모를것이다. 이제는 수범이가 수렁속에서 중기관총의 반치개가 되어 어떻게 싸웠는지 영영 알지 못할것이다.

대신 수범이는 말할것이다. 어떻게 《참모》가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눕혔으며 남해에로 가는 그 길위에 어떤 위훈을 남겼는가를.

두고두고 그는 말할것이다. 언제나 잠을 모르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용감한 전사에 대하여... 그렇게 60 센치가량 되는 아들, 이제 아버지가 걸은 그 길로 총잡고 나설 그 아들에게 말해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아버지의 세대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그렇게 수범이도 갈것이다. 희생을 무릅쓰고 점령한 교두보를 지나 이제 다시 위훈의 교두보들을 넘으며 곳곳이 걸어갈것이다. 그 길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총천 전사의 영예를 빛내이며...

먼 산발에서 《만세!》의 합성이 울려왔다. 둔중한 포성과 자지러진 총성들이 뒤섞였다.

《부대의 총공격이요!》

분대장의 말이였다. 수범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저봐요, 저 소리를 들어요!》

《그는 듣고있소.》

분대장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중대가 교두보에서 치렬한 공방전으로 적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있을 때 은밀히 강을 도하한 부대는 벌써 적구중심깊이에 육박한것이다.

중대가 받쳐놓은, 《참모》와 같은 이름없는 전사들이 쌓아올린 위훈을 디딤돌로!

... 수범은 천천히 《주먹릉선》으로 오르고있었다. 그는 영원히 함께 있을 《참모》와 같이 가고있다.

《그게 <주먹릉선>까지라고요?》

《뭘가말이야.》

《교두보말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던...》

《...계속 나가자구, 또 점령해야지...》

달려오듯이 새벽이 가까와왔다. 녹녹한 습기를 머금은 새벽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다.

아마도 그것은 남해에서 불어온것이라! ...

조국의 궤도를 따라

리영백

사랑의 궤도우에

달려가는 마음이 끝없어
달려가는 길도 끝이 없는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북으로
혈맥처럼 뻗어간 철길은 몇천리
질풍을 몰아가는 철길은 몇만리

눈부신 해살 은빛으로 부서지는
갈래 많은 철길, 멀고먼 철길
외진 끝안 그 어느 다리목을 지나가도
인적 드문 그 어느 산간역에 들어서도
달아오르는 전열기마냥
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생각은 하나

날마다 오고가는 길이건만
날마다 새롭게만 들려와라
해쫂는 동해의 푸른 물결소리...
혈전만리 개선의 첫걸음에
허리굽은 철길원을 안아일으켜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영상을 우러러
후더워오는 이 가슴에 출렁이는 물결소리...

홍겨운 승무선에 언뜻언뜻 날아지나는
그 어느 전주 한대를 보아도
생각은 어느덧 개고령 높은 령에 가닿아...
달리는 기관차를 함께 타고 넘으시며
철도전기화의 원대한 구상 펼쳐주시던
그날의 궤도우에 뜨겁게 흐른다

흐른다,
끓으며 달리는 땅우의 길들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 닿아있기에

전화의 그날에도
북구의 나날에도
선행관의 영예를 은빛 궤도우에 빔내주시며
안아주시고 이 끌어주신 아버지 손길따라...

아, 끝없이 흐른다
온 나라가 쉬는 설날 아침
눈내린 화물역 침목을 밟으시며
수송을 혁명의 높은 궤도우에 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목메여 소리치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동쪽이라, 서쪽이라, 남북이라
그 언제 그 어디를 달려가도
기다린듯 맞아주시는 그 사랑을 안고
《수송혁명200일전투》의 불길 높이
당중앙위원회편지의 호소따라
새 7개년의 휘황한 구간을 주름잡거니

뜨거운 생각의 질풍을 휘몰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행복의 철길
혈맥처럼 뻗어간 조국의 철길
갈래도 많고
멀고멀어도

이 길에선 언제나
우리 마음 언제나
하나의 궤도우에 굽이쳐 흐른다!
걸음걸음 충성의 무쇠바퀴가 되어
세월을 넘어 달리고 달려가도
종점이 없는 사랑의 궤도우에...

수송전선의 달

달이 등실
기중기의 긴 팔에 걸리고
달같이 환한
운전공처녀의 얼굴엔
웃음이 방실

달빛이 흐르는 철길우에
떠나가는 차판마다
웃음도 듬뿍 실어보내려는듯
기중기운전실 창너머
정답게 바라보는 처녀야

밤은 깊어가도
휘영청 달빛이 밝아
드바쁜 집중화물역이 더욱 끓는듯
연방 침목을 두드리는 쇠북소리
가슴속 금선을 울리는 이 밤이 좋아...
조용치 않은 구내를 비치며
실실이 흘러내리는 저 달빛에
너의 뜨거운 마음을 실어보는거나

너의 기쁨은 끝이 없구나
길은 길마다 여기서 다 이어지고
이 땅의 재부가 여기 다 모이는듯
강재를 싣고 들이닿는 렬차소리
원목을 부리고 떠나는 자동차소리

들을수록 흥이 나는 오만가지 동음을
하나의 노래로 이어주는 처녀야

들어오는 물동이 구내에 넘칠수록
너의 기쁨도 가슴에 넘쳐
하나의 짐함을 들어올리면서도
나날이 늘어나는 조국의 무게를
가슴뜨겁게 안아보는 그 마음

들어오는 길, 떠나가는 길들에
질풍으로 일어번지는 한초한초를
그처럼 뜨거운 심장으로 이어주며
너의 마음은 언제나
정시 출발의 환희로운 시간에 닿아있거니

밤은 깊어가도
휘영청 달빛이 밝아
끓어번지는 수송전선이 아니구나

이 밤도
수령님의 사랑을 지체없이 안아보내는
그 기쁨 그 보람을 안고
기중기운전실 창가에 웃음을 날리는 처녀야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밤 모르는 수송전선의 날이구나!

《소년호》 렬차 떠난다

렬차가 떠난다
《소년호》 렬차 떠난다

붉은넥타이 펴 펼...
꽃보라 날리는 역구내

차앞에 모신 아버지원수님 초상화
꽃테를 다시다시 살피던 그 마음 실고...

손 저어 바래는 이 가슴에도

아이들의 더운 숨결 굽이쳐오는가

손 모아 쌓아가던 파철더미 커갈 때
충성의 그 마음들도 함께 자라

바람을 일구는 차바퀴소리도
기특한 그 마음들을 노래하누나

긴장한 수송전선을 도와
하나의 조약돌도 깔아주고싶은...

그 마음들이 모이고 뭉쳐
그대로 차체가 되고 무쇠바퀴로 되어

두줄기 궤도를 쿵쿵 울리며
혁명의 기관차를 떠밀어가거니

달려가는 차창 가득히

해빛이 웃는가, 아이들이 웃는가

원수님 따르는 조국의 새세대들이
하나, 둘, 셋... 발맞춰 달려가는듯

아, 《소년호》 열차 달린다!
조국의 미래가 달려간다!

행복의 철길에 피어난 꽃

떠나는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고
사람들의 물결 설레이는 역두에
웬 꽃들이냐, 판매차도 나란히
줄지어 나란히 선 처녀들

잠시 만났던 사이건만
고향집의 친누이들인듯
언뜻언뜻 지나가는 차창마다
다시 또다시 흔들어주는 그 손길들

그 얼마나 실뿔하였던가
차창밖엔 흰눈이 내리건만
여름을 안고 오른듯
푸짐한 과밥에 싱싱한 쭉갯을 받쳐주던 손길들

사과라, 약수라, 따끈한 차에
후더운 정도 함께 부어주더니
아, 헤어지는 이 순간에조차
떨기떨기 웃음꽃을 피워주는 그 마음들이여

들을 지나 계곡을 지나
달려가고 달려오는 철길 수백리
가고 가도 하나같은 그 마음들이
맞아주고 바래주는 철길 수백리

갈수록 산천은 눈에 설어도
내 마음은 항상
고향집에 앉아있는듯
생각우에 생각을 불러내누나

류량의 설음이 차흐르던 이 철길을
행복의 궤도로 바꾸어주신 수령님
인민의 려행길에 웃음만이 넘치라고
봉사의 꽃을 활짝 피워주셨거니

처녀들의 마음이 꽃향기되어
멀리 갈수록 고향길의 정다움 안겨주며
다시 또다시 흔들어주는 그 손길들에서도
아, 가슴뜨겁게 받아안노라
행복의 궤도우에 흐르는 어버이사랑을!

백두산역에서

산을 넘어 령을 넘어
굽이굽이 계곡을 누벼
천교의 밀림속에 너는 있구나
백두산역이여!

금시 처음 그 이름만 듣고도
가슴이 설레여
도시의 화려한 역과 역들을 지나
마음 앞서 달려오던 백두산역이여!

와보니 크지 않은 림철역인데
어찌하여 그처럼 크나큰 이름을 지녔느냐
울려가는 기적소리도
해뜨는 밀림의 바다에 찾아들고
차에서 내리자
백두의 령봉이 가까이 맞아주는곳-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오르고내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도
평양역과 다름없이
철도제복 단정히 차린 안내원처너
개찰구로 나가는 벌목부들과
주고받는 인사말도 더없이 정다워...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그날 투사들 대오앞에 날리던 기발처럼
단풍이 붉게 타는 저 숲속 어디선가

우등불가에 그려보던 그 숭고한 뜻이
차판마다 가득 쌓인
아름드리 원목들에게도 어려있는것 아닌가

참으로 밝고 서기조차
승업한 이 땅-
여기 깔린 조약돌 하나 침목 하나도
피로 헤친 그날의 진군길우에
행복한 삶의 궤도로 뻗어왔거니

백두산에서 떠난 우리의 혁명은
조국땅 한가득 락원의 노래로 채우며
눈보라만이 지동치던
여기 백두의 밀림 한끝까지
환희로운 생활의 역을 세웠구나

아, 백두산역 백두산역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세월을 넘어 줄기차게 흐르고흐르는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 따라
조국이 달려가는 그 궤도우에 너는 서있구나

너는 서있구나
락원이 뿌리내린 력사의 땅에서
철길의 역과 역들만이 아닌
못잊을 어제와 행복한 오늘
먼먼 미래까지를 하나로 이어주며...

첫생활

로종익

최승호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말석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오정수는 만년필을 손에 들었다.

(오늘은 임무를 주겠는지.)

지도원으로 배치된지 달포가 지났으나 과장은 아직 단독임무를 주지 않아 매일아침 지시를 기다려보는 오정수였다.

학교를 갓 졸업한 전기기사인 그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관철하기 위해 들끓는 이때 책상앞에 앉아 문서나 뒤지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승호는 책상에 두손을 짚고 턱을 약간 들었다. 아침마다 그는 이렇게 서서 우선 제기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리 잘 준비하여 꼭 5분동안 말하기에 지도원들은 《과장의 5분연설》이라 이름지었다.

오정수는 마흔일곱에 난 이 키 작은 과장이 도총배전부안에서는 선생이나 어른 취급을 받고있음을 알았다. 가장 부러운것은 도안에 혈관계통처럼 뻗어간 전기줄을 손금보듯 환히 알고있을뿐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수명정도, 보수대책을 알아서도 척척 알아맞히는것이였다. 다른 과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의례히 《박사과장》한테 물어왔다. 그때마다 최승호는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 연구하라구요.》하는 빈정거림을 덧붙여 내보내며 허허 웃었다. 그는 일단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고 조리있게, 론리정연하게 엮어대는데 오정수는 한번도 싫지 않게 들었다.

최승호는 《5분연설》을 끝내자 사업분담을 하였다. 지도원들에게 하루임무를 준 다음 부서에 하나밖에 없는 총각지도원 오정수에게로 웃는 눈길을 보냈다. 짧은 머리 장식, 침착하고 말없이 꾸준한 기질이 엿보이는 둥굴한 얼굴의 오정수를 막내동생처럼 여기며 다정하게 불렀다.

《정수동무.》

최승호는 언제나 달릴수 있게 만년필을 끈두세우고있는 오정수의 성실성에 만족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정수동무는 래일 산출작업반에서 해야 할 <작업지시표>를 작성해야겠소. 기초자료는 이것이야.》

하고 책상모서리에 미리 가져다놓은 무슨 서류를 가리키고나서 덧붙였다.

《거기엔 당성, 과학성, 인민성이 반영되어야 하오. 동무에게야 왜 그래야 하는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게구. 하여튼 신중하기를 바라오.》

지도원들은 다 떠나고 사무실에는 중심에 놓인 커다란 량수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과장과 출입문 옆에 앉은 오정수만이 남았다.

드디어 과장의 도움을 받아 탐구의 나날에 다져

넣은것들을 풀어놓으며 큰결음을 내디디는, 오정수 개인을 놓고볼 때 실로 의의있는 하루가 시작되였다. 과장의 말대로 앞으로 점점 더 큰일을 맡아 창창한 미래에 달리는 첫걸음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과장앞에서조차 갓 철이 든 사내로 작아보이는 터여서인지 아니면 도면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판단하기 어려워서인지 하여튼 맡겨진 사무가 매우 어렵게 여겨졌다.

전화호출이 따르릉- 울리였다.

과장은 송수화기를 잡았다. 처음에 느직하던 대답소리가 점점 급해맞아 연방 《엉?》하고 놀랐다가도 《뭐라구?》라고 반문하던 과장의 얼굴은 잔뜩 찌프려졌다.

《유명한 <산출비행사>가 그것도 처리 못해 야단법석이요? 꼭 내려가봐야겠소? ... 어디 나갈 사람이 있어야지?...》

오정수의 능력을 가늠하듯 건너다보며 저쪽말을 듣던 과장의 얼굴은 불시에 활짝 개이였다.

《자체로 해보겠다- 허허, 괜찮아! 그 진취성이 혁명을 밀고나가는 힘이란말이요. ... 명확한것은 612 차단기를 끄고...》

최승호는 현장에서 지형지물을 일일이 가리켜주며 말하듯 기술적처리를 한참이나 내리엮었다. 오정수는 자기 눈앞에도 현장이 그림처럼 보이는듯싶었다. 정말 《박사과장》이라 할만도 했다.

송수화기를 놓자 최승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불을 켜냈다.

《모를것은 없소?》

최승호는 주름살 하나 건너가지 않은 흰 살갗의 얼굴을 돌려 오정수를 보며 어른답게 물었다.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이 마음에 드오. 허허.》

두사람은 제 사무에 묻혀 더는 말이 없었다. 오늘 따라 사무실로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다.

점심때가 가까와올무렵이였다.

에닐곱 나보이는 겁에 질린 소녀애가 쏘르르 달려들어오며

《아버지-》

하고 과장의 옆에 가서 다짜고짜로 팔을 잡아끌며 애원했다.

《순애가 아파서 막 울어요. 빨리 가요. 빨리-》

최승호의 눈에는 흰자위가 그득 찼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엄마가 탁아소에 와서 업고갔어요.》

《어딜?》

《병원엘 갔지 뭐, 엄마가 아버지 빨리 오래-》

최승호는 팔애와 책상위에 놓은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딱해하였다.

오정수는 그에게 권고했다.
 《애가 급해하는것 같은데 가보시지요.》
 딸애는 자꾸 보챘다. 일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었다. 최승호는 책상위에 널려있는 서류들을 대강 모아놓았다.
 《가자. 허참, 바쁜 일이 수두룩한데...》
 최승호는 딸애의 손을 잡고 나가다가 문득 서머 이렇게 알렸다.
 《그럼 얼른 갔다오겠소.》
 하고는 미안한듯 주춤거리다가 나갔다.
 돌개바람이 휘-불어지나간 뒤처럼 방안이 좀 설렁했다.
 오정수는 침착하게 앉아서 사무를 볼수가 없었다. 그는 직속과장의 안타까움을 외면할수도 없고 또 인정상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어서 구역병원을 전화로 찾았다. 막상 도와줄 일을 찾자니 애 이름도 부인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다.
 《저... 그... 방금 어떤 애기어머니가 저길 가지 않았습니까? 구급과에 ...》
 저쪽에서 말을 가로챘다.
 《화확일용품공장에 다니는 아주머니말이지요? 남편은 도송배전부에 있구요.》
 《예, 옳습니다, 옳아요. 저... 애기 병이 어떤지를 알려구...》
 《나는 접수간호원이예요. 좀 기다리세요. 가보고 오겠어요.》
 오정수는 접수간호원이 과장의 직장까지 아는걸 보니 병원엘 자주 가는 모양이거나 하고 생각을 이으며 한참이나 기다렸다. 접수간호원은 달려갔다왔는지 숨소리가 높아진 음성으로 알려주었다.
 《위경련인가봐요. 일없을거예요.》
 오정수는 마음이 놓였다. 제격 되돌아오리라 믿었던 과장은 점심종이 울릴 때까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그길로 식사하러 간 모양이었다.
 저녁때 오정수는 《작업지시표》를 다 작성했다. 아무리 따져보아야 자기로서는 더 가릴하거나 삭제할데가 없었다. 그는 선생에게 답안지를 내는 심정으로 《작업지시표》를 과장의 책상위에 내놓았다. 과장이 《작업지시표》를 검토하는동안 오정수는 책상모서리에 초조한 마음을 안고 서있었다.
 최승호는 그쫄한 이를 드러내보였다. 손바닥을 《작업지시표》에 척 붙이며 환성을 올렸다.
 《괜찮아! 괜찮단말ियो. 수고했소.》
 과장이 《괜찮아!》할 때가 제일 만족한 때이며 과 지도원들은 이런 칭찬을 듣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을 이미 들었는지라 오정수는 무척 기뻐다. 자기 책상위에 널린 기초자료를 본래대로 잘 간중그러서 과장의 책상모서리에 단정히 놓았다.
 세밀하고 간진것을 좋아하는 과장에게는 그러는 오정수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복덩이가 날아들었다고 기뻐했다. 지어 과장의 후임으로는 아주 적중하라고 여기기까지 하였다.
 이때 모자채양밀으로 고수머리가 내밀리운 허우대 큰 사나이가 들어왔다. 《산줄비행사》라 불리우는 김형국이였다. 특고압송전선의 전기를 끄지

않고 보수작업을 하는 이 특수기능공은 오늘도 큰 일 하나 제끼고 오는길이었다.
 《일을 끝냈수다.》
 《순조로왔소?》
 《글쎄, 과장동무 하라는대로 해서 일이 꼬였다가 과장동무 하라는대로 고쳐해서 일을 끝냈으니 순조로왔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소.》
 《또 비꼬는군, 하여튼 오늘 일에서 교훈을 찾아야겠소.》
 《우린 교훈을 찾고 작업종화때 나도 자기비판을 했소. 과에서도 교훈을 찾아야겠소.》
 과장은 이 사람이 또 도끼입질을 하겠군 하고 불안해하는데 아니나다를가 형국의 투박한 목소리가 채찍이 되어 과장을 후려갈겼다.
 《...<작업지시표>에는 회로구성에서 우리 산줄공들의 작업위치가 잘못 적혀졌단말ियो. 이걸 보오.》
 형국은 옷주머니에서 여러겹 접은 《작업지시표》를 꺼내어 책상위에 놓았다.
 눈을 쪼프리며 《작업지시표》를 재검토하던 최승호는 낮을 들었다. 그의 변명은 어쨌게 울리였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더니 내가 그만 비준할 때 그걸 놓쳤구만. 허허, 교훈을 찾읍시다.》
 그리고도 다시는 이 과장이 수표한 《작업지시표》에는 실수가 없으리라는 장담을 길게 늘어붙였다.
 형국은 더는 듣기 싫다는듯 말뜸이 생기자 제격 요구했다.
 《태일 <작업지시표>를 주오.》
 이 말이 떨어지자 오정수는 자기가 작성한 창조물을 두고 불안을 느꼈다. 이제 형국이가 그 어떤 결점을 발견하고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갈겨볼것만 같았다.
 과장은 종이를 내밀며 장담하였다.
 《였소. 이걸 10 점짜리요. 새 지도원동무가 작성했는데 무수정통과한거요.》
 형국은 대강 훑어보는것 같았는데 다 알았다는듯 접기 시작했다.
 《좀 간깐히 보오. 오늘과 같은 실수가 없게말ियो.》
 《간깐히 보구말구가 있겠소? 이런 일이야 절차가 있으니 그렇지 눈을 감구두 하겠소.》
 하였으나 그도 미타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펼쳐 들고 보면서 한마디 보냈다.
 《이 상선에 올라간바치고 거기서 한 댕미터 남쪽에 있는 이음개소의 전류밀도를 보장하는 작업도 해치웠으면 좋겠소.》
 과장은 오정수를 보며 물었다.
 《그 송전선에 이음개소가 있었소?》
 《없었습니다.》
 오정수는 기초자료에 그려진 도면이 눈앞에 환한지라 얼른 대답할수 있었다.
 형국은 과장의 책상위에 놓인 기초자료를 끄당겨 놓고 뒤적였다. 아무리 들춰봐야 이음개소는 없었

다. 그래도 본 기억이 났는지 고개를 기웃거리며 《있었는데 …》, 《봤는데 …》 하였다.

《그런 짐작으로 <작업지시표>를 쓸수야 없지 않소?»

과장이 비양조로 말하자 형국은 큰소리로 맞섰다. 《짐작이 아니요!》

《하, 이거 땅고집이라구야. 내가 모르는 이음개소가 있을수야 없지 않소. 그래두 설비운영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것도 모르고 앉았겠소?》

최승호는 장담하였다.

형국은 말할 재미가 없어서 《작업지시표》를 접어 옷주머니에 쑤셔넣었다.

최승호는 얼굴이 지지벌개졌다.

《후에 비판방망이를 들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오.》

《말할 재미 없수다. 장님에게 단청 설명하는격이지.》

형국은 움쭉 일어나 나가버렸다.

최승호는 화김에 담배갑을 꺼냈다가 도로 책상우에 던져버리고는 형국이가 쾅 닫는바람에 조금 되열려진 출입문을 멍청히 바라보고있었다.

《성미두…》

최승호는 새로 온 지도원앞에서 체면이 깎이는것 같아서 짐짓 태연한체하며 오정수에게 알려주었다.

《앞으로 저 동무의 말을 탓하지는 마오. 워낙 성미가 드세놔서… 하여튼 뒤는 없는 동무요.》

그러나 오정수는 형국이가 남긴 말을 귀등으로 들어버릴수가 없었다. 그가 장님에게 단청을 설명하는격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한 말 같아서 불안을 느꼈다. 어쨌든 《작업지시표》는 자기가 작성했으니만큼 그들이 한가지 일을 더 하겠다는 의견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할것이였다. 그렇지만 오정수에게는 《작업지시표》를 수정할 권한이 없었다. 예라 모르겠다. 과장의 말대로 귀등으로 들어버리면 그만이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하였으나 오정수는 인차 도리를 저었다. 그는 조용히 과장에게 제 소견을 건네보았다.

《반장동무의 말을 참고해야지 않을가요? 거기에 이음개소가 있을수도 있지 않을가요?》

최승호는 지도원이 앞뒤를 가려보고 신중하게 제기했다는것에는 상관없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동무는 기초자료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오! 난 아직 그런 무식을 빚어내본 일이 없소.》

최승호는 과장다운 위세를 돌구었다. 앞으로 형국이처럼 울리받치기만 하는 사람이 불어나는것이 싫어서 꼭 놀리버렸던것이였다.

오정수는 과장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하여 한결을 더 들어갔다.

《어쨌든 우리가 현장실태를 다 모르고 로동자들의 심정도 파악하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무식은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요? 나를 두고 하는 소리요?》

과장은 두손을 책상우에 놓고 몸을 제끼면서 엄한 시선을 던졌다. 오정수는 칼날같은 시선을 머리에 받으며 고개를 숙인채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나는 물론이고…》

오정수는 말을 잊지 못했으나 최승호는 그 뒤말에 《과장동무도…》 하는 비양이 잇달려있음을 짐작하였다. 그는 어이없이 웃었다. 인젠 이십여년을 이 사무실안에서 설비를 운영해오는 자기였다. 기술도 정황처리능력도 수완도 다 갖추었기에 일을 처리 못해서 구걸해본 일이 없던 자기였다.

《결국 나도 그렇단말이지? 차츰 지내봅시다. 날이 바뀌노라면 알게 될거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과장은 말뒤통을 달아 오금을 박았다.

《명심할것은, 동무는 우리 과의 지도원이라는 점이요.》

그 말속에는 과장을 교양하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기술지도능력이나 착실히 배우라는 속심이 숨어있었다.

오정수의 입술은 부르르 떨렸다.

(내가 알고있는 과장은 저런 사람일가? 스승처럼 믿고싶던 과장이 아닌가. 그가 프르르 번지는 말에 유혹된 나머지 그 말이 자기 태공을 감싸는 울타리 인줄을 모르고있는것이 아닐가?)

오정수의 속에서는 무수한 말들이 영글었지만 그는 입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날밤.

열시교동이 난 뒤에야 퇴근길에 오른 오정수였건만 아직도 무슨 일인가 남겨놓고 가는것 같아서 걸음이 무거웠다.

과장이 내쫓은 말,자기가 하고싶었던 말, 아귀를 짓지 못하고 과장한테 놀리우고 만 언쟁, 이 모든것들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쳤다.

오정수는 할말이 많았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어째서? 한방에서 10 년이고 20 년이고 함께 살아야 할 과장의 비위를 건드리기 싫어서 스스로 패배하고 말았다.

오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사위는 온통 어둠에 잠겼다. 다만 이 밤도 빛나는것은 별들이다. 그는 주체과학을 머리에 새기는 대학도서관에서 밤을 지낼 때마다 창너머로 저 별들을 바라보았었다. 그때 오정수는 자기를 태양을 호위하며 태양의 빛을 전하는 하늘의 별에 비겼다.

(빛 없는 별이 오늘의 내가 아닌가? 어제는 과장과 같은 동무를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다고 배운 내가 오늘은 복종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함을 보고도 묵과하는것이 과연 옳은가?)

오정수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그 어떤 죄를 지고있는것만 같았다.

한참이나 걸은 뒤에야 자기는 합숙을 지나쳤으며 지금 형국이에 집을 찾아가는 길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형국이에가 살고있는 새별동은 알고있으나 집은 모르고있었다. 큰거리에서 벗어나 골목에 들어서니 어둠은 보금자리로 가라고 떠미는것 같았다. 그는 어느 인민반장네 문도 두드리고 형체만 알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묻기도 했다. 때늦게야 동사무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니 이미 퇴근한 뒤였다.

(찾아야 한다. 그의 말을 더 들어야 한다.)

형국이가 보았다는 이음개소가 있다면 작업조직을 두번 할 필요없이 래일 다 해치울수 있다. 만약 그걸 모르고 지낸다면 예방보수를 못해서 사고가 날수도 있었다.

오정수는 배가 출출해났으나 합숙어머니가 기다리는 식탁으로 갈 생각은 껌뻑 잊어버렸다.

그가 형국이네 집을 찾았을 때는 자정이 훨씬 지나서였다. 형국이는 소설책을 읽다가 오정수를 맞이했다.

《밤에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원 천만에, 어서 들어오오.》

방안은 아주 정갈하게 꾸려져있었다. 분명 남자의 손길이 미친 가구품, 장식품들을 둘러보던 오정수는 정말 이 모든 일을 형국이와 같이 투박한 사람이 했을가 하는 의문을 품기까지 했다. 과장의 말대로라면 형국은 대식가며 성미 우직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오정수는 이 방안에서 또 하나의 다른 형국이를, 간지고 알뜰한 형국이를 보았다. 이런사람이 무엇을 잘못 보겠는가. 오정수는 먼저 물었다.

《아까 말하던 이음개소말입니다. 분명 보았습니까?》

《봤소. 나는 그 송전선에 여섯번이나 오르내렸도오.》

《그런데 어째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까짓거 가타부타 할게 있소? 래일 척 보수해놓으면 그만인걸.》

《<작업지시표> 없어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할 일을 해놓고야마는 형국이었다. 그런 형국이기때문에 더 아끼고싶고 그러기 위하여 자기와 같은 지도원, 과장, 기사장이 존재하는것이라고 오정수는 생각했다. 때문에 형국이가 《작업지시표》 없이 일하겠다는 결심에 동감을 표시할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과장에게 집에 찾아가서 토의해볼가? 그것은 아까 하던 논쟁의 반복일따름이었다.

(과장의 지시를 집행하는 일이 나의 임무 전체가 아니다. 내눈으로 보자.)

이렇게 단정한 오정수는 우췌 일어났다.

《반장동무, 267 호 송전철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오.》

《예?》

형국은 오정수가 이 밤중으로 현장을 확인하려고 일어섰음을 알자 놀랐다.

《정말 가려오?》

《가봐야겠습니다. <작업지시표>는 도루 주시오. 래일아침에 주겠습니다.》

형국은 그만 감동되었다. 이런 진취성있는 지도원이 파에 나타난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입으면서 말했다.

《같이 갑시다.》

《방향만 알려주면 찾을수 있습니다.》

오정수는 래일 《산줄비행》을 해야 할 형국이를 꼭 재우고싶었다. 그래서 옷을 입는 형국의 손을 잡

고 만류했다.

형국은 뻘뻘질에 못이 박힌 자기 손을 잡은 지도원의 손에서 부드러움이 아니라 굳센 감촉을 느끼자 놀랐다. 지도원의 손에도 못이 박히고 마디마디 매듭져있었다.

《손을 보니 일도 많이 했군요.》

오정수는 시무룩 웃어보일뿐 대학에 입학하기전에 인민군대에서 몸도 마음도 단련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난 일하지 말라는 소리를 죽으라는 소리보다 더 싫어하오. 같이 갑시다.》

두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오정수의 더운 불을 식혀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형국은 아직도 불이 환한 아파트의 한 창문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불을 안갰군.》

오정수도 쳐다보았다.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기에 의견을 내놓았다.

《올라가서 끄라고 타이틀가요?》

형국은 뜻밖에도 오정수를 놀래웠다.

《그게 과장동무네 집이랴오.》

《예?》

다음순간 오정수는 탐구심이 강한 과장이니 아직 공부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장동무는 정각 24 시면 책상우에서 내려 불을 끄고자는 기계였는데...》

형국은 이상하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아는 소리를 했다.

《아, 그렇지. 얘기가 앓는다고 했지. 퇴원한 모양이군.》

오정수는 과장의 딸이 앓는다는것은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는데 형국이도 알고있기에 그만 의아해졌다.

로동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던져줄것 같아서 그사연만은 속에 감추어두려고 했는데 형국이편에서 되려 알려주는것이였다.

《오늘 과장동무네 세살배기가 급병 나서 부인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뒤미처 과장동무가 달려가고 좀후에는 문병전화가 오고 하여튼 야단법석을 놓았도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가보았더니 위가 놀랐다는거요. 일없을거라고 했소...》

오정수는 그제야 낮에 전화를 받던 접수간호원이 형국의 안해였음을 알았다.

《내 지도원동무니 이런 말도 하지 부끄러워진단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과장동무에게는 말해야 하지 않겠소?》

《거야 어디 야박해서 말할수 있겠소? 하긴 말할 필요두 없구요. 난 아마 입이 부르트도록 말해봤지만 리론으로, 기술술어로 반박당하는바람에 당해내지 못했지요.》

오정수는 과장이 발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앉아서 허장성세를 하는 도수를 한걸음 더 깊이 깨달았

다. 아직도 이런 일꾼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말로만 되넘기고도 그럴듯한 보고로 자기를 내세우고있는것이였다. 오정수는 가슴이 아팠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이 중간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있음이 더더욱 가슴아팠다. 그럼에도 자기는 과장을 무턱대고 존경하면서 결합을 보고도 즉시 타격을 주지 않고 앞으로의 상하부관계를 고려했던 것이였다. 결코 이런 행동은 과장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립장이 아니였다. 이제와서 자기까지 두리몽실하게 지낸다면 과장은 어떤 길로 가겠는가. 돌이킬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궁극에는 로동자들의 배척을 받을것이다.

아니, 벌써 배척을 받고있었다. 그런데 오정수는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 인간은 투쟁속에서만 단련되고 완성되는것이다.

그러나 오정수는 잠시나마 그 투쟁대오에서 도피하였다. 잘못살았다. 저녁때까지만 하여도 과장의 평가를 받은 지도원으로 만족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가 사상투쟁의 용광로에서 도피한 하루였음을 느꼈다. 돌이켜보면 첫생활은 잘못 시작하였다. 이제라도 잘못 디딘길에서 발을 들어야 한다. 몇몇이 정보로 걸어야 한다.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자 어느 농장마을에 다달았고 그 마을북편을 지나서 시커멓게 수림이 우거진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튿날 아침,

최승호는 정각 8 시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형국이가 와있었다.

《어째왔소?》

《<작업지시표>를 가지러 왔소.》

《허, 덩비는 도수가 점점 깊어지는구만. 어제 준 것은 잊어버렸소?》

형국은 담배를 연방 빨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등뒤에 대고 최승호는 사실을 늘어놓았다.

《참 답답하오. 답답해. 짐작으로 주장을 내세우지 않나, 기술은 뒤로 밀고 경험만 가지고 주먹을 내휘두르지 않나, 찍하면 울리받치지 않나, 하여튼 동무는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문제있단말이요.》

형국은 불시에 몸을 돌리며 주먹으로 책상을 탕쳤다.

《그 충고는 남에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하란말이

요.》

이때 오정수가 들어왔으니말이지 험한 말이 더 오고갈번했다.

오정수는 안에서 고아대는 소리가 났으나 시간이 급하여 들어왔는지라 곧바로 과장앞에 가 서서 새로 작성한 《작업지시표》를 내놓았다. 거기엔 어제 형국이가 제기했던 이음개소보수내용이 첨가되어있었다.

최승호는 《작업지시표》를 손바닥으로 내밀면서 힐책했다.

《짐작소리를 듣고 이런 법적문건을 만들었소?》

《제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수표할수 없소. 나는 부책임자로서 책임질수 없소.》

《현실을 모르기에 말로도 책임질수 없어지는겁니다.》

《뭐라구?》

최승호는 대뜸 반말이 나갔다.

잠시 뻥뻥한 공기가 그들사이에서 배회하고있었다. 과장의 무능을 선포한 오정수의 말은 여전히 방안을 울리는듯싶었다. 끝내 참지 못한것은 형국이었다.

《수표를 하는게 어떻소. 지도원동무는 지난밤에 267 호철탑에 올라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작성한거지요.》

최승호의 눈귀와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늘 웃는듯 내보이던 그쑈한 흰 이발들도 입술에 파묻히우고 해말쑈하던 얼굴엔 검스레한 빛이 나돌았다. 《작업지시표》에 수표를 하는 그의 손도 떨리었다.

《과장동무, 오늘은 내가 이 동무들과 함께 일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오. 나도 곧 뒤따라 나가겠소.》

오정수는 형국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다. 그 하늘처럼 가슴이 탁 트임을 느낀 오정수는 이렇게 다짐하였다.

(나는 단순히 기술만을 지도하는 지도원이 아니다. 당중앙위원회편지를 관철하는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한다.)

오정수는 곧추 뻗어간 큰길우에 큰걸음을 내디디었다.

과원의 꽃속에서

구희철

해빛이 줄줄이 흘러내리니

빨강게 앵두꽃 피었소

빨강게 복숭아꽃 피었소

땅우에도 하늘가에도 꽃이 한별

가는 길 보는 하늘 꽃무늬 났소

말는 향기 싱그러워 샘처럼 들이키오

꽃필 때면 이야기도 꽃처럼 핀다오

과일나무 새새에 간작을 잘하니

난알 풍년, 과일 풍년, 마음도 풍년

꽃필 때면 웃음도 꽃처럼 핀다오

량불에 팔기물든 햇순 숙는 길너가

10월에 잔치하게 된다나

꽃필 때면 가슴속 기쁨도 핀다오

꽃속에 살고 꽃속에서 일하니

고마운 생각이 꽃처럼 피어나오

절기마다 농약을 보내주신 고마움

알맞는 트랙토르 보내주신 그 은혜

수령님 사랑이 뿌리깊이 내렸소

하늘의 해빛이 피운 꽃이 아니라오

수령님 사랑이 해빛으로 흘러서

해마다 생활은 꽃피고 열매로 맺힌다오

생활의 길동무

박유학

생활에는 흔히 어떤 거대한 영웅적인 사변도 운명적인 이야기도 진기한 사건도 아닌 그야말로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속에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여운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것이다. 나는 얼마전에 근위 3급 2 중천리마 서평양력객역 초급당비서 리복녀동무를 만나보고나서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다.

그는 1958 년 21 살의 어린 처녀로 철도부문에 들어와 오늘까지 스무해동안 안내원으로, 출표원으로, 려객지도원으로, 초급당비서로 여러 직무에서 일하고있다. 그의 외형상 인상에는 특별한것이 없었다. 그저 소박하다, 조용하다, 다정하다 하는것이 그에 대한 인상의 전부였고 그것이 특징이라고하면 특징일수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하였다. 그의 표정은 따뜻하였다. 그리고 음성은 썩 낮았다.

그는 늘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일을 손에 달고다니는 동무였다.

내가 리복녀동무를 만났을 때도 그는 자기 사무실의 한쪽 의자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노란 색실로 안내원완장을 뜨고있었다. 방안에는 중년의 두 남자가 앉아있었다. 한사람은 의사였고 또 한사람은 어느 기업소의 지배인이었다. 의사는 리복녀동무에게 《림상의학독본》을 넘겨주었고 지배인은 어느 녀성의 소식을 전하고있었다.

의사와 지배인은 방안에서 낮을 익힌 모양이었다. 그들은 서로 사양하며 담배불을 붙였다.

복녀동무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고 기뻐하였으며 즐거움이 함뿍 어린 웃는 얼굴로 의사와 나를 가끔 쳐다보았다.

《아홉해나 지났군요.》

《벌써 아이 셋입니다. 사내애 하나에 체네가 둘이지요.》

《한번 오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애들 사진을 보내줬다구 합니다.》

《가시거든 여기 녀쿨장미가 무성하다구...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자 지배인은 문득 생각난듯이 무릎을 철썩쳤다.

《이 정신 보지, 지금두 비서동무 콩나물 기르는 솜씨가 여전한가구... 묻습니다.》

복녀동무는 어쭙게 웃으며 나를 건너다보았다.

《떠나실 때 한번 들리시겠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시간이 없어하는 표정이었다. 복녀동무는 뜨고있던 완장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고있는 지배인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는 어딘가 좀 섭섭한 얼굴로 지배인을 문밖에까지 배려워주었다.

지배인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의사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무시무시하고 뜻밖의것이였다. 그는 사람의 심장이 갑자기 멎는것이 대개 밤 1 시부터 3 시사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신경이 잠들기 말기 하고 육체적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때 심장의 박동과 순환계통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의사는 며칠전에 심장이 나쁜 사람과 우연히 한 려관방에서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자기가 만약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었을것이라고 하였다.

복녀동무는 공포와 감동과 존경이 함께 어린 눈으로 의사의 그 진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때의 구급처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의사는 설명하고 복녀동무는 간단간단히 요점을 적었다. 절실히 필요한 이야기인것 같았다. 말이 끝났을 때 두사람 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몇대째 담배를 갈아붙였다. 나는 말없이 그에게 불을 켜주었고 그는 은연중 구면처럼 되어버린 나에게 사양없이 대하였다. 의사는 자기의 직업분야에 관심이 큰 사람이였다. 그는 역대기실과 같은 집합장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으로구들을 거듭 설명하고나서 떠나갔다.

《구역담당의사인가요?》

나는 은근한 호기심이 북받쳐 물었다.

《손님이지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다오다 들리곤하는 차손님들이예요.》

《가다오다 들리곤하는? ...》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더 흥미있는 일이다. 방금 있는 이야기는 가다오다 차손님이 한담격으로 들려준 범상한 이야기가 아니였다. 그는 보매 바쁜 사람이였고 관심이 큰 일꾼이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는 이야기를 더 진척시켜나갈수가 없었다. 려객지도원이 헬레벌떡 사무실에 뛰어든것이다.

《비서동지, 저 강동에서 길동이 어머니가 왔어요.》

《아니, 길동이 어머니가?》

복녀동무는 바람같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당에

서 왁작하니 떠들며 돌아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종이 한시간동안이나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었다. 책상우에는 복너동무가 정성스레 수놓고있는 안내원완장이 놓여있었다. 이윽고 얼굴이 환히 밝아진 복너동무가 들어섰다.

《역에서 일하느라면 별의별 기쁜 일이 다 있겠지요.》

복너동무는 열한해전에 역일군들의 도움으로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였다. 펍 드물게나마 대기실에서나 열차에서는 뜻밖의 일이 있을 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전에 역일군들은 산모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역의 초급당비서인 복너동무는 조산원기술을 배워두었고 강동의 그 행복한 어머니의 첫 방조자로 된것이다.

복너동무는 역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건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일을 알자면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방금전 복너동무에게 심장이 나쁜 환자의 간단한 구급처치법을 배워주고 간 의사도 이런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사람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애착은 스스로 그를 도우려는 술한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는것이다.

나는 복너동무에게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더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것을 요구하였다.

복너동무는 갑자기 무엇인가 잘 이해가 안가는듯한 표정이더니 이내 눈웃음을 지었다.

《우리 동무들을 다 만나시지 못했어요? 취재가 잘 안되어요?》

나에게 무슨 불편이라도 있었는가 걱정하는 빛이었다. 원 천만에! 무슨 불편이 있었겠는가, 나는 이 역에 이틀째 나와 살고있다. 초급당에서 말해준 대상들은 물론 그외에도 여러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초기계획은 객지도원과 안내원들을 만나 역일군들의 봉사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돌아갈 작정이였다. 그러나 나는 취재과정에 이 역의 모든 일군들, 역장도 안내원도 출표원도 화물원도 객지도원도 그리고 운전지휘원까지 자기네 당비서, 복너동무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류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30 년동안 철도에서 일하고있는 역장동무는 나에게 슬그머니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 비서동무를 만나보셨어요? 아니 왜 좀 만나보시지요. 술한 이야기를 들을거예요. 세상에 우리 비서동무처럼 손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늘 바쁘지요. 비서도 나도 우리 역도 다 바빠

요.》

가벼운 책망과도 같은 유쾌한 자랑이 나를 무척 즐겁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즉시 비서부터 취재할 생각은 못가졌었다. 나는 안내원과 화물원과 객지도원을 만났다.

올해 스무살인 대기실안내원 리순옥은 손퐁금의 명수였다. 그는 대기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배워주고있었다. 그가 손퐁금을 들고 대기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일시에 설레며 《왔다!》하는 반가움을 금치 못하였다.

손님들에게는 그가 어느덧 구면이거나 첫 인상에서부터 마음이 끌리는 친밀감을 받은것이 틀림없었다. 초급당비서가 《리순옥동무가... 우리 순옥이가》하며 자랑을 한것이 까닭이 없지 않았다. 나는 이 처녀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손님들이 떠나간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손퐁금의 건반들을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꼬집어내었다.

처녀는 생기있고 명랑하고 명리하였다.

《기자동지, 저를 취재하려는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곧이곧대로 표현하는것밖에 배우지 못한 처녀는 좀 어처구니 없어하며 말했다,

《제가 손퐁금을 배운것은 1 년밖에 안되여요. 중학교때 손퐁금을 배우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 비서동지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명수예요. 저를 한해동안 저녁마다 회관에 가서 손퐁금을 배우게 했답니다. 그동안 대기실일은 비서동지가 해주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건들 건들 살수가 있겠나요.》

역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출표구의 한 안내원은 눈에 가득히 걱정을 담고 나에게 실토하였다.

《저는 첫날부터 비서동지앞에서 못되게 굴었어요. 기자동지 보기에두 제가 일해낼것 같지 못하지요? 저는 두고두고 미움을 받을거예요.》

나의 취재계획은 결국 달라지고말았다. 어쩔수없이 초급당비서 리복너동무를 취재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그에게 다 설명해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난 참 짜증난답니다.》

복너동무는 문득 바늘이 달려있는 안내원완장을 꺼서 손으로 쓸어보며 가벼운 화풀이를 하였다.

《기자동무가 오니 보세요. 수놓이가 잘 안되지요. 이걸 영낙없는 락제예요.》

복너동무는 안내원완장을 자기 팔에 둘러보았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마음싸하지 않았다.

나는 그 완장이 어디 경기여라도 출전하는것인가고 룡담으로 물었다.

《차라리 그렇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새로 들어온 안내원이 한명 있어요. 참 귀엽게 생긴

처녀예요. 옷매무새랑 나무랄데 없는 동무랍니다. 이 완장을 두르라고 하면 퇴짜를 놓겠지요? 안그렇가요?》

나는 복녀동무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실밥을 물어뜯으며 손바닥으로 부픈 부분을 다독다독 두드리기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완장을 꾸며가고 있는것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처녀는 당비서에게 버릇없이 군일로 미움을 받을가봐 마음을 쓰고있지만 당비서는 처녀가 완장을 받지 않을가봐 오히려 걱정하고있는것이다.

얼마나 너그럽고 소박하고 진정이 울리는 당비서인가!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얹히는 동지적사랑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구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수령님께서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고 하시였다.

나는 문득 졸전에 스쳐지나버린 그 지배인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다.

《비서동무, 실례이지만 아까 그 지배인은 누구니까? 녀쿨장미는 또 어떻게 된것이고?...》

복녀동무는 갑자기 무슨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그것 말이지요.》 하고는 천천히 눈길을 떨구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그리운 감회가 어리는듯하였고 책상우를 더듬는 손길은 무엇인가를 다정히 추억하고있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우리 서평양역이 녀성역으로 되자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자고 동무들을 꺾기하여 이 역을 꾸린 동무랍니다. 그때는 이 역이 진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남아있었겠나요. 그렇지만 녀성들 힘으로 끝내 해내었지요. 차츰 전국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봉사성 높은 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지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녀성들을 믿으시고 이 역을 맡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고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었으며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었어요. 그 동무는 지금 남편을 따라 다른곳에 가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소식을 전하며 련계를 맺고있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충성스럽게 살며 그이께 언제나 기쁨을 드리는 크나큰 영광속에 살자고 서로 고무하며 이끌어주며 밀어주고있지요. 그 동무는 2 중천리마작업반장인데 얼마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네 공장에 모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영예까지 지녔답니다. 지배인동무는 바로 그 동무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지요. 잊을수 없는 동무랍니다.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저 창밖의 녀쿨장미두 바로 그 동무가 수백리밖에서 떠다 심은거랍니다.》

복녀동무는 지금 함께 일하고있는 역무원들뿐 아니라 이 역에서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로, 인편으로 생활을 나누고있으며 오늘도 그들의 당비서로 일하고있는것이다.

나는 밤이 깊도록 복녀동무와 마주앉아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토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가 자기 사람들을 아끼며 존경하며 깊이 신뢰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된 사람들의 집단을 조직하고 이끌고 부단히 넓혀가고있다는것을 뜨겁게 리해하였다.

밤깊어 이야기가 끝났으나 나는 돌아가고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어느덧 이 행복하고 단란하고 의좋은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된듯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리고 기자로서 이 자리에 와있다는 그러한 생각조차 다 잊고있었다. 나는 무엇이건 그들을 도와주고싶었고 그들의 도움마저 받고싶은 간절한 생각에 북받쳤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때의 나의 심정은 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열렬히 뜨겁게 고동치는 사람들속에서 일생을 영원히 함께 살고싶었다. 아니, 나는 벌써 그들의 생활속에 살고있었다. 마치 당비서를 찾아왔던 그 의사나 지배인과 같이...

이제 날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을 알고 이 집단의 당비서를 알며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뭉쳐가게 될것이다.

나는 한없이 경건하고 숭엄해지는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공들과 함께 궁지높이 부르짖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조국에는 어디 가나 이런 충성스런 집단의 이야기가 있을것이라고...

그렇다,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모습이다! 이것은 행복한 우리의 생활이다.

높이 들자 자력갱생의 붉은 기치

오필천

이 땅의 아침은 아침마다
대발파의 메아리로 밝아오고
이 땅의 날과 날은
위훈의 노래로 차흐른다

끓으며 솟구치며 내닫는
총진군의 전선마다에
끝없는 열정과 용맹을 부르며
장엄하게 나래치는
자력갱생의 붉은 기치여

백두의 설한봉을 헤쳐넘어
복구의 준엄한 언덕을 넘어
혁명의 한길에 휘날려온 이 기발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장엄한 새 7개년의 진군길우에
힘차게 휘날린다

조선혁명의 첫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 높이 추켜드신 이 기치
간고하고 준엄했던 년대들을
승리로 아로새겨온 불멸의 기치여

혁명의 선혈이 젖어있고
창조의 땀이 젖어있어
그래서 목숨처럼 귀중하고
그래서 더욱 높이 추켜드는
영원한 혁명기치여
이 기치를 휘날리며 우리는 오늘에 왔고
이 기치 휘날리며 우리 자랐거니

해뜨는 동해선 천리에
우리 손으로 안아일으킨
공업화의 철탑들이 숲으로 설레이어
가슴은 이리도 궁지에 넘치고

서해선 굽이 많은 천리길에
우리 힘으로 안아일으킨
기계바다가 가없이 물결쳐
가슴은 혁명의 자부심으로 넘치여라

우리의 신념이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어 솟아올랐기에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의 공업이여,
지구를 말리우며 지구를 열구며
한랭전선이 휘몰아쳐와도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는
우리의 주체농법이여

노래하라 조국이여
설레이라 강산이여
우리의 가슴엔 얼마나 크나큰
혁명가의 자부심이 넘치고
공산주의자의 궁지가
차고넘치는것인가

혁명도
건설도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 우리 혁명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조국을
떠밀며 꽃피워온
혁명가의 참된 자세로
공산주의자의 완강한 의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거니

아, 기나긴 혁명의 반세기에
투쟁과 함께 시작되고
투쟁속에서 진리로 밝혀진
조선의 이 길!
조선의 이 신념!

혁명가의 삶으로
조선공산주의자의 신념으로
우리는 맹세한다
조국이여, 그대 이 땅우에 펼쳐든
웅대한 새 7개년의 설계도를 찬란히 꽃피우며
당중앙위원회편지의 힘찬 호소따라
우리의 이 신념 이 영예를
더더욱 빛내일것을!

행복의 열쇠를 틀어준 우리에게
승리의 장검을 거머쥔 우리에게
산악인들 두렵고 풍랑인들 못넘으랴
우리의 심장엔

시련을 헤쳐넘은 백두의 정신이 뚫고
세월을 비약한 천리마의 기상이 높뛰고
대건설의 불바람속에 솟아오른
속도전의 기백이 나래치거니

푸른 들 푸른 바다
석탄의 메부리 쇠돌의 메부리
새 7개년의 금빛 찬연한 10대 봉우리를
조국땅 하늘가에 세우며
천리라도 만리라도 뚫고 헤쳐날으리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내 조국을 온 누리에 다시 한번 떨치리!

행복한 날에는
더 큰 행복을 위하여
간고한 날에는

더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조선의 기치 영광의 기치

아, 승리한 우리의 노래를 안고
가야 할 창창한 미래를 안고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휘날리는
자력갱생의 붉은 기치여!

우리는 높이 추켜든다!
혁명가의 영원한 자세로
조선공산주의자의 영원한 공지로
이 기발 높이는 우리보다
존엄에 차고 영광에 넘친 인민은
세상에 없으리라!

농장의 여름밤에

서진명

땀별아래 자양분을 빨아들이더니
이 밤도 줄기를 살찌우고 잎새를 퍼는가
벼포기들 아지치며 키를 솟구고
길길이 자란 강냉이숲 스적이누나

이 밤이 좋아 중천에 달을 띄우고
터놓고 할말이 있다 나를 부른듯
논밭이 흥치며 설레이는 소리
못견딜 기쁨되어 이 가슴 흔드누나

한낮에 이삭비료 안겨준만큼
포기마다 알비료 나누어준만큼
곡식 크는 소리 더욱 커져서
가슴에 젖어드는 이 좋은 밤

작황이 좋은만큼 일욕심 부푸누나
먹성이 한창 좋아진 때라
풍족히 준 비료도 모자랄것만 같아
한낮의 불별아래 못다쏟은 땀

서늘한 이 밤에 흠뻑 흘리고싶구나

논고물 돌아보며 논두렁을 걸으면
더기의 강냉이밭이 긴팔을 흔들고
구름새로 보름달 은실금실 드리우면
푸른빛 한껏 짙은 논밭이
금시 시누런 낱알더미에 묻힐듯

날뵈으면 포기마다 안겨줄 덧비료
포전머리에 실어낸 밤도 깊은 밤
그래도 발길을 뗄수 없구나
곡식들이 설레니
마음도 더없이 설레이어서...

아, 달은 벌써 하늘중천을 날으고 밤은 깊었건만
곡식 자라는 기쁨에 취해 사는 마음
고요속에 이 한밤이 더없이 좋구나!
높아지는 날가리에 풍작의 기쁨 떠실고
마주오는 가을의 발자국소리 들려와서...

신천땅에 눈보라 운다 외 1 편

김수남

새움이 트고
잔디 푸른 언덕

런꽃봉을 묵묵히 내리는
내 가슴엔 때아닌 눈보라 인다

봄빛은 대지우에 넘치고
 웃음은 꽃으로 저 창문들에 활짝 피는데
 어이하여 이 가슴엔
 눈보라 세차게 울부짖는가

종다리 우짖는 파아란 하늘과
 봄꽃이 미소짓는 정다운 산천
 트랙토르 은빛보습이 갈아번지는
 저 기름진 땅 사래긴 이랑...
 이 땅을 두고 그들은 갔다
 봄같이 새벽에 곱게 피던 노을이며
 저녁이면 찾아가던 성인학교 불빛이
 한없이 그리운 마지막 길 걸어갔다

천백배의 복수를 부탁하며
 눈길우에 찍어간 맨발자국들
 한 목숨은 죽어도 이 땅에 영원할
 삶과 미래를 지켜 일떠섰던 사람들
 그들의 노한 함성인양 울부짖던 눈보라
 젖먹이 어린것을 업고
 철쇄에 묶이운채 곳곳이 걸어간 사람들
 어머니의 치마자락 꼭 잡은 아이

종종걸음 다그치다 벗어진채 두고 간
 아, 고 작은 고무신짝에 울던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오늘도 이 가슴에 서리발을 날린다
 불러보아 누구 하나 대답없는 합장표여
 바라보아 가슴저린 원암리 화약고여
 것처럼 어진 가슴들에서
 것처럼 천진한 가슴들에서
 저 푸른 봄하늘과 행복한 삶의 노래를 앗아간
 미제야수들의 낫찍이 얼른거린다

오! 눈보라 눈보라
 새움이 뜬 가지들은 푸르려 가고
 봄바람은 따사로이 꽃망울을 터쳐도
 이 가슴엔 눈보라 운다
 천만심장들을 복수의 불길로 달구며
 신천땅에 눈보라운다

오오! 눈보라 눈보라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복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풀수 없는 피로 맺힌 이 원한
 온 천지를 꽉 채우는 분노의 웨침이여!

이 침묵 러치리

신천박물관 층계를 내리는
 굳어진 얼굴들
 틀어진 주먹은 무쇠덩이
 침묵이 서린 가슴은 불덩이
 한계단 내려서면
 채찍이 우는 소리 저려오고
 또 한계단 내려서면
 석당교의 원한이 사무쳐오고...

아, 그날에
 생죽음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웨침소리가
 가슴속에 회오리친다

말로 어이 그 원한을 다 풀라
 말로 어이 그 분노를 다 하라
 침묵은 모질게 가슴을 찢고
 침묵은 세차게 심장을 치고...

그 모든 원한과 분노가
 화약으로 다져지고 굳어진다
 천백배의 무자비한 복수로
 가슴에 서리고 강토에 서린 이 침묵

오오! 이 침묵 터지는 날에
 세계는 미제의 마지막 비명을 들으리라

선반기는 돌고, 세월은 흐르고...

차영도

별들이 조용히 미소하는 밤...

선반기는 돌고

소재는 또다시 바뀌우고...

이 밤은 아들이

로동의 첫 창조물을 당에 드리는 밤

아들은 깎고

아버지는 지켜보고...

서늘한 구내바람이

어디선가 백양나무 햇순을

정겹게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좋은 밤이구나 이런 밤은

름름히 자란 아들이

어느덧 아버지의 기대결에 다가선 이런 밤은

세월은 언제 벌써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듯 나란히 세워준것인가

별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는 밤

아버지는 이 밤 아들에게

무엇을 말없이 넘겨주는것인가

밤깊도록...

밤깊도록...

주름많은 얼굴,

근엄한 눈빛,

로동의 한생을 당과 함께

이 선반기앞에서 쇠를 깎아온 아버지

선반기에 물린 작은 소재 하나라도

그것이 당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어주길 바라며

보석처럼 다듬고 또 다듬어온 아버지

땀젖은 로동의 허구한 나날

무쇠를 깎던 억센 주먹으로

당을 억년반들어갈 굳은 속대를 버리었고

미리를 다투는 엄격한 로동의 습관으로

당의 뜻을 받드는 마음속에

조그마한 빈구석도 허용치 않은 아버지

그는 이 밤

당에 바칠 아들의 첫 창조물을

자기의 손

자기의 눈

자기의 심장으로

만져보고 재여보고 검열한다

아, 이 나라 머리 흰 아버지들은

얼마나 뜨거운 가슴들에

계급의 아들들을 껴안는것인가

얼마나 드팀없는 충성의 자리에

계급의 후대들을 세워주는것인가

이런 밤들에 ...

이런 밤들에 ...

아들에게 피줄만을 넘겨주는것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계급의 심장을 정신을

성실한 로동으로 당을 섬겨온 한생을

한마음 당을 따라 변함없는 그 걸음새를

그 모두 넘겨주는 밤이여, 깊어가는 밤이여!

선반기는 돌고

소재는 또다시 바뀌우고...

무궁한 세월은 흐르고

혁명의 세대는 이렇게 이어지고...

그날의 바다기슭에서

문성락

진주물결 쉬임없이 기슭에 부서지는
고향의 바다가에 나는 섰다
기쁨이 끝없이 설레이는 바다우에
희망의 나래 활짝 편 갈매기야

해당화 붉게 타는 여기 백사장에서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 너를 바라보니
진정 잊을수 없구나
왜정세월 그 모진 나날
이 기슭에 설음 많던 어린시절을...

악귀같은 선주놈의 등살에 떠밀려
풍랑이 밀려드는 바다에
아버지가 고기잡이 나갈제
기우는 돛대를 빙빙 에돌며 날아들며
파도속의 운명을 걱정하는 네 마음
그리도 어린 가슴 울려주더니

그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너만이, 너만이 포구에 돌아와
차마 말 못할 비보를 전해줄제
아, 심장벽을 두드리는 파도소리, 파도소리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치며
타는 가슴 진정할길 없는 어머니

모진 마음 물굽이 벼랑가에 세운
어머니의 치마자락 붙잡고 흐느끼게
그리고 내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걸음걸음 몇번이고 돌아다보며
나서자란 이 기슭을 차마 뜨지 못할제
갈매기, 너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
결별의 아픈 마음에
울분으로 마디마디 찢어지지 않았더라

아, 오늘은 내가 왔다

그날 배군의 아들이 초소의 지휘관이 되어
고향의 정든 포구에 왔다
몇 해만이나, 사랑스런 바다의 새야
너도 나를 반겨 춤을 추는가

만선기 휘날리는 기계배 따라
배전을 감돌며 파도 스쳐 날으며
제먼저 기쁜 소식 전해주려는듯
포구에 빙빙 날아도는 고향의 새야!

그전날 검은 구름 파도 거칠던 이 바다
맨발로 모래밭, 조개껍질 밟으며
노호하는 먼 바다, 수평선 저 멀리
아버지를 바래올적에
눈물이 앞서 하늘도, 바다도 보이지 않고
그 어데선가 네 울음소리만 울려오더니

오늘은 그날의 눈물스민 바다가
초라한 오막살이 사라진 포구에
벽체 하얀 문화주택 창문마다 웃어반기고
나의 어린 발자국 찍힌 도래굽이에
야영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햇빛아래
행복의 노래속에 들려오는 네 울음소리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로 이 가슴 적시거니

나는 지금 백사장에 서서
지나간 소년시절을 돌이켜보며
네 노래속에서 계급의 영원한 당부를 듣는다
고향의 기슭을 멀리 떠나
조국의 한복판 그 어느 산중에 선다 해도
그날의 파도소리를 잊지 말라는
행복의 요람속에 나날이 깊어 파문힐수록
운명의 쪽배 파도우에 흔들리던
그날의 바다기슭을 언제나 생각하라는...

전사의 심장은 노래한다

정동찬

전사의 심장은 노래한다

내 심장은 노래하노라
산중초소의 새벽창을 열어젖힐 때
고요히 날리는 흰 문장속에
함께 부풀어오르는 생각
《혁명-청춘》 《투쟁-희망》을
추가목을 그리안으며 노래하노라

내 심장은 기뻐하노라
초소에 날아온 한장의 편지
고향집 막내가 돌격대에서
화선입당한 소식을 두고
30년 만근표창을 받은 아버지의 소식을 두고
내 가슴속에 어느덧 기쁨이 어리는것을

내 심장은 아프노라
저녁점검후 전사들의 잠을 지켜볼 때
한점이라도 떨어진 신대원의 사격술을 놓고
물과 공기처럼 은혜를 받고 살며
응석을 채 버리지 못한 전사를 때로 만날 때
내 만형구실을 쓰게 못한것을 두고

내 심장은 증오하노라
분계선 가시철망에
온몸뚱이 가로세로 찢겨져보이는
미제침략자들을
멸적의 섬광 번개쳐가는 조준선우에

숨통 꺾질러놓은 계급의 온갖 원썩들을

당이 준 전사의 심장이여
홀로 떨어진 적구의 밀림일수록
폭탄이 터지는 결전장일수록
그 누가 나를 다쳐도
탕탕 쇠소리나게 살리니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내 심장 충성의 불도가니가 되어
수천수만자루의 총창을 달구고 버려내리라
침략자 미제의 마지막 목을 베일 때까지

피방울이 튀고
맥박이 울린다
한점한점 ...
영생의 길로 전사의 삶이 흘러가는 소리
한초한초...
아, 전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혁명의 흐름에 피를 바칠줄 모르는
그런 심장이야
길바닥에 돌덩이
오, 조국과 더불어 숨쉬는
전사의 심장!
이런 심장을 우리는 지니고 산다

달밤의 옥류교에서

달밤의 은하수 대동강에 내렸는가
물길따라 오르던 흰갈매기 나래렸는가
옥류교여

나의 수도 나의 고향이여
후방견학길에 다시 오르니 생각도 많아라
옥류교여, 새벽마다 출근길에 나를 건녀여주었지
몇해전 달밤 초소길에 나를 길잡아주었지

그날밤 옥류교 마지막 란간에서
호송군관은 나직이 말해주었더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수도의 밤을
잘 기억하라고

수도여, 낮익은 밤교대자들이여
푸른 불꽃 날리며 손을 짓는 건설자들이여
그대들의 더운 손에서 용접봉을 넘겨받던 교대자
오늘은 최전연 병사로 인사를 보내노라

멀고먼 산중초소의 수풀속에서 이슬을 마실 때
총창 빛나는 어깨너머
류달리 밝은 빛 없혀있는 북쪽하늘 손짓하며
수도의 이 상공에
언제나 변함없는 전사의 맹세를 띄우며 살았노라

다시 이 란간에 서니
내 들으며 자란 대동강 물소리
한없이 정답구나

고요한 강반 준첩선 불빛아래서
잠 못드는 젊은 선원과도 이야기 나누고싶노라

몇해만에 다시 보는 초병앞에
인민의 행복을 엮어놓는 거리의 불빛이여
영원한 행복을 나와 약속하는 강기슭 창문들이여
조국수호의 결심 어리는 내 눈빛속에
몇굽으로 더하여 비쳐오는
조국의 아름다움이여!

오, 결전의 언덕에서
내 군모채양밑에 비껴올 조국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라

준엄한 생각이 깊어갈수록
놓고싶지 않은 이 란간
이야기하고싶은 저 사람들...
전사는 누구보다 아름답게 본 조국을 안고살기에
누구보다 청춘을 빛내일줄 아노라

이 땅에 창조물이 많은 그만큼

한낮에 보초막을 스쳐
열핏 봄비소리 지나가도
나의 걱정은 줄담음쳐간다
언젠가 돌격대원시절
어깨가 쓰러도록 저울린 흙무지
먼 북방의 그 저수지언제를

벌써 가무는 철이 오는가
메마른 바람 철갑모를 스쳐도
내 마음 물새처럼 구름을 달고 난다
중학생시절에 이른봄을 보낸
서해의 그 나지막한 산판으로
뿌리를 갓 내린 어린 나무숲을 걱정하며
이른새벽 《애국가》소리 들으며

샘골 초소길에서 산마루 중대로 오를 때도
로동청년시절 내 용접이음줄을 녹여붙이며
태양 제일 가까운곳에 내 철탑을 세운다고
수평선 멀리 소리쳐보던 랑만의 시절을 잊지
못하노라

진정 우리의 피땀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성실한 로동일로 쌓은 창조물에
만약 침략자들이 불질한다고 생각하라
용서할수 있는가
참을수 없다

오, 그때면
사회주의조국의 창조물에 불질하는 원썬들을
추호도 용서못할 계급의 분노

그 누구의 가슴속에서 제일 강하게 터질것이나
동지들이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노라
이 땅에 창조물이 많은 그 사람

보통일에도 걱정 많고 안타깝게 뛰는
바로 그 전사의 심장속에서
뜨겁고 진실한 조국애의 불길이 타번져오르리라.

전사의 집

보초소 초막에 비방울 새여도 좋다
나는 조국의 비물을 달게 마시며 혁명한다
술숯을 뒤번지며 전호속에 바람 불어도 좋다
나는 조국의 바람을 군복자락속에 안는다

내 총창끝에 받들린 저 하늘
불붙지도 무너질줄도 모르는 전사의 지붕
내 가슴 맞대이는 땅 어디나
전사를 따스히 맞아들이는 아래목

조국을 위하여 한지에서 살며
우거진 숲속에, 차디찬 눈구덩이속에
잠시 꾸러진 전사의 집문은
그 언제나 돌격선을 향하여 열려있어라

전사의 집 알뜰한 꾸림새는
잘 위장된 전호와 전호벽의 발흠
전사의 집 맞춤형 터전은
원썩들을 향하여 일격에 명중탄 퍼부을수 있는곳

오, 전사는 나사자란 고향집
할아버지 손때묻은 고향집 울타리로부터
조국의 넓은 마당에 달려나왔다
전사의 집은 조국!

전사의 집 울타리는 조국의 해안선!

애솔나무 한그루도
여기에 푸른 숲이 되라고 심는다
꽃나무 한뿌리도
여기에 아름다우라고 옮겨심는다

조국의 집 문어귀에서
전사는 조국의 아들로 산다
오, 조국의 푸른 해안선
전사의 집 울타리결에서
충실한 전사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각을
마중하고있노라

새세대는 무엇을 넘겨받는가

조국에 또 하루
창조와 수호의 날이 저물어간다
위훈으로 빛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혁명의 세대가 바뀐다

저기 강선의 붉은 하늘아래
전기로에서 한창 쇠물이 끓을 때

가슴속에서 분노를 함께 끓여내는가
전선을 탄원하던 그날의 모래불에 남기는
나많은 로장의 무거운 발자욱소리에서
따라서는 새세대 젊은 로장은
무엇을 듣고있는가

노을비긴 저 발머리에서
농장의 새 주인 처녀분조장을 불러세운다
그러줘는 한줌 흙에서
새세대는 무엇을 보고있는가

앞선 세대여, 기뻐하라
얼마나 미더운 발자욱들이 그대들의 뒤를
따라섰는가
얼마나 꿈많은 눈동자들이 그대들의 미래를
쳐다보고있는가
우리는 땀에 젖은 어머니들의 잔등에 업힌채
파편조각에 마주치는 삽소리를 들으며
준엄한 일터에서 철이 들었다

이른새벽에 저물녘마다
갓 생겨난 협동농장 포탄까지 종소리에 자고깨며
첫걸음마를 땀다
새별 이고 마당에 들어서는
아버지들의 어깨우에 목마를 랐다

우리는 생각하노라
파도가 진주를 뿌리는 백사장
바다가를 몇걸음 앞에 두고서도
재가루 날리는 구내길에서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아버지들의 로동일을 생각하노라

향기로운 꽃밭속을 거닐 때보다
쇠소리 메아리치는 철골숲속에서
더 가슴 벅차고 신선함을 느끼던
그날의 로동정신을 배우노라
아 앞선 세대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 넘겨받는 혁명의 재부를
어떻게 마련할수 있었으랴

준엄한 세월이 흐른다
혁명의 세대가 바뀐다
우리는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아래

우리 인민이 이룩한 소중한 그 모든것
화려한 도시와 꽃피는 농장의 대지
배움의 넓은 문과 은혜로운 보건의 혜택과 함께
넘겨받으리라

아름다운 도시의 땅속에
붉고푸른 불빛속에 어울려 흐르는 강물속에
간고한 시련을 뚫고 박아놓은 주춧돌을
보이지 않는 교각의 밑뿌리를
만년초석을 고이며 키워낸
계급의 의지를
주체의 해빛아래 가꾸어낸 락원을
넘겨받으리라!

넘겨받으리라
우리 계급의 성실한 로동일을
통이 큰 일감을 베고 쪽잠에 드는 버릇을
가슴이 커지도록 새벽공기를 마시며
철탑끝에서 모자를 벗어 흔드는
그 장쾌함을

당보의 사설에 힘있게 박아쓰는
소박하고 힘있고 뚜렷한 계급의 언어를
오늘의 소비보다 래일의 축적에 더 보탬줄 아는
전투적인 살림살이를 넘겨받으리라!
아, 높이 들고 싸우다 죽어도 영광인
혁명의 기발
계급의 기발을 넘겨받으리라!

준엄한 세월이 흐른다
혁명의 세대가 바뀐다

앞서 걷는 세대
따라서는 새세대
심장에서 심장으로
주체형의 붉은 피 여울쳐오는 소리
승엄한 눈길들이 마주치고
불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오, 조선에서
혁명의 역센 대가 이어지고있다

한마음

림재성

책상우에서 어룡거리던 아침해빛이 어느새 선숙의 어깨로 뛰어와 재롱을 부리었다. 그러나 모든것을 잊은듯 동그스름한 턱을 한손으로 고인 그는 여전히 그림처럼 앉아있었다. 가끔 무엇에 소스라쳐 놀라듯 허둥거리는 눈길은 책상우에 있는 두장의 문건을 번갈아 더듬었다. 하나는 꺾꺾 박아쓴 상점점장의 신소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이 정거장의 어제까지의 화물수송계획실행정형을 분석한 통계표였다.

빨간색으로 두줄이나 밑줄을 그은 그 통계표의 맨 밑단에는 화물수송계획을 105.3%로 넘쳐 수행하였다는 정확한 수자가 기록되어있었다. 수자에 무척 밝고 매사에 약삭바른 화물지도원 현군수가 직접 계산을 돌리라며 만들었다는 통계표는 사실상 나무랄데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선숙이가 그 통계표를 나무랄데 없다고 생각한것은 먼 림산마을의 한 상점 점장이 보내온 신소편지를 받기전까지의 일이다.

선숙이는 무릎우에 올려놓았던 한 손을 힘겨우게 들어 편지를 집어들었다. 벌써 세번씩이나 읽어 단어의 배열순위와 반침이 틀린곳까지 눈에 익은 편지였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보내주기로 되어있는 독은 계약량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였습시다. 소조원동무!》

벌방에서는 아직 비웃이 한창인데 해발고가 천수백을 헤아리는 림산마을은 벌써 눈꽃이 날린다는 점장의 하소연은 참으로 절절한것이였다.

선숙이는 마음이 언짢아 계속해서 읽을수 없었다. 편지에 씌여진 그 투박한 글자들이 낮모르는 점장의 성난 얼굴로 보이는가 하면 독을 기다리는 주부들의 질책어린 목소리로 되어 들리기도 하였다.

독을 기다리는 사람들중에는 세간을 난 만아들의 김장을 근심하는 어머니도 있을것이고 신접살림을 꾸린 신혼부부도 있을것이다. 그런 사정은 모르고 수송계획을 넘쳐한다고 기뻐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제밤이였다. 환절기마다 변동되군하는 운행표를 익히고있는데 역장 전진국과 현군수 화물지도원이 찾아왔다. 둘다 훈기가 도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있었다.

《소조원동무가 잘 도와줘서 일이 쭉쭉 퍼나갑니다.》

전진국이 통계표 하나를 선숙이 앞에 밀어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선숙이는 귀밑이 달아오는것을 느끼며 통계표를

들여다보았다. 빠득하게 달리던 계획수행비율이 하순에 들어서면서 머리를 시원스레 쳐들었다. 지표전반이 낙관적이다. 화물수송계획은 물론 화차의 리용지표까지 끌고루 계획을 수행하고있는것이다.

맞대놓고 들은 칭찬으로 하여 어색하던 선숙의 기분은 대번에 밝아지고 깨끗한 그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혈조가 한가닥 피여올랐다. 이것은 3 대혁명소조원인 선숙이가 이 기술역에 와서 거둔 첫 성과이기도 했다.

...선숙이는 두달전에 기사자격증을 받았다. 교문을 나선 그는 정서와 랑만이 넘쳐흐르는 잠퐁한 숲이 아니라 수리개처럼 대뜸 하늘높이에서 날아야 했다. 우라 시대의 최첨단을 달려야 할 혁명의 전위-3 대혁명소조원이 되었던것이다. 영예가 클수록 어깨에 실린 짐의 무게도 컸다. 더우기 그가 사업하게 된 이 분기역은 5분에 한개 렬차씩 운행하는 중심역이였다.

선숙이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달라붙었다. 교대시간이 되면 언제나 밝은 그의 얼굴은 전철원들과 상하차공들앞에서 볼수 있었다. 푸른 머리수건에 보위색 작업복은 탄력있고 참신한 젊음이 넘쳐나는 처녀의 몸에 어찌나 어울리는지 화차의 공기호스를 렬결하는 구내일군들과 화물원들속에 끼여 짐을 다루는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랐다.

름름한 대장부가 아니라 호리호리한 배우형의 처녀가 왔다고 실망할사하던 사람들이 며칠사이에 인식을 달리했다. 그중의 한사람이 역장 전진국임은 물론이다.

마침내 애쓴 보람이 나타난것이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만 계속 밀고 나가면 이달 계획은 물론 연간계획두 문제없겠어요.》

《넌려 마슈. 남의 말밥에야 오르겠습니까.》

너자처럼 해사한 군수의 관자노리에 퍼런 힘줄이 살아 꿈틀거렸다. 그도 몹시 흥분한 모양이였다.

《문제는 일군들의 관점에 있다구 봐요. 사실 화물수송계획은 얼마나 아름답겠나요.》

선숙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거의 두배로 늘어난 이달 화물수송계획을 놓고 머리를 기웃거리던 역일군들이 생각났다. 전진국이기도 선숙이의 그 말의 속대사를 짐작하고 허허 웃었었다.

《이 군수동무가 있으니말이지 어렵이나 있나요.》

《그러나 자만들 해서는 안되겠어요.》

얼마나 유쾌한 밤이였던가. 벌써가 흐르는 밤하늘도 그리고 벌판 저 한끝에서 울려오는 은은한 기

적소리도 모두가 정답고 가슴 부풀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은 꿈속에서 흘러보낸것만 같았다. 매사에 빈틈이 없는것으로 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도 수자앞에서 쉽사리 현혹되었던지 알수 없었다. 우리 시대의 계획수자야말로 시대의 맥박, 인간의 랑심이 반영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잘못하는 이 수자를 가지고 회혹하는것은 법앞에서 책임을 지기전에 랑심의 규탄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전축기사인 아버지와 엄격한 교수들로부터 선숙이는 이렇게 배워왔다.

(내가 공명심에라도 들렘단말인가!) 생각할수록 몸서리쳐지는 일이다. 다행한것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적여유가 넉넉히 있는것이다. 전진국에게 모든것을 이야기하고 일을 바로잡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대신 한초가 새로 왔다.

선숙이는 거울앞에 다가가 머리를 수습하고 밖으로 나갔다.

역장실은 비어있었다. 최는 걸려있지 않은데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안내원실에도 구내사령실에도 전진국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구내일꾼들뿐이어서 물어볼수도 없었다. 혹시 화물장에 가지 않았을가 생각하고 사령실을 나서는 데 은은한 금속성이 등뒤에서 들려왔다. 벽시계가 아홉점을 때렸다. 그제야 선숙이는 공연히 헛걸음 친것을 후회하며 구름다리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이 시각 전진국의 위치는 언제나 구름다리우였던것이다.

...역장 전진국의 하루일과는 자기 사무실이 아니라 남쪽 초소로부터 시작되었었다. 역전거리에 사택이 있는 그는 흠을 뚫지 않고 편안히 자기 사무실에까지 올수 있으나 우정 포장되지 않은 골목길을 에돌아 정거장이 시작되는 남쪽초소로 출근했다. 한가지 언급할것은 이 골목길이 화물장과 잇닿아있어 자동차의 래왕이 아주 심하다는 그것이다. 가물 때에는 흙먼지가 일고 날이 꺾은 때에는 흙탕물이 튕기는 이 불편한 길을 전진국이 즐겨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어 대합실의 귀 어두운 청소원 할머니까지 알고있다. 초소에 들려 야간당직자를 잠깐 만나 수인사정도나 건네고 구내선과 화물장을한바퀴 돌아보고나면 전진국의 머리에는 역사령원과 화물지도원이 수자로 표시할수 없는 보고내용까지 추리되고 그것을 밀천으로 해서 오늘 할 새로운 사업들이 자기 사무실에 도착하기전에 설계된다. 그런데 개찰구에서 2번 러객홈으로 통하게 된 구름다리가 생긴 다음부터는 오래동안 지켜오던 그의 그 출근로정이 어방없이 달라졌다. 이제는 흙먼지가 풍기고 진탕이 튕기는 골목길이 아니라 넓고 곧은 포장도로를 지나 곧추 구름다리로 출근하는 전진국을 보게 된다. 변한 그 로정, 그 시각의 정확성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되었다. 그러면 전진국이 어찌하여 구름다리로 올라가는가? 당신들이 한번 정거장의 높은 구름다리우에 척 올라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좌우를 돌아보시라. 그러면 그 드넓은 정거장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손금보듯 내려다볼것이다. 전진국은 바로 이 유리한 시설물을 리용하여 그가 그렇게도 오래동안 불편스러운 로정을 통해서 알아내군하던 그 모든것을 한순간에 알아냈던것이다. 정확성여부야 뉘 알랴만 지금은 그것이 전진국의 굳어진 관습으로 되고말았다.

선숙이는 왜 그런지 그의 이 생활과 좀체 익숙되지 않았다.

구름다리의 계단을 한단한단 옮겨디디는 선숙이의 눈에 처음에는 기름기 흐르는 장화가, 다음에는 주름발이 선 바지가 얼른거렸다. 뒤집을 지고 떡 뽕치고 서있는 전진국의 표정은 자못 어마어마하다.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철색의 불편을 가볍게 떨기도 하면서 어텐가 한점을 노려보는 그의 입귀에서는 푸르스름한 담배연기가 물물 피어올랐다.

선숙이는 그의 눈길을 따라 남쪽 초소로 반쯤 얼굴을 돌렸다. 방금 장내신호기를 벗어난 화물렬차가 긴 강철띠를 걸거덕거리며 기여오고있었다.

《1006 렬차군요 왜 늦었을가요?》

선숙이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근심스레 중얼거렸다. 3 분간 늦은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자는거야.》

전진국은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뱉어버리더니 쇠줄란간에 배를 붙이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마침 빨간 모자를 쓴 운전지휘원이 아이들 굴렁쇠같은 동표휴대기를 메고 지나가는게 보였다.

《왜 852 렬차는 떠나지 않소 영?》

운전지휘원이 목을 잔뜩 뒤로 젖히고 진국을 뻔히 올려다보았다.

《이제 떠내보내겠습니다.》

《쭈 빨랑빨랑 움직이오. 그렇게 늑장을 부리다가는 렬차를 늦추겠소.》

그러고보니 전진국은 늦어들어오는 렬차를 근심한것이 아니라 넉넉히 정시로 떠날수 있는 렬차에 대해 공연히 원심을 썼던것이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이 들어오는 렬차는 비록 1 시간 늦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렬차사령원이나 이웃역역장이 지휘를 잘못된탓이니 전진국을 나무랄 사람은 없는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떠나는 렬차는 단 1분을 늦어도 그것은 이 신성역 사업과 관련되는것이니 전진국이 발뺌을 할래야 할수 없는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서로 자기 역의 렬차를 먼저 받으라고 싸우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기는것이다.

선숙이는 이 미묘한 관계가 잘 리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전진국은 그제야 선숙이를 알은체 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선숙이는 이야기를 하고 전진국은 들었다. 두사람 다 밝은 표정이 아니다.

《그 점장로친이 좀 우는 소리를 합니다.》

전진국은 들을 때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대답은 대수롭지 않게 했다.

《전번에는 화목을 실어주지 않는다구 하루에도

두세번씩 전화를 건다, 사람을 보낸다 하며 수선을 떨기에 알아보니 글썽 열돈두 못되는걸 가지구 그 소란이 아니겠소. 허 로친네두 참!》

선숙이는 전진국의 동문서답이 어처구니 없었다. 《아이, 역장동지, 립산마을에서 무슨 화목을 싶어간단말이에요.》

《창포수산물점장 얘기가 아니요?》

《편지는 립산마을에서 왔어요.》

《난 또 창포수산물의 그 똥똥보로친이라구.》

전진국이 립기웅변을 잘하는 사람인것은 틀림없으나 이 순간만은 낯빛도 몸가짐도 달라졌다. 선숙이는 그를 더 딱하게 하지 않으려고 얼른 다음 말을 이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립산마을에 보낼 독뿐이라고 장담할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화물수송에 빈틈이 있는것 같아요.》

《알아는 봅시다.》

전진국은 나들문 손잡이를 쥔채 머리를 기웃거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수동무는 실수할 동무가 아닌데.》

이 순간 선숙이의 눈앞에는 너자처럼 해사한 현근수의 얼굴과 빈틈없는 통계표가 한데 어울려 떠올랐다.

전진국과 헤어진 선숙이는 화물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며칠전 상품하차장옆에서 독을 본듯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깨져 쓸모가 없는 독이 몇개 보일뿐 성한 독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석탄하차장과 지어는 중량품상차장까지 돌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현근수지도원은 어데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화물원에게 물어보니 독공장 업무부지도원은 얼굴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보시오, 내 뭐라고 함디까.》

전진국은 소득없이 돌아온 선숙에게 전에없는 아량을 보이려고 애썼다. 성질이 시원시원한 남자와과는 달리 아련하고 내성적인 이 처녀에게 자기의 생활론리를 설득시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매사에 조심하고 자신이 스스로 교훈을 찾도록 우정 시간을 늦잡는다. 그다음에는 년장자로서의 아량을 가지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근주근 하는것이다.

《나두 처음에는 신소편지를 받구 가슴이 철렁하곤했수다.》

전진국은 의자등받이에 무겁게 몸을 실리며 눈을 가늘게 폈다. 표정은 너그럽고 목소리는 담담하다.

《그러나 지내보니 정거장이란게 참 별난데가 아니겠소. 매일 개찰구를 통해 수백수천명의 손님들이 가기로 하고 오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대합실에 잠깐 들려 담배나 한대 태우고 가버리는가하면 숯제 들리지도 않는 사람도 많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다 자기류의 특전이나 있는것처럼 요구하고 따지고 하지요.》

전진국은 성냥을 드욱- 하고 그었으나 담배에 붙이지 않고 꺼버렸다.

《그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말한 사람도 잊고 들은 사람도 잊고... 정거장이란게 그렇답니다. 허.》

선숙이는 허구프게 웃는 전진국을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귀밑머리가 허형게 센것이 이때까지 생각해오던 전진국보다 무척 늙어보였다.

《소조원동무, 너무 근심마십시오. 충분히 리해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녀성으로서 이런 경우 인정부터 앞서는거야 당연하지요.》

전진국은 또 뭐가 말했지만 선숙의 귀에는 잘 들려오지 않았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는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녀성으로서 ... 당연하지요.》 전진국의 마지막이말이 선숙의 마음을 얼마간 흔들여놓았다. 그는 이런 말을 언제인가 담임교원으로부터도 들은적이 있었다. 지나온 생활환경이 그로 하여금 잔인정에 지나친 마음을 쓰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

...선숙에게는 장난질이 세찬 남동생들이 다섯이나 있었다. 집안은 이 장난꾸러기들때문에 늘 소란스러웠다. 아침에 입고 나간 새옷에 흠뻑칠을 해가지고 오는것은 그래도 약과였다. 옷등을 아예 벗어 던지고 오거나 몸쓸 장난을 하다가 모자를 빼앗기고 맨머리바람으로 털썩털썩 들어오는가 하면 눈두덩에 시퍼런 멍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높은데서 떨어져 절골이 되어 입원한 어린 동생에게로 달려갈 때 선숙의 마음은 까맣게 숯이 되곤했다. 남의 집 아이의 코피를 터뜨려놓은 날은 집안이 더욱 소란스러웠다.

구역의 한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늘 바빴다. 그래서 자연히 세찬 동생들의 뒤치닥질을 선숙이가 도맡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말을 통 귀담아듣지 않는 동생들때문에 남볼래 운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철부지 동생들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이가끔 생기는 했으나 선숙의 마음은 일찍부터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비단결같이 아름다운것이 싹트고 자랐다. 길을 가다가도 우는 아이들을 보면 무심히 대하지 못하는것이 그의 성품이다. 자기 동생도 어데선가 넘어져 저렇게 울고있는것만 같아 가슴이 아릿해오곤했던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무던한 누이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잔인정때문일까?)

선숙이는 또한번 자문해본다. 그는 인정에 무른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있다. 그래서 대범해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아무리 대범하려 해도 립산마을의 그 점장의 호소는 무심히 들어넘길수 없다. 전진국의 론리는 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인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도 파연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했다고 뽐뽐이 말할수 있을까?)

선숙이는 전진국의 말을 또 생각해본다.

《시간이 흐르면 말한 사람도 잊고 들은 사람도 잊고...》 선숙이는 아무리 대범하다 해두 뽐뽐하지 못한 일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것 같았다.

허둥거리던 선숙의 눈길은 책상우에 접어놓은채로 있는 신문에서 굳어졌다. 아직 당보도 읽지 않았다

다는 자책에 서둘러 펼쳐들었다.

선숙의 얼굴이 차츰 긴장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굴죽을 따라 명민하게 움직이던 두눈에 이슬이 그렁하니 피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촌상점에...) 선숙이는 신문을 포개여 가슴에 꼭 안았다. 그윽한 눈에서 맑은것이 도그르르 굴러내렸다. 가슴은 그냥 쿵뒹뒹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어느 산간마을의 상점을 현지지도 하신 보도였다. 마가울의 음산한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편한 촌길을 걸으신 아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설레이는 가슴에 파고들었다.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잠도 휴식도 미루시기만 하시는 그이의 로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처럼 아팠다. 그렇게도 믿어주시고 혁명의 앞장에 세워주신 한 전사가 제구실을 못해 인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것을 아신다면 아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랴, 생각하니 더 앓아있을수가 없었다.

우-바람이 불었다. 골목에서 쓸어나오는 을씨년스러운 마가울의 바람이 공원에서 굴러다니는 가랑이를 어데론가 쓸어가고있었다.

독공장은 누엿한 등성이를 의지해 지은 아담한 건물이었다. 자동차길로 20리, 산길로는 10여리되나마나 했다. 선숙이는 마당에 빈자리없이 차있는 독을 보고 심상치 않은 예감부터 들었다.

키가 꺾두룩한 업무지도원의 꾸념은 사실상 고향을 치고 피대를 돈구어 하는 욕설보다 더욱 혹독한 핀잔이었다.

《이렇게 찾아와까지 주니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원 대개가 그러하듯이 호방하고 꾸점이 좋은 그는 선숙이 찾아온 사연을 얘기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다음은 점차 감동되는것이였다.

업무지도원은 자주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독공장의 업무지도원이 옛날 웅기장사에 비기겠습니까만 남모르는 고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지도원의 하소연은 긴 한숨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것이 질그릇일것이다. 주부들과 그의 남편들은 김치맛이 좋고 나쁜것도 독과 련관시켜 이러쿵저러쿵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피만 잔뜩 큰 이 물건은 우선 적재량을 기준지표로 하고있는 수송기관으로부터 푸대접인데 다루기가 여간만 조심스럽지 않아 마음 무뎠한 화물원조차 손을 뻗혀 내젓는다. 《수송도중 파손은 화주측이 책임진다.》는 억울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점장들과 아낙네들로부터 받는 성화는 또 얼마나 괴로운것인지 모른다.

《월달이나 분기말처럼 수송이 밀리는 때에는 정거장화물장에 명함도 못드리게 하지요.》

역장 전진국이 반신반의한 현근수의 《실수》는

이렇게 시작된것이다.

선숙이는 일군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현근수의 립장에 서서 그를 두둔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보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의 처사를 합리화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수송하기 편리한것만을 팔아서 싼다면 인민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철도에 짐을 맡기겠는가.

선숙이는 또다시 그 빈틈없는 통계표가 되살아나 가슴을 쿵쿵 찢었다. 업무원의 호소를 통해 이런 현상이 독수송에 한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자 가슴은 더욱 아팠다.

(역사업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겠어!)

선숙이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뚜렷한 표상을 띠고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는 지난날 역일군들의 그릇된 사업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장을 떠났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철도국에서 조직하는 방식상학에 참가하고 돌아온 선숙이는 화물장부터 들렀다. 일이 제대로 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도 머리속에서는 내내 독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쯤 립산마을에 가닿았을줄 알았던 독이 그대로 야적장에 있었다. 덧쌓을수 없는 물건이여서 자연히 넓은 면적을 차지한탓에 화물장에서 나가는 자동차,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운전수들이 신경질을 부리고 경적을 성급하게 울리었다. 와지곤 하는 소리가 나기에 보니 어김하던 자동차가 독을 한개 받아 깨장정을 만들었다.

선숙이는 난생 처음 동지들에 대한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독이 역출되는 차례로 실어보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의견에 너무나 쉽게 선선히 대답하던 전진국과 현근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리에 밝고 침착한 처녀여서 리성으로 충분히 흥분을 누를수 있었다.

(설마...?)하는 한가닥의 희망이 그의 걸음을 재촉하였다.

현근수는 마침 자기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있었다. 선숙이는 손님들이 늘 앓군하는 나들문결 딱딱한 나무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아, 첫갈품말이요... 뭐 상점에서 받으라구? ... 좀 좋은걸 먹자구 그러지뵈.》

책상다리를 하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은 근수의 목소리는 느리고 거만스러웠다. 어느 수산협동과 김장용 첫갈품을 흥정하는중이었다.

《뭘, 대신 빈상자를 실어달라구? 뜯어서 규정포장을 했겠지... 안했다. 그럼 곤난하지... 첫갈품을 못주겠다. 여보시오. 이제보니 동무두 수가 높소. 하하... 어찌겠소 미운놈 뭇 한개 더 주겠는데 보나요. 그대신... 하하.》

근수는 수화기를 놓고 탁상일력을 끄당겨 뭇가 갈겨써넣으면서 머리도 들지 않은채 여전히 틀린 음성으로 물었다.

《뭘요?》

대답이 없다.

《왜 왔는가...》

근수의 딸꼬리가 몽청 잘라져나가고 해사한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서서히 떠올랐다. 선숙이는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나 지금은 참기로 하였다.

《독이 그대로 있군요.》

《실어보내지 못했습니다.》

《화차가 없었던가요?》

《아니요.》

근수는 어느새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저 놀란채 했을뿐이었다.

《포장이 나빠서 실을수 없었습니다. 독이란건 포장이 나쁘면 한정저장도 미처 못가서 다 깨지거든요. 소조원동지.》

방금전 수산협동에 배운 관대성을 제쳐놓고라도 현근수의 대답은 너무나 뻔뻔스러웠다.

선숙이의 얼굴은 해쓱하니 질렸다.

《그랬군요.》

《규정이니까요.》

근수의 눈귀에서 실주름이 곱실거렸다. 그러나 선숙의 유순하던 눈에 엄하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자 슬며시 눈길을 돌려버렸다.

《규정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지키도록 요구해야지요.》

《.....》

《난 지도원동무가 좀 더 봉사자의 립장에서 일했으면 해요.》

선숙이는 일어났다. 그는 여러군데를 돌아다녀서야 경비막에 웅크리고앉아 졸고있는 업무지도원을 겨우 찾아냈다. 그새 눈이 어둡하게 들어가고 턱수염이 어찌나 수북하게 자랐는지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어휴 말두 마슈.》

업무지도원의 입에서는 회파람소리가 났다.

《십년감수는 했수다. 밤잠 한번 편히 잔줄 아슈. 잠깐만 방심하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지끈 반구, 기증기바가지가 내려덜치구... 꼭 강가에 어린애를 내놓은 심정이여서 어디 마음을 놓을수가 있어야지요.》

중얼거리며 누구를 원망하다가는 공연히 날씨푸념을 하는 업무지도원은 머리를 대구 흔든다.

《독장수 십년에 공연히 머리털 센줄 아슈.》

유감스럽게도 술많은 그의 머리칼속에는 새치 한오리 보이지 않았다.

《포장을 좀 잘하겠는걸 그랬어요.》

선숙이는 마음고생까지 했을 그를 나무랄수도없어 이렇게 좋게 말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업무지도원이 발끈 성을 냈다.

《화물지도원이 그런 말을 함데까?》

느른해서 앉아있던 업무지도원이 갑자기 어깨를 살구었다. 근수가 앞에 있으면 일을 저지를 잡도리였다.

《날보구는 한마디두 안하다가 이제와서는 뭐 포장어떻다구.》

《그거야 말하건 안하건 잘해야지요.》

《흥, 이때까지는 이쯤해두 잘만 실었수다. 다 트집이지요 트집!》

선숙이는 성이 나서 풀떡거리는 업무지도원을 겨우 진정시켰다. 우선 일을 바로잡아야 했던것이다.

《한쪽에서는 독이 없어서 안타까와하는데 책임한계나 따지구있으면 되겠어요. 우선 포장을 다시해서 독을 빨리 보내자요.》

《어휴 어느 하가에... 공장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다는거야 소조원동무두 알지 않겠습니까.》

《공장안은 제가 들어가보겠어요.》

업무지도원은 입안소리로 뭔가 웅얼웅얼 하였으나 더부룩한 머리는 흔들지 않았다.

선숙이는 서둘렀다. 어제부터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다. 번덕이 심한 요새 날씨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날도 그러저럭 다 갔다. 달을 넘긴 수송계획은 사실상 성황고 남은 돌의 신세였다. 설사 그때 가서 독을 실어보낸다 해도 때가 늦는것이다. 선숙이는 자그마한 이 문제를 결코 범상하게 대할수 없다고 느꼈다. 인민의 총복으로 일하며 살아야 할 역일군들의 관점문제인것이다.

(더 잘못되기전에 깨우쳐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기계적으로 걸음을 내디디던 선숙이는 등덜미를 후려치는 근수의 께한 목소리에 와들 놀래었다. 머리를 들고보니 어느새 역장실에 이른것이다. 열려진 문새짬으로 공손치 못한 두사람의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숙이는 그냥 돌아갈수도 없어 그들의 얘기가 끝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난 도무지 그 동무가 공장사람인지 정거장사람인지 모르겠단말입니다. 말끝마다 공장, 공장하니...》

토라지고 볼멘 목소리의 임자는 현근수이다.

《그만하오!》

전진국의 엄한 목소리

《우리 정거장 일을 도와주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 동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면 되는가.》

《나두 일을 잘 하자구해서 그러지요.》

《됐다는데두. 우는 소리는 그만하구 이달 계획이나 맞출 궁리나 하오. 남이 우리 역계획을 해줄수가 없지 않소.》

선숙이는 겁난 시선으로 두리번거렸다. 본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의 얘기를 엿듣는것은 상식을 벗어나는것이다..

그들의 얘기의 중심에 바로 자기가 있고보니 더욱 거북했다.

《하긴 그 동무야 이 정거장에 놀러있을 사람은 아니지요.》

선숙이가 들은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그는 쫓겨우는 사람처럼 역장실에서 물러났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났다. 그래도 자기판에는 일을 잘해보자고 굳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았는데 고작 손님으로밖에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것이 섭섭하고 가슴이 아팠다. 금시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았다. 피가 나도록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마음을 녹애했

양으로 시름겨웁게 사업일지를 뒤적이던 선숙이의 손이 목각처럼 굳어졌다. 오늘아침 립산마을 상점점장에게 회답편지를 쓰려고 사온 봉투와 우표가 잉크 한방울 묻지 않은채 있었다. 또다시 그의 눈앞에는 독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부들의 근심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이름없는 농촌의 자그마한 상점을 찾아주신 아버지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선숙이는 옛그제의 그 신문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의 가슴은 또다시 참을수없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소박한 매대에 진렬해놓은 부식물을 찬찬히 살피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눈앞이 점점 흐려오고 목이 짝 메여왔다.

그에게는 언제나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고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근심에 잠기신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얼굴도 축이 가신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이 아팠다.

《수령님!》

선숙이는 울먹거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제가 일을 잘 하겠으니... 이제는 좀 쉬어주십시오, 수령님!》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이날 선숙이는 지구소조책임자와 오래동안 마주 앉아있었다.

선숙이는 바빴다. 하긴 그믐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데 있으랴. 당이 맡겨준 월간혁명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날에 있는것이다. 의지와 랑심, 사회여론앞에서 검열을 받는 엄숙한 이날, 제 할일을 떳떳하게 다한 사람은 희열과 보람을 느낄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큰 환멸과 수치를 느낄것인가.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룡상선수가 마감구간을 달리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보내는것이다.

정거장에서도 긴장한 수송전투가 벌어졌다. 선숙이는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한 다음 일군들을 각 공장, 기업소에 내보냈다. 자신은 독공장에서 사흘밤을 뜬눈으로 보냈다. 독공장이란게 보기와는 달리 품은 많이 들어도 일자리는 나지 않았다.

《김장철전으로 인민들에게 독이 가당게 하자!》 선숙이가 종업원들앞에서 한 이 강연은 도시의 변두리에서 늘 조용히 살아가는데 습관이 된 이 공장을 흥성거리게 하였다. 수송기관으로부터 귀찮은 독촉을 받지 않는데다 수요자와 멀리 떨어진 이 공장은 사실상 공급에 대해서는 종종 방심했던것이다.

선숙이를 자기네 공장 종업원으로 잘못 알고 실수를 한 지배인은 허심하게 자기비판을 하고 포장작업에 앞장섰다.

마당 한가운데 걸어놓은 확성기에서는 해종일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르릉거리는 자동차엔진소리, 짚을 터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땀을 흘리며 포장하는 남정들의 지청구...

《짚, 짚, 왜 떠들기만 하는거요 제길!》 그다음은 와- 웃음소리...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자 저마

끔 서둘렀다.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 북방 립산마을의 눈꽃을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던 작업장이 뜻하지 않은 일로 하여 뒤죽박죽이 되었다. 자동차에 독을 실어보낸 선숙이는 정거장의 상차정형을 알아보고 경비실로 갔다. 마침 저쪽에서 전화가 먼저 걸려왔다.

《저 ...》

전화를 거는 업무지도원의 숨결은 여간만 거칠지 않았다.

《웬일이세요?》

《독을 실게 된 화차에... 막돌을 실습니다.》

《누가요?!》

《근수... 그...》

선숙이는 강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친것처럼 멍했다. 그러나 그는 사태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좀체 믿어지지 않았다.

《동무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 여기 화차번호까지 있습니다》

선숙이는 또한번 놀랐다. 막돌을 실는다는 화차는 중량화차였던것이다. 그것도 두차씩이나 되었다. 그는 교환수가 화물지도원실을 호출할 때까지 겨우 참고 기다렸다.

《60 톤급 화차에 막돌을 실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선숙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경비원도 다른 사람들도 느꼈다. 그러나 땅을 딛고있는 그의 다리가 떨리는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평천역으로 가는 건재이지요.》

현근수의 대답은 알미울정도로 태연하였다. 선숙이는 어금이를 짹 깨물고 큰숨을 한번 내쉬었다.

《막돌을 실으면 안되겠어요!》

날카로운 그 녀자의 목소리가 어쩌나 위압적이었던지 뚝뚝하게 대답하던 현근수가 대변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건 막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건설자재입니다.》

《그런 건설자재는 평천역 뒤산에 얼마든지 있어요.》

《아... 이건 역장동지 지시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토의할테니 기다리세요.》

선숙이는 한순간, 몸에서 힘이 깡그리 빠져나가는것을 느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고 두다리가 나긋나긋 휘여들었다. 그러나 그는 용케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질수가 없었다.

밤, 별없는 하늘에서 위협적인 천둥소리가 파르릉거렸다. 좌- 어느 쪽인지 벌써 폭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연의 이 횡포는 선숙이와는 인연이 없었으니 일찌기 불수 없었던 초인간적인 힘이 그에게서 공포도 눈먼 잔인정도 한순간에 멀어버렸던것이다.

(어쩌면... 어쩌면... !)

종주먹을 부르짖고 정신없이 내달리는 선숙의 입에서는 이 한마디가 튀어나올뿐이었다. 믿을래야 믿을수 없고 그렇다고 안믿기에는 너무나도 엄혹한

현실이 사회생활의 초행길에 나선 그에게 너무나 값높은 대가를 요구했다. 선숙이는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전진국이와 현근수들이 하는 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바와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참을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숙이는 지름길로 갈가 하다가 그냥 신작로를 따라 달렸다. 자동차를 만날수 있다는 희망에서였다. 아니게아니라 얼마를 안가서 자동차 한대를 만났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흠먼지만 뒤집어씌우고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렀다. 그새 일이 죄다 망그리지는것만 같았다. 자동차가 또 한대 온다. 선숙이는 신작로 한복판에 뛰어나가 두손을 쳐들었다.

《세워요!》

다급한 경적

《세워주세요-!》

경적, 경적, ...눈부신 전조등불빛이 허둥거리다 가 늘어놓은 대들보처럼 굳어졌다.

《뛰야!》

성난 운전수의 고함소리

《급한 일이 생겨서... 저 미안해요.》

진실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법이다. 화가 난 운전수는 우들렁거리기는 했으나 거절은 안했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 처녀에게 동정심이 갔던 모양이다.

마침 정거장으로 가는 자동차였다.

자동차는 몹시 들추었다.

《짐을 실으러 갑니까?》

《짐을 실으러 가는게 아니라 실고갑니다.》

운전수는 통인지 진담인지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빈차라는것을 아는 선숙이는 지금 운전수의 기분이 몹시 언짢은거라고 생각했다. 하긴 자기도 말할 흥심은 없었다.

운전칸등반이에 나긋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른다. 선숙이가 아주 죄꼬마한 계집애일 때 어머니와 함께 외가집에 갔다가 차표를 사지 못해 몇번인가 주저하다가 역장실에 찾아갔던 일이 떠오르는가 하면 얼마전 학습시간에 인민성을 놓고 열렬하게 토론을 하던 역일군들의 얼굴들이 영사막의 그림처럼 피뚝피뚝 지나갔다.

인민성! 인간중심의 위대한 주체철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당의 이 구호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지만 특히 봉사일군들이 첫 자리에 놓고 지켜야 할 사업원칙의 하나인것이다.

선숙이 자신도 그러했지만 전진국이나 현근수의 토론은 얼마나 설득력 있었던가! 그런데 어쩌서... 어쩌서 그들은 말과 다른 행동을 서슴없이 할가. 자기는 어쩌서 이 모든것을 이제야 알았을가.

《정거장에서 일하오?》

갑자기 운전수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좀...》

《배치받든지 얼마 안되는 모양이군.》

운전수는 약간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선숙의 관심을 끌었다.

《왜 그러시나요?》

운전수는 발동기소리때문에 선숙이의 말을 못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못들은척 하는지 한동안 말없이 자동차를 몰았다.

자동차는 어느덧 굽인돌이를 벗어나 곧은 길에 들어섰다. 창문을 후려치는 비발속으로 저쪽에 정거장이 보였다.

운전수가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 온 동무에게 이런 말 해서 안됐소만 거 제발 <특세> 좀 쓰지 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 글썄, 백키로도 못되는 것같은품을 자동차에다 싣구 50 리길을 달려야 뽕소?》

운전수의 눈이 어둠속에서 노기를 띠고 번쩍거렸다. 선숙이는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그저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실컷 울기라도 하면 답답한 가슴이 좀 풀릴것만 같았다.

그가 어쩌나 상심하는지 운전수도 공연히 우들렁거린 자신을 후회하는 모양으로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없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교환!》

연신 교환수를 다물아치던 전진국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선숙이를 보자 수화기를 집어던지고 덤벼치며 일어났다.

《소조원동지 제발 좀 도와주우, 비판은 후에 받더라도 우선 계획이나 해놓구 봅시다 예.》

전진국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왜 그러지 않겠는가. 선숙이의 말 한마디에 모든것이 달려있는 지금 전진국이 기대할수 있는것은 오직 이 마음어진 처녀의 동정뿐인것이다.

《100 톤이 모자라 이 신성역이 계획을 못합니다.》

《역장동지, 전 정말 놀라와요... 역장동지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네.》

선숙이는 안타까운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 자주 말을 더듬었다.

《소조원동무가 내 립장에 서보시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요.》

《웁아요,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역장동지처럼 량심을 속여가면서 계획을 해서는 무얼 하겠어요.》

그 소리에 전진국은 핵 돌아섰다. 그러나 입귀만 뽕뽕 말은 하지 못했다.

《역장동지두 엇그제 신문을 읽지 않으셨나요.》

선숙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였다. 그러나 자신만만하던 전진국의 멍멍한 얼굴도 근수의 얼굴도 저절로 굳어졌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넘려되시여 또다시 먼 산간마을의 상점을 찾아주시였어요.》

선숙이는 문득 매대앞에 서계시는 수령님의 심려어리신 모습을 생각하자 이제껏 강심으로 참아오던 울음이 금시 터질것처럼 가슴이 설레였다.

《우리 살림을 더 윤택하게 하여주시려고 어찌다 차례지신 휴식일을 그렇게 험한 산간마을의 로상에 서 보내시었어요.》

선숙이의 볼로는 땀만이 아닌 뜨거운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런데 역장동지는 뭐예요. 말로는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린다면서 일을 어떻게 하고있어요. 빈 상자를 비뭇적으로 실어주고는 것갈품이나 받아먹구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독은 실지 았구 계획에두 없는 골재를 실구... 독이 았어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림산마을의 사정을 아신다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어요. 역장동지는 왜 이결 생각하지 못하세요 네?!》

선숙이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건잡을새없이 쏟아졌다.

전진국은 방안으로 확 쏟아드는 랭기와 쇠-하는 비바람소리를 듣고야 나들문이 여닫기는거며 밖으로 나가는 두사람을 보고 이 방에 여직껏 낫선 운전수가 있었다는것을 느꼈다.

것갈품에 대한 얘기는 금시초문이였으나 구태여 군수에게 따지지 았았다. 되돌아가는 자동차를 세울 경황은 더욱 았었다.

그는 경황없이 서성거리다가 창문가로 다가갔다. 저 았에 보이는 수양버들의 연약한 우듬지들이 비바람에 뒤채이며 구원을 호소하듯 애처롭게 울부짖는데 그밑으로 선숙이가 서두르지 았고 천천히 걸어가는게 보였다. 바람에 머리칼이 날리고 옷설이 펄럭거리는데 그는 이 자연의 횡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 같다. 그렇지 았고야 저 찬비를 맞으면서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겠는가.

전진국은 가슴이 몽클해졌다.

선숙이의 너그럽고 사심없는 인정미를 그대로 담은듯이 늘 그윽한 미소가 흐르던 그 눈에서 줄줄이 흐르던 눈물을 생각했던것이다. 정력과 신념은 았으되 다소 감상적인데가 았는 처녀라고 소홀히 여겼던 진국은 가슴아픈 자책과 함께 뜨거운 림민의 정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계획과 랑심!)

전진국은 하나로 이어져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았는듯한 이 두 단어의 참뜻을 다시 음미해보려고 되뇌이다가 저도모르게 낫을 찌프렸다.

지난시기 반차분의 톤수가 모자라 계획을 못하게 되였을 때 누군가의 《발기》로 저 기관차대 탄재를 실던 일이 문득문득 환영처럼 떠오른다.

또한 계획마감시간을 세시간이나 넘은 다음에야 다 실은 농기계를 수송실적에 포함시켰던 일을 세월이 흘렀다고 어찌 았으랴.

계획과 랑심! 일평생을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치기로 결심한 전진국이였다. 그러나 과연 자기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 일했던가.

처녀로부터 들을 때에는 억울하고 가슴아팠지만 부인할수 았는 이 엄혹한 현실앞에서 전진국은 마

침내 비칠거렸다.

따르릉- 전진국은 바스라지는것처럼 울리는 전화종소리를 듣고야 빈방에 홀로 서 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경애야요, 호호.》

《안내반에서 웬일이요?》

전진국은 웃기 잘하는 그 귀인성스러운 처녀를 제격 았아보았으나 반가와할 계제는 못되였다.

《화물에 갔는데요, 석달전에...》

《그랬던가.》

전진국은 김빠지는 소리로 허- 했다

《그런데 웬일이요?》

《방금 지원자동무들이 석탄을 한차 부렸어요.》

《무슨 지원자말이요?》

《소조원동지가 교대를 끝낸 구내일군들을 데리고 와서... 모르시나요?》

《음.》

《그런데 무얼 실어야 되겠는지 몰라서 전화를 걸 았습니다. 지도원동지두 았계신다니까 역장동지에 게 물어보라기에...》

《누가?!》

《소조원동지가요.》

전진국은 대번에 멍해졌다.

《어떻게 할가요.》

《내 이제 곧 가겠소.》

전진국은 덤벼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는 그냥 좌악, 좌악 퍼붓는다.

× ×

산간마을의 상점 점장에게 회답편지를 보낸 선숙이는 역장 전진국을 찾아 한동안 헤맸다. 려객사업과 관련하여 토의할 문제가 았었던것이다. 안내원 실에도, 책임기사실에도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았었다. 9시, 종래의 관습대로 하면 이 시각의 전진국은 틀림없이 구름다리우에 았을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숙이처럼 역장을 찾는 경리과장이 서성거리고 았을뿐이다. 혹시 자기 사무실에 그새 오지 았았나 해서 그쪽을 보며 걸던 선숙이는 2 호기중기 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손세를 써가며 말을 하는 전진국을 발견하고 저으기 놀랐다. 지나가던 대합실 청소원아주머니가 그를 보고 았은체를 했다.

《오늘 출근길은 웬일이슈?》

《내 출근길이야 원래 이랬지요 허.》

전진국은 시까스름에 노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나이답게 꺾꺾 웃었다.

《하긴 그 높은 구름다리우에서 뭐이 잘 보이겠소.》

청소원아주머니는 전진국의 말을 듣고 그러는지 아니면 귀가 어두운탓에 제나름으로 생각을 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적중한 이 말을 하고는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상쾌한 아침이였다. 비온 뒤의 아침은 늘 이런것이다.

다함없는 사랑의 서사시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고-

리주화

저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끝없는 감명속에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저는 평양시간, 우리의 시간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정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수천년의 민족사를 가지고 세기를 내려오면서 압제와 굴욕에 지지리도 못살아온 탓에 주택에 대한 최상의 숙원이 고작 초가삼간이었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주택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초가삼간을 옛말로 이야기하게 되었으니 이 변혁의 력사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한없는 은혜를 그 무엇으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들이 나라 찾은 덕을 입게 해야 한다 하시며 평양사람들, 토성랑인민들이 대를 두고 원망하던 보통강의 물란리를 영원히 없애주시려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몸소 그 첫삽을 뜨시였던 어버이수령님,

어제는 토성랑의 철부지 아이들이 땅바닥에 그려놓은 공상적인 그림에서 토성랑인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보시며 건국의 첫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여주시더니 오늘은 보통벌의 이름없는 눈먼 로인의 소박한 이야기속에서 보통벌인민들의 념원을 감수하시며 인민을 위한 세계적인 대유원지건설을 웅대하게 구상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는 정녕 헤아릴수 없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 계시기에 지옥같던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의 요람, 락원의 강산이 생겨나고 오물구덩이 같던 땅우에 세계적인 대유원지가 생겨난것입니다.

소설은 이미 끝났지만 저의 눈앞에는 그 옛날 토성랑으로 불리우던 땅우에 락원의 노래 넘쳐흐르는

인민의 유원지를 꾸려주시려 보통강언덕을 거닐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숭엄한 화폭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안겨옵니다.

《…보통강사람들은 오물구덩이가 없어지고 홍수의 위험도 없어지고 이 강에 고기가 살게 된것쯤 가지고 만족합니다. 인민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요구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만쯤 되는걸 자랑으로 삼고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동무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겠습니까?

다함없는 사랑!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그것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커만 지나니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며 그 끝은 어데이라?...

설된 저녁물안개가 떠돌기 시작한 거무칙칙한 보통강물도 검붉은 빛으로 변하고 감탕판이 금빛으로 번쩍이던 그 저녁, 지옥같던 땅, 지난날 빈민굴이며 오물웅덩이였던 보통강을 우리 시대에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자고 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은 그대로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의 화폭이며 숭엄한 그 화폭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가슴은 불타는 충성으로 들먹입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행복, 인민의 기쁨보다 더 귀중하고 더 큰일이 없으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남들보다 못살아왔다고, 남들보다 뒤떨어졌다고 하루빨리 현대문명으로 이끌어나 주시려 수도건설자들과 함께 자정을 넘겨보내시며 시간까지도 인민을 위한 시간, 우리의 시간을 정하여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계산해야 하오!》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 수령이 시간까지도 인민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준 레가 있습니까?

오직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인민의 태양으로 탄생하시고 한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우리의 아버지수령 **김일성**대원수님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그 시간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건설 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정하여주신 평양시간, 우리의 시간에 기준하여 혁명도 건설도 하여온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의지와 불타는 충성의 결실이 가져온것입니다.

남들보다 아득히 뒤떨어진 우리 나라에서 그나마 모든것을 재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참혹한 전쟁을 겪은지 4년도 지나지 않은 나라에서 밀천도 받고 경험도 적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고 나라를 공업화하는 역사적위업을 단 14 년이라는 짧은 시간속에 빛나게 수행할수있는 것도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평양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투쟁했기때문입니다. 남들은 백년, 수백년을 걸려서야 완성한 세기적인 역사적위업을 단 14 년이라는 기적적인 시간속에 완성한 비결은 바로 인민의 시간, 조선의 시간- 평양시간의 위대한 힘에 있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남보다 어렵게 살기때문에 남보

다 더 빨리 나가야 합니다. 남이 한걸음 걸으면 우리는 열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발전하여야 하며 더욱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조선 사람의 요구이며 숙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 년전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의 혁명정신을 명철하게 밝혀주고있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평양시간, 이 시간의 힘앞에서는 사대주의도, 교조주의도 신비주의도 산산 조각나 부서지고 오직 자주, 창조, 자력갱생만이 위대한 기적을 낳으며 찬연히 빛나는것입니다. 근로인민,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다함없는 사랑과 자애깊은 은정으로 인민들을 보살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이 고상한 예술적화폭속에 정중하게 숭엄히 모셔진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제 2 차 7 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충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줄것입니다.

저는 주체의 조국에서 아버지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살며 자라나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 민족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며 빛내이는 투쟁에 저의 힘과 지혜, 마음과 심장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특색있는 언어표현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고-

장효흠

저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연거퍼 두번 읽었습니다. 한것은 소설의 훌륭한 내용과 여러가지 생활적인 이야기들의 재미에도 있겠지만 이와 함께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의 참신한 맛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꽃의 향기를 맡아보기에 앞서 그 색깔과 모양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달려가는것과 같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자기의 남다른 눈으로 찾아내고 능숙한 요리사의 솜씨로 가공해놓은 소설의 언어표현들은 넘기고도 한번 더 읽어보고싶고 새겨볼수록 새라새맛이 느껴 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셨습니다.

《…신문과 잡지들에서 글을 짧게, 알기 쉽게 써야 하겠습니다.》

소설은 짧고도 알기 쉬운 말로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의 벽찬 사회주의건설현실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들은 차창결에 마주 자리잡고있었다. 잠못든 것은 리상철, 잠든것은 그의 분대원이던 박수진이다. 이해 1957년에 군대에서 고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로동전선으로 떠난온 8만명중에 속하는 두 세대병사들이다.》

이것은 소설의 첫부분에 씌여진 압축되고 짜여진 서술입니다. 비록 몇줄밖에 안되는 짧은 글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주인공들의 지난 생활이며 호상관계, 그들이 이제 서게 될 초소와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뿐아니라 잠못든 상철이와 잠든 수진이에 대한 표현은 그들의 지향과 열정의 차이이며 새로 시작될 로동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 그로부터 벌어진 앞으로의 사건까지도 얼마나 충분히 암시해주고있는것입니까.

이렇게 첫시작부터 독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은 소설은 약간의 불필요한 설명이나 빈말도 없이 작가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체험된 감각적인 묘사로써 랑만에 찬 생활의 시를 펼쳐보이고있습니다.

소설의 마감부문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습니다.

《한시간을 남들의 열시간, 백시간, 천시간 맞잡이로 여기는 우리의 평양시간에 맞추어 세월을 주

름잡아 빨리도, 멀리도 내달아온 1958년!

저물어가는 이해의 황혼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이 황혼에 가장 찬란한 광채를 뿌린것은 평양건설이었다.

1958년 12월 15일, 드디어 2만세대주택건설은 넘쳐 완공되었다.》

마치 시줄과도 같은 이 문장들은 읊을수 있으리 만큼 정서적으로 채색되고 기백이 차넘치며 운물적으로 짜여져있습니다.

세월을 주름잡아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전진속도를 한시간을 남들의 천시간맞잡이로 여기는 평양시간의 기준으로 채여본 여기에 바로 우리 시대 사상감정의 높이가 있으며 예술적형상의 깊이가 있는것입니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수천수만시간의 심려와 로고가 겹치고 쌓여져 귀중한 한분한초를 이룬 우리의 평양시간, 그것이 어찌 기적과 혁신을 낳지 않을수 있으며 한순간이나마 레사롭게 흘러갈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조국 위해 바친 값높은 투쟁의 보람과 위훈을 이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황혼의 아름다움으로 감수하며 2만세대주택건설의 완공을 가장 찬란한 광채로 느낀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응당하고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진실한 사상감정인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열시간, 백시간, 천시간》, 《빨리도, 멀리도》와 같은 되풀이법의 쓰임은 운물적으로나 어감상으로 감정정서의 고조를 보장해주며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의 수사학적물음은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독자들을 사색의 세계에로 끌여가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흐름에서 생략과 함축, 비약의 박력있고 색깔이 진한 시적표현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소설의 언어표현은 어제날의 토성랑인민들이 오늘 지상락원으로 전변된 보통강의 서사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노래한 이 작품의 주제사상과 밝고도 랑만적인 양상에 꼭 알맞는것입니다.

특히 작가의 기발한 착상과 독특한 표현수법이 엿보이는것은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혼자말이나 속생각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조립식건설을 반대하는 관료주의자, 사대주의자, 형식

주의자들인 반장 지태설이나 지배인 림도식의 그릇된 처사에 참을수 없어 당위원회로 찾아가던 때의 상철이의 심정을 묘사한 부분을 들어 말할수있습니다.

《(계획을 못한 주제에 시비는 무슨 시비?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건 상철이, 너희네가 조립계획을 못한 탓이 아니더냐? 무슨 면목으로 예까지 찾아들어 자기들때문에 하게 된 미봉책에 대해서 이러구저러구 해?)

그는 문을 두드리려고 쳐들었던 손을 내리웠다.

(아니, 같은 사기꾼이 되기보다 면목 없더라도 랑심을 저버리지 않는게 나야.)

(잠깐! 그렇게 하면 지배인이 너를 뭐라구 여길지 아냐? 당위원장하구 잘 아는 사이라 해서 여기 찾아들었다고 하지 않을가?)

(너는 어쩌서 그따위 잡생각으로 주저하는거냐? 너는 옛분대장을 찾아온게 아니라 당위원장을 찾아온게 아니었어?)

마침내 상철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적지 않은 소설들의 심리묘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감정을 떠난 맹렬한 논리와 순서적인 잔잔한 설명투의 문장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인물들의 개성이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의 움직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이 묘사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있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 짧은 입말투의 문장들로 이어진 부분은 어조도 열정적입니다. 그뿐아니라 대부분의 문장들이 완전한 문장구조를 갖추지 못하고있으며 《상철이》란 부름말이나 《잠깐!》과 같은 구령투 비슷한 말들이 끼여들으로써 정연한 문장질서가 파괴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정서의 흐름을 동강내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르고 줄기찬 흐름을 보장하면서 정의감에 불타면서도 《랑심》과 《체면》이라는 모순된 감정의 대결점에서 모대기는 젊은 청년 상철이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있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글전체의 흐름에 긴박감과 굴곡을 조성하고 독자들 자신이 주인공과 함께 묻고 대답하면서 생활의 진리를 깨쳐나가도록 해줍니다.

장편이라는 비교적 큰 형식의 작품인 《평양시간》을 약간의 지루감도 없이 마치 100미터선수의 달리기와도 같은 속도로 읽어나가게 되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 어떤 해석이나 설명도 필요없는,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쉬운 말로 씌여진때문이기도 한것입니다.

소설의 첫대목에 있는 상철이의 인물묘사부분만

보아도 뜻이 똑똑치 않거나 리해하기 힘든 말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퍼그나》, 《애젊은》, 《여린》, 《후령후령했던》, 《보시시하여》와 같은 고유한 우리 말, 인민대중이 늘 쓰는 말들로 표현함으로써 주인공을 우리의 옆에서 자주 만나볼수 있는 소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친근하게 안겨오도록 하고있는것입니다.

소설에는 또한 대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화들이 하나같이 골라지고 다듬어진것들이며 마디마디 깊은 뜻을 가지고 울리는것이 인상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소설의 대화들은 다가 실지 생활속에서 우러나오고 시대와 사회의 본질이 뚜렷이 체현된것으로 하여 진실하고 생동하게 들려옵니다.

꿈결에도 그리웠던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도 자기들의 조립식주택건설장에서 만나뵈은 오월은 일떠서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는 그이의 물으심에 이렇게 답변올립니다.

《<저는 온 평양사람들이 지금 자고있는게 섭섭했습니다.>

<그건 어쩌서지?>

<…그건 …온 평양사람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 행복을 저를, 원수님의 품속에 안긴 저를 바주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떠주신 은혜로운 달 5월을 기념하여 이름도 《오월》이라고 지었다는 그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온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월이 혼자만의 심정만이 아니며 그이의 파사로운 품에 안긴 건설전사들모두의 심정이였습니다. 하기에 청년조립조원들은 2만세대를 지어놓고 다시 만나자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수령님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군대식답례보고를 올리는것입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나가는 출발진지와 전호들마다에서, 승리한 고지들마다에서 높이 올렸고 오늘은 여기 수도의 건설전선에서 힘있게 올려퍼진 이 보고- 짧은나 보석같이 빛나는 이 말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며 그이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영원한 충성의 전위로 살며 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화된 생활철학이 있는것입니다.

니다. 이 말은 또한 세인을 놀래운 기적-《평양속도》의 비결을 밝혀주는 열쇠이기도 한것입니다.

소설의 대화는 또한 매우 성격적입니다.

《<유리를 다는줄 알고계십니까? 당위원장동지.>

<어디에?>

<우리 집말입니다. 조립하고있는데 한쪽으로 유리를 다는줄...>

탁준범은 흠칫 놀랐다.

<동무네 집에?>

<네, 지금도 달고있습니다.>

.....

<알겠소.>》

이것은 조립중에 있는 건물에 유리를 다는 현상을 보고 참을수 없어 찾아온 상철이와 탁준범의 대화입니다.

한두개의 단어나 단순문만으로 구성된 이 대화만 보고도 우리는 그들이 가렬한 전투환경에서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데 습관된 제대군인건설자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부르기도 전에 나타난 사실부터 말한다든가 짤막한 한두마디의 물음으로 나타난 현상의 본질을 파고드는 말들을 통해서만 잘못을 보고는 참지 못하며 흥분하기만 하면 자신을 건잡지 못하는 젊은 청년 상철이와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 탁준범의 로숙한 일군다운 품격과 같은 개성적 특징까지도 넉근히 찾아볼수 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쑥불쑥 던지는것 같은 이 말들속에는 어제날의 분대장과 대원, 오늘에는 당위원장과 평범한 한 당원으로서의 그들의 이해와 믿음, 사랑과 존경의 감정도 깔려져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설에서는 손월석이를 바래우기 위해 《아들이 떠난다》고 했다는 상철이 어머니의 말이나 림도식이 전화사이에 끼워넣는 《네, 네》의 두마디 대답과 같이 그 한마디로서 성격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보이는 광선복사와 같은 말들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습니다.

저는 고르고 또 골라 쪽정이 하나 없는 알찬 씨앗과 같은 이런 말들이야말로 뜻이 깊고 성격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형상적어휘의 선택과 표현수법의 리용에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상철이의 별명 《범》이나 탁준범이가 받은 《다

시 분대장》 칭호들은 특별한 묘사나 수식 없이도 그 인물의 전모를 눈앞에 그려볼수 있게 하는 인상깊은 대명사들입니다. 적지 않은 독자들속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그 이름으로 허물없이 통하는것만 보아도 이 대명사들의 효력은 능히 짐작할수 있는것입니다.

소설에서 상철이나 수진이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은 《붉은 병사》, 《련발사격》, 《배비변경》, 《사수들의 위치》와 같은 군대술어들을 곧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조금도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들리는것은 사물현상들의 형태적특성은 물론 생활적으로도 값이있게 탐구된 말들이기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즐겨 하는것은 그저 군대생활을 통하여 입에 오르고 귀에 익은 생활어이기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들을 자기라는 존재를 조국과 결부시키고 당과 혁명을 위한 성스런 복무의 공지로 보람차게 흘려보낸 시절- 병사시절을 잊지 못해 하며 그 시절의 자세로 변함없이 살아가려는 굳은 신조를 담아 스스럼없이 그리고 즐겨하고있는것입니다.

소설에서는 감정적빛같이 풍부한 비유적표현들도 요긴한 대목에 적절하게 쓰이고있습니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건설장에 발을 든드히 붙이지 못하고있던 상철이를 보고 오월이가 하는 말- 《계절조처럼 떠나가는거예요?》나 지배인의 그릇된 처사로 조립을 중지당하고 땅파기를 하게 된 청년조립조원들이 우스개소리로 《수리개》가 《두더지》로 났다고 하는 표현들은 얼마나 실감있고 생동합니까.

저는 수십마디의 설명을 대신하는 이와 같은 참신하고 생동한 언어표현이야말로 독자들을 작품세계에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시적인 소설》, 《극적인 작품》, 《독자들 자신의 문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색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깊은 여운을 주는 소설들을 더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생동한 화폭

김흥섭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학수)이 독자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는것은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준데도 중요하게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평양시간》은 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데 대한 요구를 훌륭히 관철하였다.

소설은 인간관계를 짙 맞물려놓고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고있으며 생활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있다. 사실을 그대로 무미건조하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로 그리고있으며 따분한 서술이 아니라 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으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생활이 담긴 문학적이야기를 하고있으며 생활세부를 선명하게 묘사하면서 감명깊은 인간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이 제대배낭을 메고 첫눈내리는 평양에 돌아온 감격적인 생활묘사로부터 시작된 작품은 평양 건설자들의 불꽃튀는 생활을 일관하게 파헤치고있으며 상철이와 오월이가 만나는 량만적인 생활화폭으로 끝맺고있다.

장편소설에는 특히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제대군인청년들의 실생활이 생동하게 묘사되고 있다.

소설은 생활을 제대군인의 시점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있으며 모든 대사와 비유와 정서가 제대군인식으로 되고있다. 이런 형상적특성은 제대군인들의 성격을 더욱 생동하고 뚜렷하게 부각하는 데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영예군인이며 제대군관인 탁준범은 건설사업소 당위원장으로 제대군인들을 앞장에 내세워주며 원칙적으로 교양하고 일하는 법을 하나하나 깨우쳐주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손잡아 이끌어준다.

명민하고 광채가 어찌나 나는지 마주보기 두려울 정도로 밝은 눈을 가진 탁준범은 조립식건설과정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조립식건설의 의의를 깨우쳐주면서 제대군인들을 능숙하게 동원시켜 계속 조립작업을 하도록 한다.

관료주의와 사대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지배인 림도식과는 당적투쟁을 벌리며 형식주의자이며 맹종맹동하기를 잘하는 지대설작업반장은 교양주

어 개조한다. 전투다운 전투에 참가해보지 못하고 제대된 산골출신인 박수진은 부모들의 눈먼 사랑이 만들어준, 남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버릇된 습성을 건설투쟁의 벽천 현실속에서 극복 개조해나간다. 남반부출신인 손월석은 락천적이고 배포유하고 믿음이 가는 제대군인이다. 그는 대동강호안공사장에서 제방을 뚫고들어오는 강물을 가슴으로 막아 그를 구원해낸다. 생명이 위협에 직면했는데도 그는 웃으며 건설장을 지켜낸다.

정찰병이었던 채만집, 단발머리 간호병이었던 성진숙과 그의 오빠 성진락... 그들은 다 한사람같이 제대군인 평양건설자의 전형들이다.

평양건설자가 되겠다는 리상을 품은채 전사한 오빠의 뜻을 이어 평양건설자가 된 안오월의 형상은 생동하고 매력적이고 뜻깊다.

날씬하고 균형미가 잡혔으며 웅달샘같이 그윽한 눈을 가진 오월은 수도건설을 다그치려 변소가 시간도 단축하겠다고 물과 국도 적게 마시며 기증기로 폭탄도 희생적으로 들어올리고 창의교안, 합리화안을 찾느라고 침식을 잃는다.

토성랑의 부엌너였던 그는 순진하고 리해력있으며 웅심깊고 섬세하며 녀성다운 그 품성으로 하여 참으로 산 개성이다.

이 작품의 예술적특색은 잘 맺어진 인간관계속에서 생활을 풍부히 그리고있는데 있다.

작품은 생활을 그리기 위하여 몇개의 중요한 계기들을 설정하고 거기서 인간관계를 맞물리게 하고 생활을 다면적으로 깊이 파헤치고있다.

상철이와 수진이가 건설장에 첫 출근하는 대목, 상철이와 수진이가 탁준범을 찾아가 직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계기, 청년조립조의 조직,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으로 총막이 무너져내리는 사건, 평양시 건설자회의 등의 계기들에서 인간관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고 생활을 풍부히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이런 중요한 형상적계기들을 무뎠한 설화로 대치하지 않고 생활로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내용을 전개하면서도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창작적자세를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다. 완전히 생활로 작품을 구성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이 장편의 생활묘사의 특성이 있으며 고상한 예술성을 높이 구현하게 된 담보가 있다.

《평양시간》의 예술적특색의 하나는 우리 시대의 량만을 잘 그리고있으며 시대정신과 시대정서를 깊이 묘사하고있다는데 있다.

작품은 현대적미감과 사회주의현실생활의 요구에 맞게 락천적웃음으로 차넘치고있으며 제대군인 건설자들의 성격적특성에 어울리게 웃음과 랑만이 떠날줄 모르며 《평양속도》를 창조하는 주제사상적과제에 상응하게 밝은 정서로 채색되어있다.

사실 작품내용을 놓고보면 작가가 밝은 달밤의 정다운 산보도, 꽃피는 봄날의 즐거운 휴식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한 생활의 묘사도 피하고있다. 오히려 불꽃튀는 건설장을 정면에서 파고들어 묘사하고 애인과의 상봉도 비가 억수로 쏟아붓거나 눈내리는 추운 밤으로 끌고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평양건설자들의 생활과 내면세계에서 해학과 웃음, 밝은 정서를 찾아내어 그림으로써 강렬한 미학적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시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으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수도건설자들의 생활이 즐겁게 묘사되고있으며 벽돌을 쌓고 벽체를 조립하는 창조적로동의 기쁨이 흥취나게 그려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평양의 자연묘사에 반사시켜 행복하고 웃음넘치는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립을 시작한지 처음으로 조립계획을 한 다음날 기자들이 와서 사진찍는 생활의 즐거운 묘사는 더 말할것도 없고 다공관충막부재가 떨어져내리는 사고가 나 조립작업을 중지당하고 기초구덩이파기작업을 하면서도 만집은 키득거리며 효섭이공보가 신문에 사진이 소개되어 전국에 미남자로 알려질번하였다고 웃어댄다.

지어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에 가려는 상철, 종한이를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성화를 먹이는 부엌너를 떼놓는 묘사도 웃음으로 충만시키고있다.

화선전우 손월석과 성진숙의 전후 첫 상봉을 대동강호안공수장의 터진 제방을 막느라고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가는데서 한것이라든지 문화린의 아이가 아버지 밥 날라다주는 생활사실을 즐겁고 재미나게 묘사한것이라든지 끝없이 들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 작품의 생활이 안겨주는 락천성은 제대군인 청년건설자들의 성격에서 중요하게 흘러나온다. 유쾌하고 웃음과 희망으로 사는 그들, 실패하고도 락망을 모르는 청년건설자들의 정신적풍모가 중요한 작용을 놓고있다.

소설은 참으로 유쾌하고 흥겨운 웃음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준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는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한 평양건설자들의 생활이 이와 같이 생동하게, 랑만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작품을 읽노라면 실감이 나고 생활이 방불하게 안겨오고 책장에 인물들이 살아숨쉬고 걸어다니는 듯하며 웨쳐대는것 같은 감을 주는것이 이 소설이다. 읽은후에도 감동적인 영화를 방금 본듯이 선명

하게 생활화폭과 사건, 인물성격들이 떠오르는것이 이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의 생동성은 무엇보다 성격의 생동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중요인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얼마 나오지 않는 인물들도 생동하게 개성화되어있다.

어디까지 사실을 말하고 어디까지 통담을 말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팔, 남편에게 극진하고 살뜰한 상금이, 무뎠하고 사람좋은 손월석, 인간비극을 다 맛보고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눈을 뜨게 되는 직심스러운 리성준, 이악하고 리성적인 성진숙, 성실치 못하고 가식이 있고 발라맞추는 관료주의자 름도식, 메밀씨눈에 고집쟁이인 지태설작업반장, 생김새가 뾰족하게만 된 음흉한 꾀나봉 등 참으로 산 개성으로 얹혀져있으며 그로 하여 실감을 자아내게 한다.

작품은 개성을 생동하게 살리기 위하여 초상묘사를 상세히 하고있으며 특징적인 세부들을 반복강조하고있다. 상철의 고수머리, 오월의 웅달썸눈, 손월석의 부러진 두 앞이발 등을 극명하게 반복묘사함으로써 개성을 더욱 살려내고있다.

작품에 길게, 많이 나오는 회상도 설명하지 않고 선명한 화폭으로 묘사함으로써 생동성을 더욱 보장하고있다.

이 소설의 생동성은 생생한 어휘선택과 숨쉴있는 문장구성력의 열매이기도 하다. 작품은 전쟁에 참가했던 제대군인들이 흔히 쓰던 《제대군인》, 《다시분대장》, 《벽돌이 구멍을 듣는것 같이》, 《야전식으로》, 《공격》, 《화력》, 《전우》 등의 어휘와 평양건설자들이 즐겨쓰던 말들을 널리 찾아내어 적중하게 쓰고있다.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보통강에 대한 절절한 주정토로, 사고가 난후 문화린의 심리세계묘사, 오월이가 기중기운전공으로 되어 다시 건설장에 나타났을 때의 상철의 행동묘사 등은 묘사밀도를 잘 조절하면서 생활을 세부화하여 상세히 그려냄으로써 성격을 섬세하게 부각해내고있다.

그런가 하면 상철이와 수진이가 벽돌을 처음 잘못 쌓은것을 보는 사람들의 각이한 태도와 심리는 간결하게 묘사하고있으며 군더더기로 되는 생활에 이르러서는 대담하게 끊어버리고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무뎠하게 전달하지 않고 재미있게 생동하게 생활적으로 이야기하고있다.

그러기에 인간과 그 생활을 그토록 생동하게 형상화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생활을 풍부하고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